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Ⅰ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최 원(선임연구원)
		김세중(선임연구원)
	금융경제	최이섭(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	이경희(전문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김대환(연구위원)
		최 원(선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선임연구원)
	일 · 중	최이섭(연구원)
	유 럽	이정환(선임연구원)
		최 원(선임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목차

Ⅰ. 테마진단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보험종목과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 1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 31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55

2. 국내경제 / 75

3. 금융경제 / 85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93

2. 생명보험 / 95

3. 손해보험 / 107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국 동향 / 129

일본 동향 / 137

중국 동향 / 146

유럽 동향 / 154

Ⅴ. 국내외 보험 · 금융 주요 뉴스 / 167

Ⅵ. 통계표 / 179

Ⅰ. 테마진단

◈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보험종목과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생명보험상품의 신계약은 향후 보험회사의 성장성, 이익률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FY2006~FY2010 1분기 동안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을 납입 방법(월납 vs. 일시납), 보험종목(보장성 vs. 금융형), 판매채널(설계사 vs. 방카슈랑스)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계약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산업 전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각종 지표 분석은 주로 전체 수입보험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신계약 매출에 대한 통계 집적 및 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음.

○ 주계약과 특약이 혼재되어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상 담보를 중심으로 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 현행 업무보고서상 신계약 정보는 납입 방법에 대한 조정 없이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산하므로 일시납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채널 측면에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음.

○ 일시납 비중이 높은 금융형보험이 월납 중심인 보장성보험을 압도하게 되어 전체적인 신계약 특성이 금융형보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됨.

○ 판매채널 실적도 일시납 판매 비중이 높은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우려가 있음.

■ 신계약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고에서는 통일된 상품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입수한 후, 신계약 보험료를 월납 · 일시납 · 연납화(Annualize Premium Equivalent)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함.

○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신계약 데이터를 제출한 회사는 21개사[1]이며, 대상 기간은 FY2006 1/4분기~FY2010 1/4분기임.

○ 분석 대상을 개인보험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계정 단체보험과 특별계정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제외시킴.

○ 상품 종류는 먼저 보장성과 금융형으로 대분류하고, 보장성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금융형은 연금과 저축으로 중분류함.

- 사망보장에 속하는 보험은 종신, 치명적질병(CI: critical illness)종신, 변액종신, 변액CI종신, 정기보험으로 소분류하고, 통합형 보험은 주계약 성격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분류함.[2]
- 생존보장에 속하는 보험은 실손의료, 장기간병, 질병, 상해, 어린이 및 기타로 소분류하는데, 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장기간병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건강보장 보험(예: 암보험)을 포함함.
- 연금은 주계약 부리이율이 확정형인 금리확정형과 변동형인 금리변동형, 실적배당형인 변액연금으로 소분류함.
- 저축보험은 보장성과 연금 이외의 보험으로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저축, 변액저축, 교육보험을 포함함.

---

1)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1개사는 제외시킴. 전체 생명보험회사(22개사) 대비 21개사가 차지하는 수입보험료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94~98%에 달해 전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음.

2) CI보험에서 장기간병 진단을 선지급형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CI보험으로 구분하며, CI정기보험은 정기보험으로 구분함.

〈표 1〉 개인보험 상품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장성	사망보장	- 종신 - CI종신 - 변액종신 - 변액CI종신 - 정기	금융형	연금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생존보장	- 실손의료 - 장기간병 - 질병 - 상해 - 어린이 - 기타		저축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 판매채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고, 대면 채널은 다시 설계사, 대리점(GA: general agency), 방카슈랑스로 세분하며, 비 대면채널은 전화 판매(TM: telemarketing), 인터넷 판매(CM: cyber marketing),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및 기타로 세분함.

○ 비대면채널 중 전화판매(TM)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센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다이렉트 대리점은 보험회사가 법인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 분석대상을 개인보험으로 한정함에 따라 단체보험이나 퇴직보험 ·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임직원 판매채널은 제외함.

〈표 2〉 판매채널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면	설계사		비대면	전화 판매(TM)
	대리점 (GA)	- 개인대리점 - 법인대리점		인터넷 판매(CM)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방카슈랑스			기타

2. 초회보험료 추이

가. 월납 초회보험료

개인생명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연간 1조 4천억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보장성보험은 FY2006~FY2008 동안에는 축소되었으나 FY2009 이후 회복세로 진입하였으며, 금융형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FY2008~FY2009 축소되었으나 FY2010 1분기 들어서는 큰 폭으로 회복됨. FY2010 1/4분기 기준 보장성과 금융형의 비중은 대략 40% : 60% 수준임.

■ FY2006~FY2009 개인생명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1조 4천억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장성보험은 FY2006 6천억원에 달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사망보장 시장의 확대에 따라 FY2009를 계기로 반등함.

○ 금융형보험은 FY2007 1조원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FY2009에는 7,859억원 수준으로 축소됨.

■ 보장성보험에서는 생존보장에 비해 사망보장의 시장 회복이 큰 것으로 나타남(소분류 기준 종목별 현황은 〈부록 표 1〉 참조).

○ 사망보장 중 CI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보험 출시 이후 CI종신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FY2008 1,576억원에서 FY2009에는 3,165억원으로 확대되었음.

- 정기보험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증대되는 추이를 보임(FY2006 191억원→ FY2009 243억원).

○ 이에 비해 생존보장의 시장 규모는 1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사망보장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 생존보장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FY2006 1,679억원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보장성보험 내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2009년 10월 1일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표준화 조치[3]를 시행한 실손의료보험은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FY2009 18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여전히 손해보험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 사망보장	4,505	3,830	3,662	5,362	916	1,078
- 생존보장	1,679	1,584	953	1,026	244	208
금융형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 연금	4,901	6,680	5,490	4,960	891	1,182
- 저축	3,639	4,054	3,894	2,899	628	809
개인보험 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자료 :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보장성보험이 FY2009 들어 반등한 데 힘입어 FY2009에는 1.8% 플러스 성장하고, FY2010 1/4분기에는 22.3%로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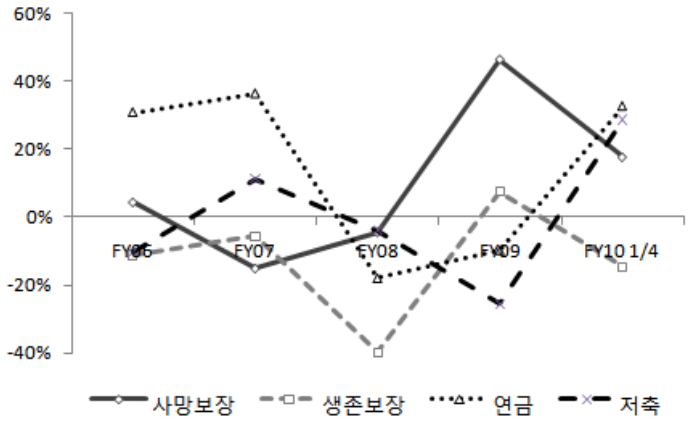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모두 FY2009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FY2010 1/4분기에는 사망보장만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 갔음.

- 생존보장의 월납 초회보험료는 규모가 작아서 변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형보험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모두 FY2009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섬.

3)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장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였으며, 상품유형 · 보장범위 · 운영방식 등을 표준안으로 통일시킴.

〈그림 1〉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보장성과 금융형의 비중은 연도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40% :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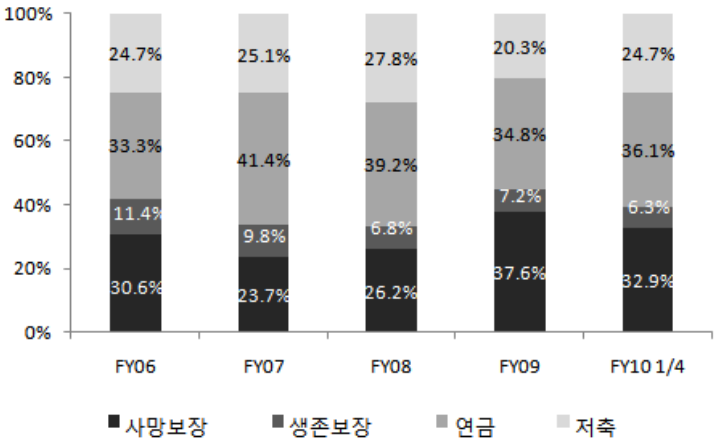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08에는 33.0%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FY2009 이후에는 다시 40% 수준을 회복하였음.

- 사망보장의 비중은 FY2006 30.6%에서 FY2007에는 23.7%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신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 FY2009 이후에는 30% 수준을 초과함.
- 이에 비해 생존보장 비중은 FY2006 11.4%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FY2009에는 실손의료보험 판매효과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었으나 다시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 낮아짐.
- 이와 같이 생존보장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은 동 분야의 위험률이 급증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부문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판매 중단, 언더라이팅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금융형보험의 비중은 FY2007에 67.0%까지 높아진 이후 급락하였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다시 60%대 초반 수준을 회복함.

- FY2005에는 저축보험 비중이 연금보험 비중보다 소폭 높았으나, FY2006 이후에는 연금보험의 비중이 저축보험의 비중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나. 일시납 보험료

FY2009 기준 5조원에 달하는 일시납 계약은 주로 금융형보험을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금융형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금리 · 주가 · 판매채널 등 보험회사 외부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전체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최대 7조 1천억원(FY2007), 최저 3조 8천억원(FY2008)에 달할 정도로 연도별 편차가 큰 시장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5조원 정도의 일시납 보험료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의 일시납보험료는 FY2006에는 2천 5백억원 수준이었으나 사망보장 부문에서 매년 크게 감소함에 따라 FY2009에는 8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형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등세를 보여 FY2009 4조 9천억원(연금보험 3조 2천억원 vs. 저축보험 1조 7천억원)을 기록하였음(소분류 기준 종목별 현황은 〈부록 표 2〉 참조).

- 일시납 금융형보험의 대부분은 금리변동형(연금보험 2조 4천억원, 저축보험 1조 5천억원)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중 변액상품은 연금보험 8천억원, 저축보험 1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됨.

〈표 4〉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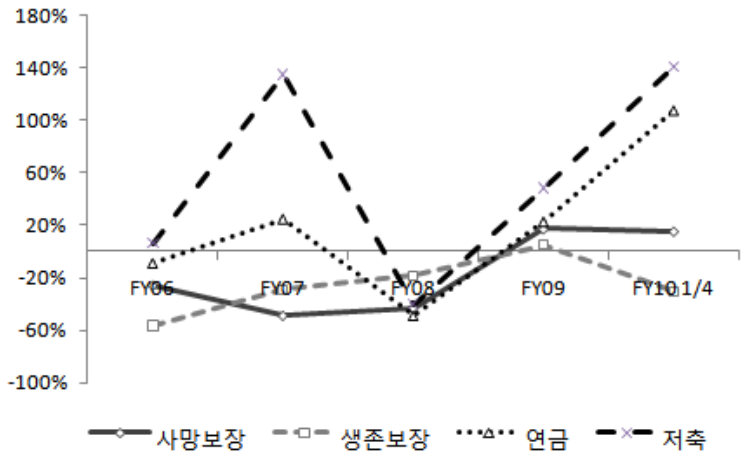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2,470	1,294	758	883	166	186
- 사망보장	2,355	1,213	691	813	152	176
- 생존보장	115	82	67	70	14	10
금융형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 연금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 저축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개인보험 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자료 :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 금융형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은 변동 폭이 매우 크고 불규칙적이어서 일정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납 보험 계약이 경제 성장, 금리, 주가, 판매채널(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전략)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됨.

○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 일시납 보험료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FY2007에는 70~200%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인 FY2008에는 66~75% 축소되었음.

〈그림 3〉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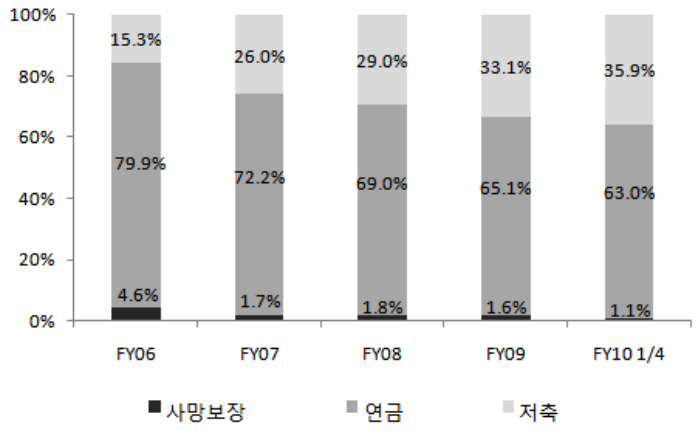
■ 전체 일시납 계약 중 99% 정도가 금융형이며 금융형 중에서도 특히 연금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보험료 중 연금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79.9%에 달했으나, 점차 축소되어 FY2010 1분기에는 63.0%로 낮아짐.

○ 이에 비해 저축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15.3%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FY2010 1분기에는 35.9%를 기록함.

○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에는 4.8%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FY2009 이후에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



다.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매출 추이를 연납화 보험료 지표로 보면, FY2009 들어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높고, FY2010 1분기에는 금융형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는 월납 · 2월납 · 분기납 · 반기납 · 연납 · 일시납 등 모든 납입 형태의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매출을 평가하는 지표임.

○ 산출 방식은 [(월납 초회보험료×12)+(2월납 초회보험료×6)+(3월납 초회보험료×4)+(6월납 초회보험료×2)+연납 초회보험료+일시납 보험료/10]에 의함.

○ 납입 방식 간 보험료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간 유입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에 비해 신계약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보험의 전체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FY2009 17조 7천억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분기 기준으로는 FY2010 1/4분기 4조 1천억원 수준으로 높아짐.

○ FY2009 기준 보장성보험의 규모는 7조 8천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4년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함.

○ 금융형보험의 규모는 9조 9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월납 계약에서 신계약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표 5〉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 사망보장	54,445	46,175	44,096	64,521	11,011	12,980
- 생존보장	21,088	19,924	12,293	13,097	3,112	2,627
금융형	107,422	135,842	116,523	99,342	19,014	25,588
- 연금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 저축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개인보험 계	182,955	201,941	172,912	176,980	33,156	41,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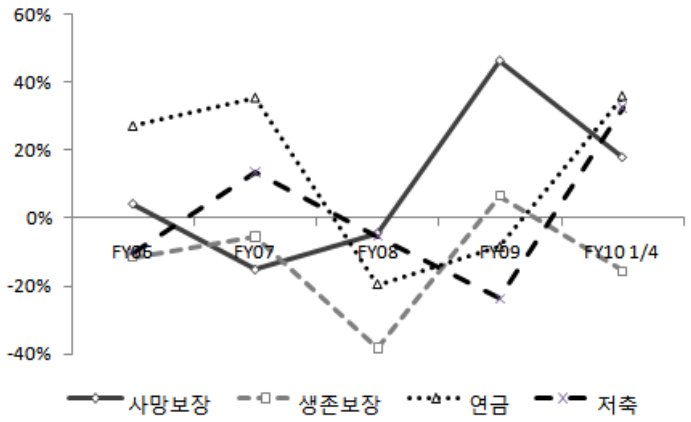
자료: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 연납화 보험료 지표로 환산하면, 월납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12배를 곱하는데 비해 일시납은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계약 추이(성장률 및 구성비)가 월납 초회보험료와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는 FY2008 14.4% 감소세에서 FY2009 2.4% 증가세로 회복되었고, FY2010 1분기에는 24.2% 성장함에 따라 신계약 측면에서는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임.

○ FY2010 1분기 기준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은 보장성보험이 10.4%(사망보장 17.9% vs. 생존보장 -15.6%), 금융형보험(연금보험 36.0% vs. 저축보험 32.5%)이 34.6%에 달해 금융형보험의 성장세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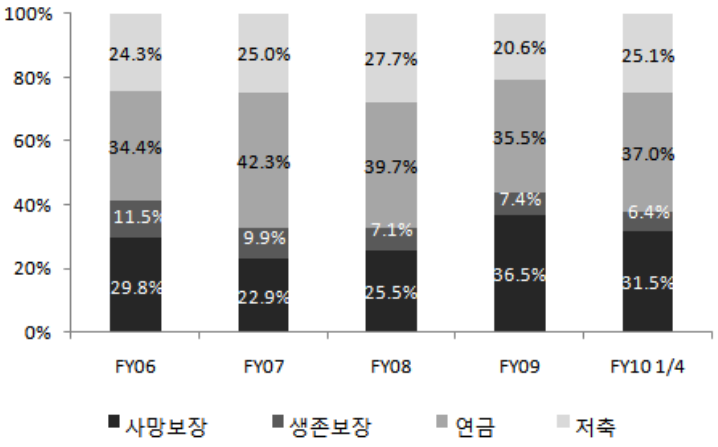


■ FY2009 기준으로 볼 때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사망보장의 비중(FY2005 29.8%→FY2009 36.5%) 확대가 두드러짐.

○ 대체적으로 금융형보험 비중이 보장성보험보다 15~1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Y2007~FY2008에 35%p 수준으로 차이가 확대되었고, FY2009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7~FY2008에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은 종신 · CI보험 부문의 포화로 신계약이 급속히 축소되었고, 암보험 부문에서의 손실이 확대되어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6〉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



■ 월납과 일시납을 구분하지 않고 신계약을 단순 합계한 초회보험료 기준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신계약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납입 방식 간 차이를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보장성보험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40% 수준으로 파악되며, 연납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보다 1%p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현상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금융형보험과 달리 일시납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이 월납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임.

〈표 6〉 신계약 집계 방식 별 보장성보험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12.2	6.7	8.6	9.2	7.4
월납 초회보험료(B)	42.0	33.5	33.0	44.8	39.2
연납화 초회보험료(C)	41.3	32.7	32.6	43.9	37.9

자료 : A는 업무보고서상 22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이며, B와 C는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한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3.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가. 월납 초회보험료

월납 초회보험료 중 설계사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63%를 점유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GA, 방카슈랑스, 비대면 채널 순으로 나타남. GA채널은 FY2010 1분기 들어 소폭 축소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이 크게 확대됨.

■ 월납 초회보험료 중 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을 상회하여 아직까지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은 10%를 넘어서지 못한 수준임.

○ 대면 채널 중에서는 설계사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 채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월납 신계약 부문에서 설계사 채널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 비중은 법인대리점의 성장에 따라 점차 증대되는 추이(FY2006 12.1%→FY2009 15.8%)를 보이다가 FY2010 1/4분기 들어 소폭 축소되었음.

○ 월납 신계약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비대면 채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채널은 TM으로 6% 수준에 달하며, 이어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CM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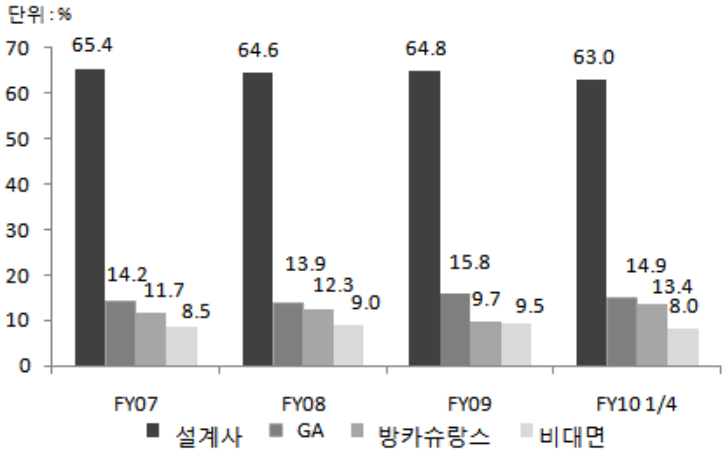
- 월납 초회보험료에서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에는 2.2%에 달했으나 FY2009에는 1.8%로 낮아지고, 이어 FY2010 1/4분기에는 1.1% 수준으로 급락함.

〈표 7〉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1.5	91.5	91.0	90.5	92.0
설계사	65.3	65.4	64.6	64.8	63.0
대리점(GA)	12.1	14.2	13.9	15.8	14.9
개인	2.6	2.8	2.2	1.8	1.3
법인	9.5	11.3	11.7	14.0	13.6
방카슈랑스	13.9	11.7	12.3	9.7	13.4
기타	0.2	0.2	0.2	0.2	0.6
비대면	8.5	8.5	9.0	9.5	8.0
TM	4.8	5.3	5.8	6.1	5.8
CM	0.1	0.1	0.1	0.2	0.1
홈쇼핑	2.2	1.9	1.9	1.8	1.1
다이렉트 대리점	1.4	1.1	1.2	1.3	1.1
기타	0.0	0.0	0.0	0.0	0.0

〈그림 7〉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나. 일시납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에서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20%대에 불과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70%대를 돌파함. 일시납 계약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FY2006 45.4%→FY2010 1/4분기 21.6%)되어 온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어 FY2010 1/4분기에는 70%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짐.

- 다른 채널에 비해 방카슈랑스 채널은 자행 은행 예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일시납 저축보험 및 일시납 연금보험 판매에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임.
- 대형사에 비해 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형 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영업전략의 결과임.

○ 대리점 채널의 비중은 FY2007에는 10.0%까지 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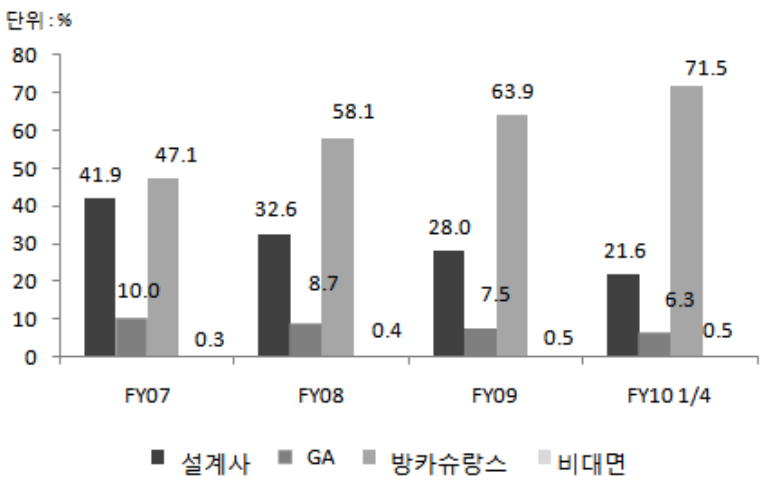
○ 일시납 보험료에서 비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0.5% 이하)으로 나타남.

〈표 8〉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9.8	99.7	99.6	99.5	99.5
설계사	45.4	41.9	32.6	28.0	21.6
대리점(GA)	6.4	10.0	8.7	7.5	6.3
개인	1.1	2.5	1.4	0.8	0.8
법인	5.3	7.5	7.3	6.7	5.5
방카슈랑스	47.8	47.1	58.1	63.9	71.5
기타	0.2	0.7	0.3	0.1	0.1
비대면	0.2	0.3	0.4	0.5	0.5
TM	0.1	0.2	0.3	0.4	0.4
CM	0.0	0.0	0.0	0.0	0.0
홈쇼핑	0.1	0.0	0.1	0.0	0.0
다이렉트 대리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그림 8〉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일시납 보험료 비중



다.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별 비중은 설계사가 60%대를 초과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카슈랑스 15%, 대리점 14%, 비대면 채널 7%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설계사와 비대면 채널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독립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성장하고 있음.

■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대면채널 비중은 92% 수준에 달하며, 비대면 채널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면 채널 의존도가 크게 높음.

○ 대면 채널 의존도는 설계사 비중이 60% 수준을 초과하여 가장 높고, 방카슈랑스 15%, 대리점(GA) 14% 순으로 나타남.

○ 대리점은 법인대리점 비중이 대부분이며, 개인대리점의 비중은 1%대에 불과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

○ 비대면 채널 비중은 FY2009에는 9.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7.6% 수준으로 낮아짐.

-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홈쇼핑 채널에 대한 광고 규제 강화, 보험회사의 위험률 차익률 관리[4]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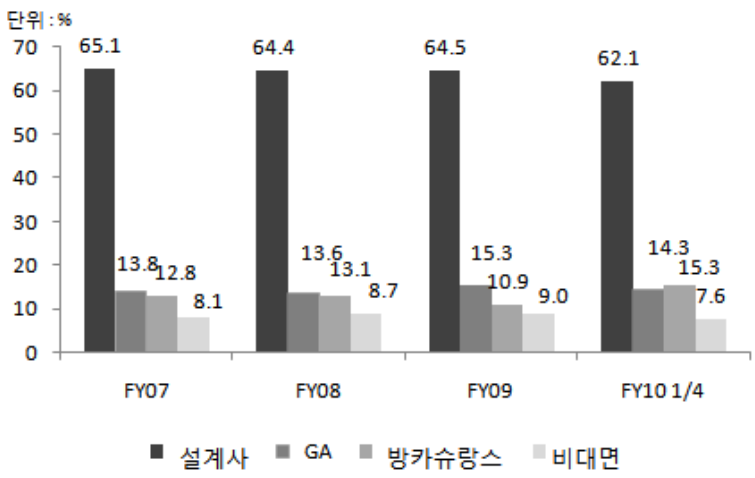
4) 대면 채널에 비해 비대면 채널의 보험금 지급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짐. 보험개발원 분석에 의하면, 32세 입원담보의 경우 비대면 채널 사고발생률이 대면 채널보다 2.5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9〉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2.0	91.9	91.3	91.0	92.4
설계사	65.7	65.1	64.4	64.5	62.1
대리점(GA)	11.6	13.8	13.6	15.3	14.3
개인	2.5	2.8	2.2	1.8	1.3
법인	9.1	11.1	11.5	13.6	13.1
방카슈랑스	14.4	12.8	13.1	10.9	15.3
기타	0.2	0.2	0.2	0.2	0.6
비대면	8.0	8.1	8.7	9.0	7.6
TM	4.5	5.0	5.5	5.8	5.4
CM	0.1	0.1	0.1	0.2	0.1
홈쇼핑	2.1	1.8	1.8	1.7	1.0
다이렉트 대리점	1.3	1.1	1.2	1.3	1.0
기타	0.0	0.1	0.0	0.0	0.0

〈그림 9〉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 연납화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설계사가 방카슈랑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계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비중이 높고, 설계사 채널은 보험료 규모가 작은 월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채널이 60% 수준으로 높게 산출되는 데 비해 설계사 채널은 30% 수준으로 낮게 계산됨.

○ 반면, 본고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같이 납입 방법상 차이를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아직까지 설계사 비중이 60%를 초과하며 방카슈랑스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신계약 집계 방식 별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설계사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51.8	49.1	43.8	37.1	30.8
	월납 초회보험료(B)	65.3	65.4	64.6	64.8	63.0
	연납화 초회보험료(C)	65.7	65.1	64.4	64.5	62.1
방카슈랑스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39.7	40.0	45.4	52.9	60.4
	월납 초회보험료(B)	13.9	11.7	12.3	9.7	13.4
	연납화 초회보험료(C)	14.4	12.8	13.1	10.9	15.3

자료 : A는 업무보고서상 22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이며, B와 C는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한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4. 요약 및 시사점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신계약 매출의 성과를 분석하면, 납입 방법 간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월납 초회보험료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납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계약을 월납 초회, 일시납 및 연납화 기준으로 구분하여 종목, 판매채널 비중을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표 11〉 참조).

○ 이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납입 방식(보장성보험은 월납 vs. 금융형보험은 일시납)과 판매채널(보장성보험은 설계사 vs. 금융형보험은 방카슈랑스)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납입 방식을 연 기준으로 조정하는 연납화 기준에 의하면, 전체적인 신계약 추이는 월납 초회보험료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표 11〉 납입방법 별 개인보험 신계약 특징 요약

	월납 초회	일시납	연납화 보험료
산출 기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계약의 1회 보험료	최초 1회만 납입되는 계약의 보험료	월(분할)납과 일시납을 연 기준으로 환산
신계약 규모 (FY2009)	- 전체 1조 4,248억원 • 보장성 6,389억원 • 금융형 7,859억원	- 전체 5조원 • 보장성 883억원 • 금융형 4조 9,175억원	- 전체 17조 6,980억원 • 보장성 7조 7,638억원 • 금융형 9조 9,342억원
특징	- 위험보장 목적 - 보장성보험 중심 - 건단 보험료 소액	- 자산 축적 목적 - 금융형보험 중심 - 건당 보험료 고액	월납 계약 가중치 높아져 월납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연납화 보험료 기준에 따라 FY2006~FY2009 신계약 동향을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영역 발굴을 통한 성장성 제고가 필요함.

○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FY2006 18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FY2009 17조 7천억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신계약 구성 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높아져 40%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사망보장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생존보장 비중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망보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익성(위험률 차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들이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상품(innovative product) 공급, 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등 신규 영역을 발굴해야 할 것임.

■ 연납화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설계사가 60%를 초과하는 데 비해 방카슈랑스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설계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시납 기준으로 보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데 비해 설계사 비중은 20%대에 불과함.

○ 설계사는 초회보험료 규모가 작은 월납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데 비해 방카슈랑스는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금융형보험에 경쟁력을 갖기 때문임.

■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매출 정보를 통해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납입 방법을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월납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보험료를 단순 합계한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동부증권 리서치센타, 『보험업』, 2010.3.23.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계약속성 및 리스크 분석과 상품운용 전략』, CEO Report, 2008-3, 2008.12.

생명보험 각 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 각 사, 업무보고서 자료.

AXA, "Life Product Overview," September 2004.

Datamonitor, 『Consumer Targeting in Life and Pension 2010』, September 2010.

Datamonitor, 『Key Consumer Trends for Insurance Providers Post-Recession: Traking insurance policyholders' behavior in an evolving environment』, August 2010.

Datamonitor, 『Lif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Industry Profile』, November 2009.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November 2010.

〈부록 표 1〉 월납 초회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보장성보험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종신보험	1,238	1,336	995	1,017	259	207
CI종신보험	2,200	1,468	1,576	3,165	403	590
변액종신보험	424	635	743	878	173	228
변액CI종신보험	452	171	106	59	12	12
정기보험	191	220	241	243	68	40
실손의료보험	11	13	122	186	39	35
장기간병보험	36	7	11	12	4	3
질병보험	733	623	384	353	85	59
상해보험	471	591	222	241	58	49
어린이보험	212	169	132	156	34	47
기타	217	182	83	78	24	14
금융형보험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연금보험	4,901	6,680	5,490	4,960	891	1,182
금리확정형	53	26	9	15	3	2
금리변동형	2,574	2,986	3,012	2,599	525	565
변액연금	2,274	3,668	2,469	2,347	364	615
저축보험	3,639	4,054	3,894	2,899	628	809
금리확정형	0	0	0	0	0	0
금리변동형	1,718	1,229	2,134	2,282	482	609
변액저축	1,921	2,825	1,760	617	146	200

〈부록 표 2〉 일시납 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보장성보험	2,470	1,294	758	883	166	186
종신보험	264	211	84	150	36	23
CI종신보험	1,044	542	321	352	81	70
변액종신보험	241	282	214	281	29	81
변액CI종신보험	802	173	67	21	5	0
정기보험	3	6	6	10	1	1
실손의료보험	0	0	0	0	0	0
장기간병보험	3	1	0	0	0	0
질병보험	16	7	11	12	1	1
상해보험	29	39	26	31	8	2
어린이보험	61	31	25	22	3	5
기타	6	4	4	5	2	2
금융형보험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연금보험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금리확정형	2	476	1,050	321	71	18
금리변동형	22,833	21,129	15,682	24,306	3,750	8,335
변액연금	16,575	28,673	9,757	7,959	1,266	2,207
저축보험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금리확정형	0	0	0	0	0	0
금리변동형	3,973	6,369	8,233	15,446	2,279	5,828
변액저축	3,852	11,864	2,920	1,143	223	200

〈부록 표 3〉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82,955	201,941	172,912	176,980	33,156	41,195
보장성보험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종신보험	14,974	16,086	11,967	12,235	3,119	2,489
CI종신보험	26,513	17,670	18,949	38,018	4,842	7,090
변액종신보험	5,109	7,654	8,943	10,560	2,084	2,749
변액CI종신보험	5,501	2,072	1,285	713	149	141
정기보험	2,348	2,693	2,952	2,995	816	511
실손의료보험	287	262	1,556	2,320	515	439
장기간병보험	440	90	136	145	44	33
질병보험	8,830	7,486	4,620	4,251	1,020	706
상해보험	6,343	7,804	3,366	3,555	839	704
어린이보험	2,562	2,041	1,588	1,878	404	571
기타	2,626	2,242	1,027	948	289	175
금융형보험	107,422	135,842	116,523	99,342	19,014	25,588
연금보험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금리확정형	660	371	210	214	43	28
금리변동형	33,167	37,951	37,717	33,615	6,674	7,610
변액연금	28,950	46,880	30,740	29,008	4,497	7,615
저축보험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금리확정형	3	3	2	2	1	0
금리변동형	21,016	15,390	26,448	28,927	6,013	7,893
변액저축	23,435	35,083	21,406	7,575	1,786	2,442

〈부록 표 4〉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5.1	9.7	-13.3	1.8	-29.1	22.3
보장성보험	-0.3	-12.5	-14.7	38.4	4.2	10.8
종신보험	2.2	7.9	-25.5	2.2	10.2	-20.1
CI종신보험	4.4	-33.3	7.4	100.8	17.8	46.5
변액종신보험	-9.9	50.0	17.0	18.0	-27.2	31.7
변액CI종신보험	8.8	-62.1	-37.8	-44.4	-67.4	-5.6
정기보험	74.9	15.4	9.6	0.8	51.3	-40.4
실손의료보험	-11.5	18.2	870.0	53.1	70.2	-10.1
장기간병보험	-33.5	-79.5	52.5	6.5	161.8	-25.9
질병보험	-25.9	-15.1	-38.3	-8.0	-14.0	-30.7
상해보험	1.0	25.5	-62.5	8.5	15.5	-15.7
어린이보험	-19.8	-20.2	-22.1	18.4	-0.3	41.2
기타	109.9	-16.1	-54.4	-6.3	226.5	-39.4
금융형보험	9.4	25.7	-12.6	-16.2	-43.0	31.0
연금보험	30.8	36.3	-17.8	-9.6	-42.6	32.6
금리확정형	14.5	-51.7	-66.3	69.5	12.8	-17.0
금리변동형	45.8	16.0	0.9	-13.7	-23.9	7.6
변액연금	17.6	61.3	-32.7	-4.9	-57.7	69.1
저축보험	-10.3	11.4	-3.9	-25.6	-43.7	28.7
금리확정형	-97.1	-35.4	-63.9	64.4	995.0	-110.5
금리변동형	-4.4	-28.5	73.7	6.9	26.6	26.4
변액저축	-14.8	47.1	-37.7	-64.9	-80.1	36.6

〈부록 표 5〉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7.8	38.4	-46.3	30.4	-39.2	116.3
보장성보험	-27.8	-47.6	-41.4	16.5	-33.6	11.8
종신보험	-40.9	-20.4	-60.1	78.9	106.4	-35.5
CI종신보험	2.9	-48.1	-40.8	9.7	4.1	-13.4
변액종신보험	4.6	16.7	-24.1	31.2	-74.2	177.2
변액CI종신보험	-45.4	-78.4	-61.4	-69.0	-83.0	-98.0
정기보험	54.4	73.5	7.7	59.1	-20.0	36.7
실손의료보험	-	-	-	-	-	-
장기간병보험	-76.6	-74.1	-44.8	-58.7	-100.0	-
질병보험	-77.5	-57.2	66.5	7.6	73.3	-33.3
상해보험	-61.5	33.4	-34.0	19.7	58.9	-73.2
어린이보험	-38.4	-49.9	-18.5	-10.5	-34.6	38.2
기타	-16.3	-23.0	-4.5	9.7	106.1	12.3
금융형보험	-6.5	42.8	-46.3	30.6	-39.3	118.6
연금보험	-8.6	25.0	-48.6	23.0	-45.9	107.6
금리확정형	3528.8	28169.2	120.4	-69.4	-61.9	-74.8
금리변동형	70.5	-7.5	-25.8	55.0	-1.5	122.2
변액연금	-36.7	73.0	-66.0	-18.4	-76.6	74.3
저축보험	6.3	135.2	-40.0	48.7	-19.3	140.9
금리확정형	-	-	-	-	-	-
금리변동형	-15.6	60.3	29.3	87.6	101.5	155.7
변액저축	41.8	208.0	-75.4	-60.9	-88.7	-10.4

〈부록 표 6〉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4.5	10.4	-14.4	2.4	-29.3	24.2
보장성보험	-0.7	-12.5	-14.7	37.7	4.2	10.4
종신보험	1.7	7.4	-25.6	2.2	10.2	-20.2
CI종신보험	4.3	-33.4	7.2	100.6	17.7	46.4
변액종신보험	-9.8	49.8	16.8	18.1	-27.4	31.9
변액CI종신보험	7.2	-62.3	-38.0	-44.5	-67.5	-5.9
정기보험	75.8	14.7	9.6	1.4	48.5	-37.3
실손의료보험	-1.8	-8.9	494.6	49.1	65.8	-14.8
장기간병보험	-33.2	-79.6	52.1	6.4	161.0	-25.9
질병보험	-27.0	-15.2	-38.3	-8.0	-13.9	-30.8
상해보험	2.1	23.0	-56.9	5.6	13.9	-16.1
어린이보험	-20.1	-20.3	-22.2	18.3	-0.4	41.1
기타	93.2	-14.6	-54.2	-7.7	201.0	-39.7
금융형보험	8.5	26.5	-14.2	-14.7	-42.9	34.6
연금보험	27.2	35.5	-19.5	-8.5	-42.8	36.0
금리확정형	13.5	-43.8	-43.3	1.9	-8.7	-33.6
금리변동형	47.2	14.4	-0.6	-10.9	-22.9	14.0
변액연금	12.1	61.9	-34.4	-5.6	-58.7	69.3
저축보험	-10.1	13.6	-5.3	-23.7	-43.0	32.5
금리확정형	-96.6	-0.9	-37.6	6.7	438.0	-108.0
금리변동형	-4.7	-26.8	71.9	9.4	28.4	31.3
변액저축	-14.3	49.7	-39.0	-64.6	-80.2	36.7

〈부록 표 7〉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2.0	33.5	33.0	44.8	43.3	39.2
종신보험	8.4	8.3	7.1	7.1	9.7	6.3
CI종신보험	14.9	9.1	11.3	22.2	15.0	18.0
변액종신보험	2.9	3.9	5.3	6.2	6.5	7.0
변액CI종신보험	3.1	1.1	0.8	0.4	0.5	0.4
정기보험	1.3	1.4	1.7	1.7	2.5	1.2
실손의료보험	0.1	0.1	0.9	1.3	1.5	1.1
장기간병보험	0.2	0.0	0.1	0.1	0.1	0.1
질병보험	5.0	3.9	2.7	2.5	3.2	1.8
상해보험	3.2	3.7	1.6	1.7	2.2	1.5
어린이보험	1.4	1.0	0.9	1.1	1.3	1.4
기타	1.5	1.1	0.6	0.5	0.9	0.4
금융형보험	58.0	66.5	67.0	55.2	56.7	60.8
연금보험	33.3	41.4	39.2	34.8	33.3	36.1
금리확정형	0.4	0.2	0.1	0.1	0.1	0.1
금리변동형	17.5	18.5	21.5	18.2	19.6	17.2
변액연금	15.4	22.7	17.6	16.5	13.6	18.8
저축보험	24.7	25.1	27.8	20.3	23.4	24.7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11.7	7.6	15.2	16.0	18.0	18.6
변액저축	13.0	17.5	12.6	4.3	5.5	6.1

〈부록 표 8〉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8	1.8	2.0	1.8	2.1	1.1
종신보험	0.5	0.3	0.2	0.3	0.5	0.1
CI종신보험	2.0	0.8	0.8	0.7	1.0	0.4
변액종신보험	0.5	0.4	0.6	0.6	0.4	0.5
변액CI종신보험	1.6	0.2	0.2	0.0	0.1	0.0
정기보험	0.0	0.0	0.0	0.0	0.0	0.0
실손의료보험	0.0	0.0	0.0	0.0	0.0	0.0
장기간병보험	0.0	0.0	0.0	0.0	0.0	0.0
질병보험	0.0	0.0	0.0	0.0	0.0	0.0
상해보험	0.1	0.1	0.1	0.1	0.1	0.0
어린이보험	0.1	0.0	0.1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금융형보험	95.2	98.2	98.0	98.2	97.9	98.9
연금보험	79.9	72.2	69.0	65.1	65.6	63.0
금리확정형	0.0	0.7	2.7	0.6	0.9	0.1
금리변동형	44.2	29.6	40.8	48.6	48.4	49.7
변액연금	32.1	40.1	25.4	15.9	16.3	13.2
저축보험	15.3	26.0	29.0	33.1	32.3	35.9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7.7	8.9	21.4	30.9	29.4	34.7
변액저축	7.5	16.6	7.6	2.3	2.9	1.2

〈부록 표 9〉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1.3	32.7	32.6	43.9	42.7	37.9
종신보험	8.2	8.0	6.9	6.9	9.4	6.0
CI종신보험	14.5	8.7	11.0	21.5	14.6	17.2
변액종신보험	2.8	3.8	5.2	6.0	6.3	6.7
변액CI종신보험	3.0	1.0	0.7	0.4	0.5	0.3
정기보험	1.3	1.3	1.7	1.7	2.5	1.2
실손의료보험	0.2	0.1	0.9	1.3	1.6	1.1
장기간병보험	0.2	0.0	0.1	0.1	0.1	0.1
질병보험	4.8	3.7	2.7	2.4	3.1	1.7
상해보험	3.5	3.9	1.9	2.0	2.5	1.7
어린이보험	1.4	1.0	0.9	1.1	1.2	1.4
기타	1.4	1.1	0.6	0.5	0.9	0.4
금융형보험	58.7	67.3	67.4	56.1	57.3	62.1
연금보험	34.4	42.3	39.7	35.5	33.8	37.0
금리확정형	0.4	0.2	0.1	0.1	0.1	0.1
금리변동형	18.1	18.8	21.8	19.0	20.1	18.5
변액연금	15.8	23.2	17.8	16.4	13.6	18.5
저축보험	24.3	25.0	27.7	20.6	23.5	25.1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11.5	7.6	15.3	16.3	18.1	19.2
변액저축	12.8	17.4	12.4	4.3	5.4	5.9

◈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김대환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장측면에서 기업도산 등에 대비한 지급보장장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진국의 지급보장장치 사례 등을 비교한 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사후적 지급보장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목표로 했거나 약속했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사용자(기업)나 사업자인 금융회사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도 투자수익률의 저하, 금리의 하락, 그리고 사용자인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또는 제도)는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연금약속을 보증하는 장치로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의무가입에 근거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급보장장치의 도입필요성이 그 만큼 크다 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확정급여형의 경우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지급보증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현행 지급보장장치를 살펴본 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개선과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장치의 현황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와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도산 시의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수준이 미흡한 수준임.

■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을 기준으로 사전적 수급권 보장 사후적 수급권 보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1〉 사전적·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 비교

<table>
<tr><th rowspan="2">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th><th colspan="3">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th></tr>
<tr><th>구분</th><th>우리나라</th><th>외국</th></tr>
<tr><td rowspan="2">-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 연금재정 건전성 기준
·재정재계산, 재정검증 등
- 엄격한 수탁자책임 부여
·주의 및 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 등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보고 및 조사, 시정명령조치, 퇴직연금폐지·중단</td><td>DB</td><td>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td><td>임금보장 제도
·EU 15개국 및
미국 등 7개국
연금지급보증제도</td></tr>
<tr><td>DC
IRA</td><td colspan="2">예금자보호제도</td></tr>
</table>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강화된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로는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연금재정 건전성 기준(재정재계산, 재정검증 등), 엄격한 수탁자책임 부여(주의 및 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사용자인 기업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로서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존재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근로자의 계좌로 급부액이 정기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수급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금융기관 도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한도로 지급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1].

○ 하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 시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보장장치의 역할이 중요함.

〈표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의 특징 비교

구 분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관련법	근퇴법 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퇴법 제12조
보상범위	최근 3년분에 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퇴직금의 60%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 (근퇴법 및 개정안)	확정급여형만 적용 (근퇴법 및 개정안)
특 징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연금지급보증제도 기능 일부 담당	100% 확대 예정

1) 5,000만원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인에 상관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수급권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3.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장치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로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유용성에는 한계가 존재함. 반면, 주요국의 경우 연금지급보증기구를 별도로 운영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가.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일정한 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우선변제제도의 범위가 법정퇴직금제도에 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우선변제제도"를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우선변제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까지 포함시키고 있음.

- 즉, 퇴직금의 우선변제조항을 확정급여형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에 대하여 확대 적용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우선변제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관련이 개정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보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유용성에는 한계가 존재함.

○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 이 경우 퇴직금, 확정급여 퇴직연금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제 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퇴직금, 확정급여 퇴직연금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2008.9.9.

○ 따라서 기업 도산 시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장기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2)]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입된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보험료)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결정하게 됨.

- 2011년 현재 부담금 비율은 0.08%이며, 부담금에 대한 경감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100분의 25가 적용됨.
- 퇴직급여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경감시켰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도 부담에 대한 경감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가입한 사업주 등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 적용됨.[3)]

〈표 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사업주 구분	부담금 경감기준
- 전년도말 기준으로 ①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업주 ②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③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④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4)5)]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25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109호, 2010.11.23.

2) 퇴직금제도의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다소 높이기 위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등의 도입을 수용하였다.

3) 노동부 고시 제 2005-37호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가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적용범위 또한 제한적임.

○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 퇴직금(근퇴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임금은 3개월분).

〈표 5〉 임금채권보장법의 보장 내용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금 3년치라고 하더라도 지급사유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기서 도산이라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산으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은 경우로 제한됨.

---

4)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①인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한 지급한 비율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을 한 경우(②인 경우) : 전년도말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단 평균근속년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frac{3년 - [평균근속년수 - (1 - 퇴직금\ 적립비율)]}{3년}$을 적용

- 그러므로 신청인인 회사가 도산절차를 신청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도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만 가능하며, 300인 이상의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금액에 월별 상한액을 설정해 두고 있음.

-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반대로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퇴직했다고 하여 그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그러므로 연령별로 기간별 상한액과 총 상한액을 두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표 6〉 체당금의 연령별 상한액

퇴사일 기준 만 나이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체당 퇴직금(1년분 한도)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마원
체당금 지급 상한액	900만원	1,440만원	15,60만원	1,260만원

주 : '임금채권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체당금부터 상향 적용됨.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도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현재 임금채권보장 기금은 약 3천억원 수준으로 하나의 대기업 퇴직연금 적립액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수급권 보장장치로 기능하기 어려움.

다. 최소적립금제도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퇴직금을 기초로 한 최소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입각하여 적립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최소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래법에 의한 최소적립금 평가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속성상 사망률, 퇴직율,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통계지표에 대한 가정이 요구됨.

※ 최소적립금=Max(계속기준에 의한 적립금, 비계속기준에 의한 적립금)×60%이상

○ 사외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의 세제혜택을 제공함.

■ 최소적립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부분적으로밖에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최소적립금의 기준이 적정수준의 60%에 불과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나머지 40%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적립수준을 70%로 인상하고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표 7〉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의 의무적립비율 고시안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의무적립비율	70%	80%	90%	100%

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근퇴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 2010.11

■ 최소적립금제도는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나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포괄적이고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최소적립금 수준이 100%까지 상향조정될 경우 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외 적립금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나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 포괄적이고 혜택이 큼.

○ 하지만 최소적립금 수준이 100%까지 상향조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먼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최소적립금이 100%까지 상향조정되기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권이 100%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연말에 준비금을 쌓기 때문에 기업 도산시 1월부터 도산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음.
-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기 시기처럼 자산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여전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심지어 기업이 파산하지는 않았더라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성과가 예상수익률에 미치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추가납입을 요구하기 어려워 수급권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산관리계약을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특별계정)으로 한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일반)계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신탁계약은 자사상품 운용으로 인해 대부분이 고유계정으로 이전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음.

라. 해외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지급보장장치의 문제점

■ 주요국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보증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장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수방식(Take-over)과 구매(Buy-out)방식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의 가입을 임의가입방식형태로 취하고 있는 국가는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과 같은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지급을 의무화함.

- 인수방식은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연금지급보증공사에서 파산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공사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직접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함.

○ 이에 반해 독일, 스웨덴 등처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는 민영보험사에서 연금을 구입하는 구매방식(Buy-Out)으로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

- 연금지급보증기구에서 파산한 연금제도를 대체할 연금보험을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 구입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 파산 시 해당 연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음.
- 구매방식의 연금지급보증기구는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므로 조직의 규모와 운영비용이 인수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표 8〉 선진국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비교

운용주체	정부기관	민간기구
해당국가	미국, 영국 등	독일, 스웨덴 등
운영방식	인수방식(Take-over)	구매방식(Buy-out)
지급보장	국가가 직접보장	민영보험으로 해결 (최종 책임은 국가)

■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증제도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약속한 퇴직급여액을 파산한 기업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다수의 기업들이 사전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일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 미적립이란 동질한 위험을 집단화(Risk Pooling)하여 소수의 파산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보험원리가 적용됨.

■ 이처럼 미국 등 선진국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연금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지급보장)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별로 운영형태 및 규모는 다양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기업의 파산으로부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같은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퇴직급여 지급보장장치를 통해 사후적 수급권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후적 수급권보장치는 내용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장치라기 보다는 기업 파산 시 근로자의 최소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능에 불과함.

4.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개선과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수급권 보장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보험료 부과 및 감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급권 보장장치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제도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가. 단기적인 개선과제

■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가 단기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기에는 적지 않은 선결과제가 존재함.

○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주가 기여한 퇴직연금적립금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켜주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으로서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보전해주는 기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를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보장할 경우 양 제도 또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장금액이 최종 3년의 퇴직금이 절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적립비율에 따라 보장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지불하는 체당금에서 퇴직급여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그 이유는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한 채권자는 현 근로자이나, 퇴직(연금)급여의 채권자는 기존 퇴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임.
- 특히, 임금과 휴업수당은 현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근로서비스의 대가이나 퇴직급여는 노후생활자금으로서 사용되어 그 목적 또한 다르기 때문임.

○ 셋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역할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까지로 한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를 당장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법규가 정비되거나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보장 역할 역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최소적립금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권 보호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최소적립금의 60%수준을 신속히 100%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해야 함.

○ 뿐만 아니라 100%로 상향되기 이전 수준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장기적인 개선과제

■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퇴직급여 지급보장장치(연금지급보증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수급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최소적립금제도가 100% 상향조정되더라도 여전히 수급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만큼 선진국과 같은 수급권보장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는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수(take-over)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적절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보험료는 적용대상기업의 파산리스크와 퇴직급여 미적립금 규모에 비례한 위험보험료에 기초하되,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부과는 회피할 필요가 있음.

- 지급보장장치는 정치적,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의 역할과 권한에는 지급보장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일정수준 건전성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는 퇴직연금 감독기관의 설치 등 장기적인 감독체계 정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주요국과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 파산 시 연금지급보증공사는 파산한 기업 대신 근로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도입 및 폐지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연금지급보증기구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가입이 의무이며[6],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을 전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므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종신토록 퇴직급여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파산 당시 약정한 일시금 수령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어렵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또한 높지 않을 것임.

■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급권 보장장치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를 보장해주는 지급보장장치의 기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충분한 대응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음.

---

6)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이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임의가입임. 다만,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제도는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을 퇴직급여에 반영해주겠다는 방식의 퇴직급여 인상 약속은 사전에 적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의한 연금재정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유인이 있다는 것은 수급권 보장장치의 확대로 인해 가장 염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임.
- 결국 건전한 기업이 지급하는 보험료로 불량기업을 보조해주는 비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업들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퇴직급여 보장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 경우 기업이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시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감독당국 역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장치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건정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수급권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되는 것이 우선이며, 다만 수급권 보장장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제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수급권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수급권 보장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적립금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현실적일 수 있음.

○ 하지만 적립금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적립금 및 파산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완벽히 수행하기가 어려움.

○ 무엇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요국과 같은 사후적인 퇴직급여 보장장치의 마련이 바람직함.

- 다만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제도들을 마련해야 함.

〈참 고 문 헌〉

노동부,『퇴직연금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 방안 법제화 연구』, 2008.12.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험료율 체계 연구』, 2007.1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 2009.3.

류건식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향』, 리스크관리연구, 한국리스크관리 학회, 2006.9.

신기철,『기업연금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제출보고서, 2003.10.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 및 사회보장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4. 6.

신문식, "한국형 퇴직연금제의 수급권보호와 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7.3

이순재·김재현·이봉주·김헌수,『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방안』, 노동부, 2005.3.

Blome, Slome, Kai Fachinger, Dorothee Franzen, Gerhard Scheuenstuhl and Yermo,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zation Exercise", OECD, 2007.5.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 "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 A Review of Internationa1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First Outcomes", present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2008.

Colin Pugh, " Funding Rules and Actuarial Methods", OECD, 2007.5.

Laurens Swinkels, "Alternative Investments and the Solvency Requirements for Definded Benefits Pension Schemes", Society of Actuaries, 2004.

〈별첨〉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증장치의 특징비교[7)]

가. 미국

■ 보험료 산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금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Variable Rate Premium : VRP)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음.

- 고정보험료는 2011년 현재 가입자 1인당 연간 35 달러이며,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제도의 미적립연금채무(Unfunded Vested Benefits : UVB)를 계산하여 1,000달러당 연간 9달러를 적용함.
- 미적립연금부채(연금제도부채가치-연금제도자산가치)는 ERISA에서 규정한 보험수리가정과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하며, 변동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적용이자율은 전통적으로 30년만기 미재무성채권 연수익률의 85%임.
- 미적립연금부채는 등록된 계리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험수리원칙 및 실무에 의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변동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는 계리사에 의해 미적립연금부채가 없다고 확인된 연금제도, 가입자수가 500인 미만인 연금제도, 정상폐지된 제도 등임.

○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1991년부터 변동보험료의 최대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 복수기업주 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2011년 현재 가입자 1인당 5달러이고 변동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7)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과 관련된 사후적 수급권보호장치인 예금자보호제도 등은 논외로 하고 확정급여형과 관련된 사후적 수급권보호장치 중심으로 살펴봄(류건식(2006.9), 이봉주(2007.3), 이순재 외(2005.3)를 참고하여 정리).

■ 법적 권한

○ PBGC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폐지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PBGC가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음.

- 또한 PBGC는 연금제도와 관련된 특정사항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면제하거나, 또한 보고사항을 추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PBGC에 내국세법상 적격요건 상실시, 가입자 급여를 감축하거나 미래 급여의 발생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정시, 최소적립기준을 이행치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보험가입대상

○ 기본적으로 모든 적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담보대상(일부예외존재)이 되며 강제보험의 성격을 지님.

- 퇴직연금제도의 적격여부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에 의해 결정되며 적격제도로 인정한 이후 적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적격지위를 상실하게 된다할지라도 계속 PBGC 보험제도의 담보대상이 됨.

○ 보험가입대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PBGC에 의해 담보되는 개인 피보험자가 됨.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현재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로서 퇴직연금제도하에 일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함.

■ 보험사고

○ PBGC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연금제도의 폐지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상, 해당기업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존속하는 한 부담금을 계속할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연금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PBGC가 판단할 때 재정상태가 부실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부의 발생, 수급권의 이행 등 모든 진행이 정지됨.

○ 단일기업주 제도의 자발적 폐지는 정상폐지(standard termination)와 부실폐지(distress

termination) 두 종류가 존재함.

- 정산폐지란 연금제도가 폐지되기 이전 모든 급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정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부실폐지란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하기 불충분한 재정상태인 경우를 말함.
- 부실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주가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이 경우 PBGC는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자금을 구상받기 위해 노력하게 됨.

■ 보험금

○ PBGC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가 보장되어도 가입자의 모든 발생급부가 연금제도 폐지 이후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PBGC가 보장하는 유형의 급여는 제도폐지 이전 수급권을 갖게 된 기초급여(basic benefits)임.

- 기초급여는 정상퇴직연령에서의 연금급여, 대부분의 조기퇴직급여, 가입자 유족에 대한 연금 급여 ㉺ 연금제도 폐지 이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임.

○ PBGC는 건강급여, 휴가수당, 퇴직위로금, 제도폐지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사망일시금,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PBGC가 매월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고한도는 사회보장 연금 급여과세기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됨.
- 그러나 일단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면 사망시까지 인플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나. 영국

■ 보험료산출

○ 2004년 연금법은 1995년 연금법의 최소적립기준과 퇴직연금 감독청을 각각 개선하여 대체한 제도인 SSF(Scheme Specific Funding)와 TPR(The Penson Regulator)을 도입하고 지급보증제도인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을 신설함.

-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는 적립부족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기업채무를 인수하는 기금으로 미국의 연금지급급부공사(PBGC)를 모델로 하여 2005년부터 도입·운용되고 있음.

〈표 9〉 연금보호기금의 보험료 체계

고정보험료(20%)	리스크기준보험료(80%)	
	미적립리스크	파산리스크
퇴직연금의 보호부채수준에 기초 (전년도말 연금의 PPF에 대한 채무액에 기초)	전년도말 연금의 적립부족액 (PPF와 연금자산의 차)	전년도말에 있어서 기금의 파산위험 (향후 1년간)

○ FY2006년부터 PPF의 보험료체계는 FY2005년의 초기보험료를 대체한 연금보호보험료와 관리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금보호보험료(Pension Protection Levy)는 연금기준보험료(scheme based levy,최대20% : 퇴직연금의 보호부채수준에 기초), 리스크기준보험료(risk based levy, 최대80% : 퇴직연금의 미적립리스크와 기업주의 파산리스크에 기초)로 구분됨.

○ 연금기준보험료는 PPF 부채에 일정한 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승수는 PPF가 추정한 총 연금기준보험료를 모든 적격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보호부채로 나누어서 구하므로 매년 수정됨.

- 이에 반해 리스크기준보험료는 보호부채의 0.5%를 한도로 하는데, 이는 부실한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리스크기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퇴직연금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측정해야 하며, 현재 PPF에서 고려하고 있는 리스크는 미적립리스크(underfunding risk)와 파산리스크(insolvency risk)임.

■ 법적 권한

○ PPF는 법에 따라 리스크기준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모든 적격연금에 대하여 자산과 보호부채에 대한 계리평가를 마치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음.

- PPF는 노동부가 관할하는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므로 노동부 산하의 법정 정부기관이며, 수급권보호는 파산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과 가입연금에 대한 보험료로 연금을 직접 지급하므로 인수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PPF의 운용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기구를 움직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PPF의 권한 및 의무 등 제반활동에 대해 이사회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PPF는 2005년 9월부터 퇴직연금이 부정행위에 의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 주는 사기보상기금(Fraud Compensation Fund)의 운용까지 책임을 지고 있음.

■ 보장수준

○ PPF의 수급권보호는 100%와 90% 등 두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자격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직전의 연금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됨.

- 100% 보장수준 적용: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을 초과한 경우,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였으나 평가일 직전에 질병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 등임.
- 90% 보장수준 적용: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한 경우, 정상적인 연금개시 연령에 미달하면서 조기 은퇴를 한 경우 등임.

○ 연금가입자의 보장수준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PPF의 평가팀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PPF가 최종적인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자산운용

○ PPF의 이사회는 법에 의하여 PPF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투자목적은 적격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수급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임.

○ 이사회는 적절한 투자전략과 선관원칙에 의한 자산관리를 통해 PPF 기금을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자산운용상 효과적인 책임완수를 위하여 전문성과 정보 및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음.

- 이사회는 2000년 금융시장 및 서비스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내용은 투자의 적합성, 분산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 투자전략의 수행은 이사회 산하 투자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있더. 투자 위원회는 PPF 자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며 분산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다. 일본

○ 일본의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은 1989년 후생연금연합회(현재 : 기업연금연합회)에 의하여 후생연금기금을 위해 설립됨.

- 후생연금기금이 고용주의 도산 및 경영악화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일정한 연금액이 보장되도록 각 기금의 갹출금을 자금으로 한 모든 기금참가자의 공제사업으로 실시됨.

○ 민간협회에 의해 지급보증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는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지급보증사업은 연금급부확보사업, 적립기준의 검증사업 및 방문상담조언사업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0〉 후생연금기금의 연금지급보증체계

구 분	세부내용
지급보증기관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 (후생연금기금협회사업: 1989)
가입대상	후생연금기금의 후생연금(국민연금)대행부분(약 1,169만 명)
지급보장금액	대행부분의 급부현가의 30%+이를 상회하는 부분의 50%
보험료	① 인수비례부분: 가입원수에 비례 ② 수익비례부분: 지급보증 한도액의 0.119% ③ 적립부족비례부분: 미적립채무의 0.352% (상한: ①+② 1,260만 엔, ③ 246.4만 엔)

자료 : 신문식·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제의 수급권보호와 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등에 의해 작성

○ 기업도산 등에 의해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 기금의 가산부분급부에 대하여 가입자, 대기자, 수급자 각각의 가산부분 해산시 책임준비금중 "대행부분 급부현가의 30%상당까지"와 "이것을 상회하는 부분의 50%상당"을 합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연금급부액을 지급함

-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의 후생연금부분을 기업이 대행하는 후생연금기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 2002년 확정급부 기업연금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라. 주요국의 지급보장장치 비교

〈표 11〉 주요국의 지급보장장치

구 분	내 용
미 국	• PBGC는 노동부 산하 연방정부기구(Federal Agency) • 미국에서 구매방식이 아닌 인수방식의 PBGC를 설립한 것은 당시 PBGC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당코자 하는 민영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임. • PBGC의 주요 수입원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기업주가 납부하는 수입 보험료, 투자수익, PBGC가 차입한 제도 자산, 미적립 연금제도 기업으로부터의 회수금 등임.
영 국	• Pension Act 2004에 근거해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 PPF)을 설립하여 도입하여 제도가 파산한 경우 PPF가 당해 연금제도를 인수한 후 이전된 자산과 가입연금에 대한 보험료로써 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Take-Over형제도(90%까지 지급 보장하나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차등적 액수를 지급, 현재 분담금은 위험비례 80%, 가입자 규모비례 20% 방식으로 산정)
홍 콩	• MPF나 자발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정부의 보증은 없음. 구성원들은 기금 관리자 및 수탁자의 부정 및 사기로 인한 적립된 급부의 손실에 대해 보호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초기에 6억 홍콩달러를 보조하였으며, 자산가치의 0.03%의 분담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음.
스웨덴	• ITP는 FPG[8]/PRI[9] 가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연금지급을 책임지거나, Alecta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금지급을 전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운영됨. • FPG는 ITP 도입을 계기로 스웨덴의 기업연합회의 제청에 의하여 1961년 설립된 것으로, 기업의 연금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신용보험회사임. • 기업의 연금지급 불능 시 대신 연금을 지급하는 신용보험을 공급하여 근로자의 연금액 전액을 보장함. 연금자산을 기업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시키는 기능을 함. 기업이 연금자산의 재차입을 통해 장기적이고 저렴하게 이용가능함.

구 분	내 용
독 일	• 1974년에 제정된 퇴직연금법[10]에 입각하여 1975년에 사적 퇴직연금의 지급보증을 담당하는 연금보장협회(PSVaG[11])가 설립됨. 당시 독일 경영자연합회, 독일 산업조합, 생명보험협회[12]가 주축이 되어서 협회를 창설함. • 독일의 지급보장기구(PSVaG)는 상호회사 형태의 민간기관으로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받은 후, 기업 파산시 미적립된 연금부채를 보험금으로 보전한 후,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을 대체 구입해줌. 또한, 기업들은 장부가방식으로 인해 절약하는 자본조달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보장장치의 보험료를 부담함.
일 본	• 1988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할 때 후생연금기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에의 후생연금기금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지불보장제도가 도입[13]됨. • 후생연금기금의 지급보장사업은 민간단체인 기업연금연합회[14](pension fund association)에서 주관하고 있음.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모든 후생연금기금은 이 제도에 가입해야 함.

8) Försäkringsbolaget Pensiongaranti: Pension Garantee

9) PRI Pensionstjänst AB

10) 1974년 12월에 퇴직연금법이 기업의 노후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정해졌다. 규정 중에는 고용주의 지급불능 시 지급보장에 관한 내용, PSV설립에 관한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11)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PSVaG)

12) 현재의 독일 보험협회

13) 후생연금기금의 지불보장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은 1988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지불보장사업이 실시된 것은 1989년부터임

14) 과거에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였음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0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미국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선진국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이의 영향으로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세도 다소 감속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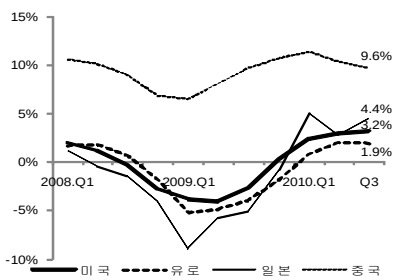
■ 3/4분기 세계경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권 재정긴축, 경기부양효과 소진 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경기회복 격차 등 글로벌 불균형은 여전히 유지됨.

○ 선진국경제는 미국의 완만한 회복세, 일본의 회복세 횡보, 유로지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세를 시현함.

○ 신흥개도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출둔화, 경기과열을 의식한 긴축정책으로 경기회복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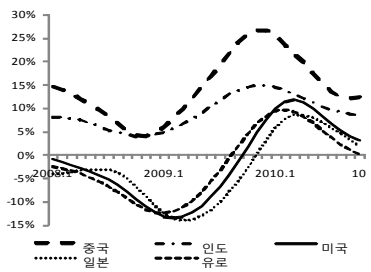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는 신흥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둔화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를 시사하였으나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는 여전히 상존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자료 : OECD

■ 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가격은 수요증가, 곡물 등 일부 원자재의 공급부족 우려, 투자자금 유입,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WTI 국제유가는 3/4분기 중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나타난중국의 소비 증가, 미국의 원유재고 급감, 2011년 세계수요의 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12월 말 현재 93.4달러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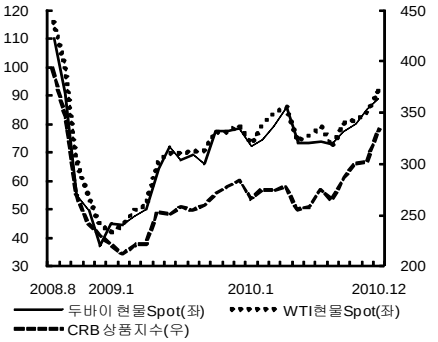
○ 농산물 가격이 작황 부진(소맥), 기상악화(옥수수), 수확감소 전망(대두)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시현하고 비철금속 가격이 산업생산 지표 개선(동), 자동차 판매 증가 및 재고감소(알루미늄)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CRB선물지수[1]는 9월말 286.9에서 12월말 현재 332.8까지 치솟음.

■ 세계무역액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개도국의 증가세 둔화가 가속되는 모습임.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2/4분기의 24.5% 증가를 기점으로 3/4분기에는 17.1%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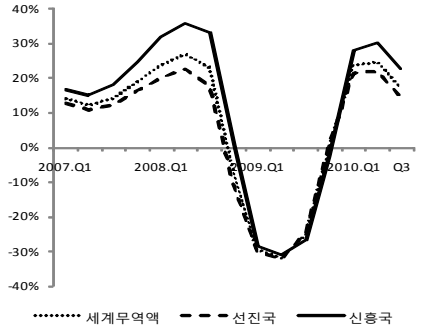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3/4분기 중 각각 14.3%, 22.5% 증가함에 따라 둔화세가 가속되었으나 증가세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됨.

〈그림 3〉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4〉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가. 미국경제

2010년 3/4분기 미국경제는 경기부양적 정책기조의 유지, 소득여건의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고실업률의 지속, 주택경기의 부진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하면서 완만한 성장에 그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재고투자 증가, 순수출의 감소폭 축소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2.6%(연율)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었으나 주택경기의 부진 지속으로 향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임.

○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여건 개선과 염가판매로 인해 전분기대비 2.4% 증가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나 높은 실업률,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부의 감소, 신용경색 등에 제약을 받음.

○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기업의 수익성 향상, 투자비용 부담 완화에 힘입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주택투자는 차압주택물량 부담, 주택매입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27.3% 하락하면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섬.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6.8% 증가로 둔화되고, 수입은 16.8% 증가로 크게 둔화됨에 따라 순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3.9% 증가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 확대가 자제됨.

■ 미 연준[2]은 가계소득 회복지연, 신용대출 경색, 가계의 부채조정 지속 등으로 개인소비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기존의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 2010년 경제성장률은 6월 전망치 상·하한이 각각 0.6%p, 1.0%p 하향 조정되어 2.5~2.5%로 전망되었으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의 상·하한이 0.5%p, 0.6%p 하향 조정되어 3.0~3.6%로 전망됨.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10.11.24.

〈표 1〉 미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분기대비 연율, %)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2.6	-4.9	-0.7	1.6	5.0	3.7	1.7	2.6
민간소비	-1.2	-0.5	-1.6	2.0	0.9	1.9	2.2	2.4
설비투자	-17.1	-35.2	-7.5	-1.7	-1.4	7.8	17.2	10.0
주택투자	-22.9	-36.2	-19.7	10.6	-0.8	-12.3	25.7	-27.3
수출	-9.5	-27.8	-1.07	12.2	24.4	11.4	9.1	6.8
수입	-13.8	-35.3	-10.6	21.9	4.9	11.2	33.5	16.8
정부지출	1.6	-3.0	6.1	1.6	-1.4	-1.6	3.9	3.9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0.12.22.

〈고용과 물가〉

■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9%대 후반의 높은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임.

○ 3/4분기 중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9.6%를 시현하였으나 구직자포기,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한 포괄적인 실업률(U-6)은 16.8% 증가함으로써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

○ 3/4분기 중 비농업취업자는 연방정부의 인구센서스 조사요원 고용 정리가 이루어고 제조업 취업자수가 소폭 둔화됨으로써 9만1천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0월에는 민간서비스부문의 취업자수 증가와 정부부문의 고용 증가로 인해 비농업취업자는 17만 2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4분기에 비해 1만3천 여건이 감소함으로써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됨.

○ FOMC는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이주 여건 악화, 노동의 수급 불일치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용여건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2010년, 2011년의 실업률을 9.5~9.7%와 8.9~9.1%로 상향 조정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10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업률	9.3	9.7	9.7	9.7	9.9	9.7	9.5	9.5	9.6	9.6	9.6
(u-6)[11]	16.3	16.5	16.8	16.9	17.1	16.6	16.5	16.5	16.7	17.1	17.0
비농업취업자증감[1]	-4,740	14	39	208	313	432	-175	-66	-1	-24	172
소비자물가[2]	-0.4	2.6	2.1	2.3	2.2	2.0	1.1	1.2	1.1	1.1	1.2
(근원 소비자물가)	1.7	1.6	1.3	1.1	0.9	0.9	0.9	0.9	0.9	0.8	0.6
생산자물가[2]	-2.6	4.5	4.2	5.9	5.4	5.1	2.7	4.2	3.1	4.0	4.3
소매판매[3]	-6.2	2.4	4.8	10.8	9.3	6.4	5.4	5.3	3.9	7.6	6.0
재고/도매판매비율[4]	1.29	1.16	1.16	1.14	1.13	1.14	1.15	1.16	1.17	1.18	1.18
주택착공호수[5]	-35.5	25.4	4.1	21.9	42.3	6.9	-7.5	-6.3	5.0	0.3	-1.9
주택가격지수[6]	-4.6	-3.2	-3.6	-2.6	-1.4	-1.3	-2.5	-3.3	-2.8	-3.8	-3.4
소비자신뢰지수[7]	45.2	56.5	46.4	52.3	57.7	62.7	54.3	51.0	53.2	48.5	49.9
경기선행지수[8]	101.9	107.6	108.0	109.5	109.5	110.0	109.8	110.0	110.1	110.8	111.2
산업생산지수[9]	-9.2	1.5	2.3	4.4	5.8	8.0	8.3	7.7	6.7	6.0	5.5
산업생산가동률	-10.0	1.4	2.3	4.6	6.2	8.5	8.9	8.3	7.2	6.5	5.9
재고/출하비율[10]	1.40	1.24	1.26	1.24	1.24	1.26	1.26	1.26	1.27	1.27	1.28
ISM제조업PMI	46.2	58.4	56.5	59.6	60.4	59.7	56.2	55.5	56.3	54.4	56.9

주 : 1) 증가분 천명, 전월대비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5)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6) Federal Housing Fiance Agency 1991.1=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7=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등을 포함한 실업률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로 인한 공급여력 부진, 에너지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1%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짐.

○ 3/4분기 중 근원소비자물가는 큰 폭의 마이너스 생산갭으로 인해 195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둔화세를 시현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7%p 둔화됨.

○ 3/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전분기대비 0.7%p 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4.3% 상승함.

○ FOMC는 제2차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2010년 근원소비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상·하한이 각각 0.1~0.2%p, 0.2~0.3%p 상향 조정된 1.0~1.1%와 1.2~1.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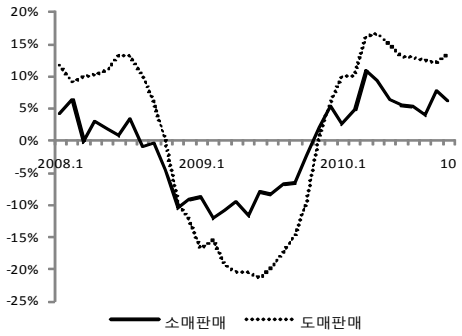
■ 소매판매 증가세의 둔화, 주택시장의 침체국면 전환, 소비자의 경기 기대심리 하락 등 내수분문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감.

○ 소매판매 증가율은 2/4분기의 7.0%에서 3/4분기의 5.6%로 소폭 둔화됨.

- 다만 3/4분기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판매가 10월 중에 11.0%까지 증가함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은 10월 중 6%로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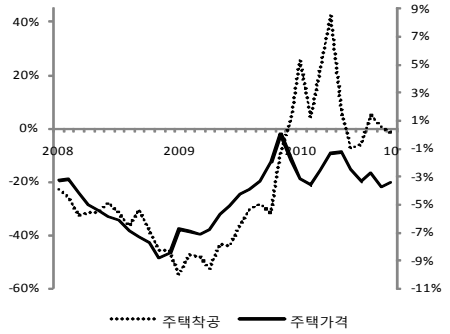
○ 주택시장은 경기둔화와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기존주택거래 · 주택가격 · 주택착공 증가율이 3/4분기 중 각각 25.3%, 3.3%, 0.3%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전환됨.

〈그림 5〉 도소매 판매 추이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6〉 주택시장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회복세 둔화, 고용사정의 부진 지속으로 경기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3/4분기 중 둔화폭이 커짐.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의 58.2에서 3/4분기의 50.9로 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경기위축을 의미하는 50이하 수준으로 낮아짐.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이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부문의 둔화세가 시현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둔화세가 가속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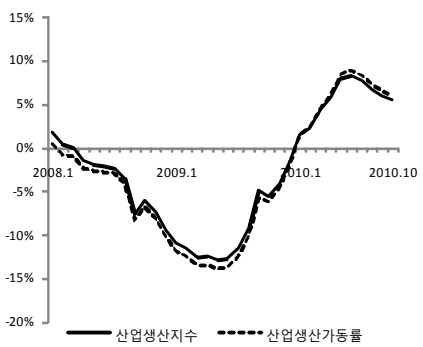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과 가동율은 2/4분기 중 각각 7.4%, 7.9%에서 3/4분기 중 6.8%, 7.3%로 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설비부문 등에서 부진이 커지면서 각각 5.5%, 5.9%로 둔화폭이 커짐.

○ 재고/출하 비율은 2/4분기 중 1.25%에서 3/4분기 중 1.27%로 상승하고 10월에는 1.28%로 상승세가 가속됨으로써 향후 제조업생산의 둔화세가 시사됨.

■ ISM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가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생산부문에 대한 체감경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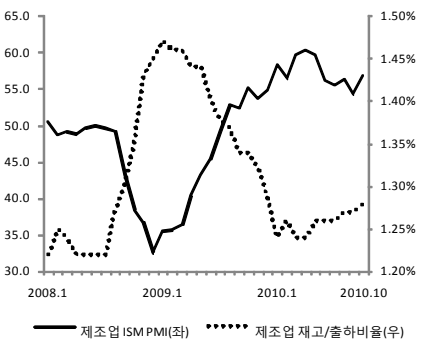
○ ISM의 제조업 PMI는 2/4분기 중 60.4를 기록한 이후 3/4분기에는 주문, 고용, 출하, 재고, 수출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55.4로 낮아짐.

〈그림 7〉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그림 8〉 제조업 ISM PMI와 재고출하율



자료 :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0년 3/4분기 중 유로경제는 생산 · 소비 · 투자 부문의 경기체감지수들이 회복세를 시현한 반면 실물 지표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둔화세를 시현함. 주변부 국가의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 지역 간 양극화 심화는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재정긴축과 수출입의 기여도가 서로 상쇄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9% 성장하는 회복세 둔화를 시현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조정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 조짐을 보인 서유럽 국가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고정투자는 0.3%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장기평균 수준(81%)을 하회하는 가동률과 주택경기의 부진은 각각 설비투자의 추가 확대를 제약하고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유로화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1.3%의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수입 역시 11.9% 증가함으로써 수출입의 성장 기여도는 상쇄됨.

■ 재정긴축 · 신용강등으로 주변부 국가의 자발적 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유럽 및 주변부 국가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주변부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정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회복의 악재로 대두됨.

○ 3/4분기 중 독일은 소비 · 투자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나 영국(2.8%), 프랑스(1.8%)는 회복세를 유지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

○ 스페인(0.1%), 아일랜드(-0.5%), 그리스(-4.7%) 등 주변부 국가들은 유로지역 및 세계 경기의 둔화로 대내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3/4분기 경제성장이 빠르게 둔화 또는 하락함.

○ 주변부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서유럽 국가의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유로위원회[3]는 회원국의 재정긴축 본격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경기체감지수 상승세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로경제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EA16 GDP	-4.0	-5.2	-4.9	-4.0	-2.0	0.8	2.0	1.9
민간소비	1.1	-1.6	-1.1	-1.2	-0.4	0.4	0.6	1.0
고정자본	-7.3	-11.8	-12.1	-11.8	-9.6	-4.9	-0.9	0.3
정부지출	2.5	2.9	2.6	2.6	1.6	1.1	0.6	0.5
수출	-12.8	-16.1	-16.8	-13.4	-5.2	5.8	11.8	11.3
수입	-11.5	-13.0	-14.6	-12.1	-7.1	4.9	12.3	11.9
독일 GDP	-4.7	-6.3	-6.8	-4.4	-2.0	2.1	3.9	3.9
민간소비	-0.2	-0.2	0.3	-0.6	-0.3	-0.3	-0.5	1.2
고정자본	-10.1	-11.6	-12.3	-8.6	-8.0	0.3	7.8	7.0
수출	-14.3	-16.7	-19.9	-15.3	-4.7	8.1	18.7	16.5
수입	-9.4	-8.0	-13.0	-9.9	-6.7	4.3	18.1	15.2
영국 GDP	-4.9	-5.5	-5.9	-5.3	-3.0	-0.3	1.7	2.8
민간소비	-3.3	-4.1	-4.3	-3.8	-1.2	0.0	1.4	1.8
고정자본	-15.0	-12.5	-20.4	-14.4	-13.7	-3.4	3.7	2.8
수출	-10.6	-11.5	-13.3	-12.4	-5.0	2.3	6.2	7.6
수입	-12.3	-14.7	-15.9	-13.7	-4.8	5.1	10.4	9.9
프랑스 GDP	-2.5	-3.9	-3.1	-2.7	-0.5	1.1	1.6	1.8
민간소비	0.6	0.2	0.1	0.5	1.6	1.4	1.5	2.1
고정자본	-7.1	-7.2	-7.8	-7.1	-6.2	-4.6	-1.8	-0.5
수출	-12.1	-15.9	-14.0	-12.5	-5.9	6.3	9.7	11.1
수입	-10.6	-10.7	-12.6	-12.5	-6.4	1.1	8.4	13.4

주 : Euro Area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
자료 : 유럽중앙은행, 유로통계청,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11.

○ 2010년 유로지역은 민간소비가 0.6%p 상향조정되고 투자는 감소폭이 1.8%p 축소됨에 따라 0.8%p 상향 조정된 1.7%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고정투자, 민간소비, 내수의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2.5%p, 0.3%p, 0.6%p 상향 조정된 3.7%, 1.8%, 1.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10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EA16											
ESI[1]	80.8	96.0	95.9	97.9	100.6	98.4	98.9	101.1	102.3	103.3	103.8
실업률[2]	9.4	9.9	9.9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1
소비자물가[3]	0.3	1.0	0.9	1.4	1.5	1.6	1.4	1.7	1.6	1.8	1.9
소매판매지수[4]	100.9	101.1	101.1	101.9	101.0	101.5	101.9	102.1	102.1	101.9	102.4
소비자신뢰지수[5]	-24.9	-15.8	-17.4	-17.3	-15.0	-17.8	-17.3	-14.0	-11.4	-11.0	-10.9
제조업기대지수[5]	-14.9	5.2	7.0	9.0	9.0	9.8	9.3	9.4	10.0	11.7	14.0
산업생산[6]	-16.6	1.9	4.2	7.7	9.1	9.8	8.2	7.3	8.4	5.4	6.9
산업신뢰지수[5]	-28.4	-13.8	-12.8	-9.9	-7.3	-6.4	-5.6	-4.0	-2.9	-1.7	0.0
독일											
ESI[1]	83.2	96.1	97.0	100.4	104.7	105.8	106.1	110.1	111.2	113.2	113.5
실업률[2]	8.1	7.3	7.3	7.2	7.0	7.0	6.9	6.8	6.8	6.7	6.7
소비자물가[3]	0.3	0.8	0.5	1.2	1.0	1.2	0.8	1.2	1.0	1.3	1.3
소매판매지수[4]	97.6	97.1	97.6	97.2	97.1	98.4	98.5	99.2	98.8	97.0	99.2
산업생산[6]	-19.0	4.3	7.1	9.8	14.4	13.3	11.2	11.4	11.5	8.1	12.1
영국											
ESI[1]	77.7	98.2	98.3	100.9	101.7	102.4	99.4	100.8	102.3	100.2	100.5
실업률[2]	7.5	7.9	7.9	7.8	7.8	7.8	7.8	7.7	7.7	7.8	-
소비자물가[3]	2.2	3.5	3.0	3.4	3.7	3.4	3.2	3.1	3.1	3.1	3.2
소매판매지수[4]	111.1	107.7	110.6	111.2	111.1	111.9	112.9	113.9	113.2	112.8	113.3
산업생산[6]	-11.2	-2.1	-0.1	4.3	1.2	3.3	2.7	2.6	3.8	4.8	3.8
프랑스											
ESI[1]	84.2	100.3	98.2	100.5	102.7	98.9	97.8	99.7	102.6	102.9	105.1
실업률[2]	9.5	9.9	9.9	9.8	9.8	9.8	9.8	9.8	9.9	9.9	9.8
소비자물가[3]	0.1	1.2	1.4	1.7	1.9	1.9	1.7	1.9	1.6	1.8	1.8
소매판매지수[4]	107.2	109.2	110.1	110.8	111.3	112.1	110.9	113.5	113.2	113.7	113.6
산업생산[6]	-14.5	3.4	5.1	7.8	8.6	8.9	5.0	6.3	4.0	4.2	5.5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 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과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10.9.28.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10.10.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서유럽 국가의 실업률 하락이 기타 주변부 국가의 실업률 증가로 상쇄되면서 전분기와 같은 높은 수준이 유지됨.

○ 3/4분기 유로지역의 평균 실업자 수는 실물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인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업률도 전분기의 10.0% 수준을 시현

○ 3/4분기 고용율도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었는데 산업별로는 금융서비스(0.3%), 무역 · 교통(0.1%) 부문에서 다소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농업(-0.2%), 제조업(-0.3%) 부문에서는 감소함.

○ 실업률이 개선된 국가는 독일(6.8%), 영국(7.7%), 이탈리아(8.2%) 등 서유럽 국가들이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20.5%), 아일랜드(13.9%), 포르투갈(11.1%) 등은 악화세가 커짐.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임.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근원소비자물가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하면서 1.7%로 상승함.

- 10월에는 국제원유 가격이 14.0%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함.

○ 지역별로는 독일(1.2%), 프랑스(1.8%), 이탈리아(1.7%)의 소비자물가가 유로지역 평균 수준을 시현한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1.9%), 포르투갈(2.0%), 그리스(5.6%) 등 주변부 국가들의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커짐.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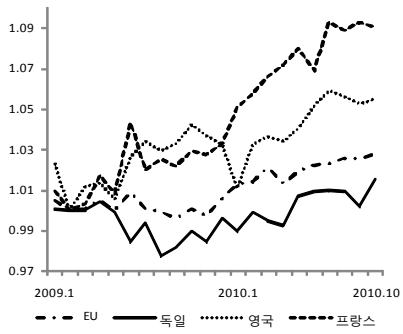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실업률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한 반면 소비체감경기지수들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3/4분기 중 1.5% 증가하고 10월에 1.8%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인데 유로지역의 소매판매 기대지수는 2/4분기 중 -4.3에서 3/4분기 중 -2.8로 개선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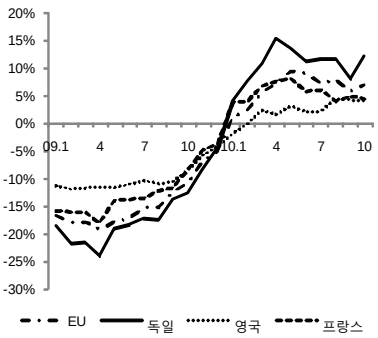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중 -12.1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대비 4.6p 개선되었으며 10월에는 -10.9까지 개선됨으로써 체감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임.

○ 지역별로는 독일이 3/4분기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프랑스는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스페인(-4.7%), 포르투갈(-0.7%), 아일랜드(-1.1%) 등 주변부 국가들의 소매판매는 하락폭이 확대됨.

〈그림 9〉 소매판매지수 추이



〈그림 10〉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주 : 2005=100, 계절조정을 2009.1=1로 환산, 주 :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생산부문〉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기대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둔화세를 보임.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둔화로 인해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2.1%p 하락한 6.9%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10월에도 6.9% 증가함으로써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줌.

○ 독일 · 영국의 산업생산은 최근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3/4분기 중 둔화조짐이 나타났고 스페인 · 포르투갈 등 주변부 국가들은 빠른 둔화세 또는 하락세를 시현함.

■ 그러나 산업생산의 선행지표격인 제조업기대지수는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산업생산의 실물 지표와 체감지수 간에 혼조세를 보임.

○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3/4분기 중 10.4를 기록함에 따라 전분기의 개선세가 가속되었으며 10월에도 14.0을 시현하면서 산업생산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다. 일본경제

2010년 3/4분기 일본경제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 기여도가 축소됨으로써 경기회복은 횡보세를 시현. 그러나 내수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정책효과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으로써 4.4% 증가했으나 기저효과를 고려한다면 회복세는 답보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에코카 보조금 종료 및 담배 가격 인상을 앞 둔 선취수요와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는 회복세를 시현

○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세가 유지되고 설비투자 조정 완료로 추가투자가 발생하면서 5.5% 증가하는 가속세가 시현되었으며 주택투자도 하락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부문에 회복조짐이 나타남.

○ 수출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9%로 소폭 둔화됨에 따라 순수출로 인한 경기회복 기여도는 전분기에 비해 축소됨.

○ 정부소비는 1.4% 증가함으로써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억제되는 모습이며, 공공투자는 집권당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감소세를 유지함.

■ 일본은행은 세계경기의 둔화, 정책효과 소진,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의 정체가 2011년 1/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1.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 일본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소비가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2011년 2/4분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시현하고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 속에 공공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세 둔화로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4)]

○ IMF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2.6% 성장하며 2011년에는 1.5%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5〉 일본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5.2	-8.9	-5.7	-5.1	-0.9	5.0	2.7	4.4
민간소비	-1.0	-3.7	-1.1	-0.4	1.2	3.3	1.9	2.6
설비투자	-19.2	-19.5	-22.1	-20.9	-13.5	-4.5	2.5	5.5
주택투자	-14.2	0.1	-9.9	-20.3	-24.5	-18.0	-10.5	-1.0
정부소비	1.5	0.6	1.7	2.0	1.7	1.5	1.6	1.4
공공투자	7.4	-1.8	13.9	11.6	9.2	4.6	-5.5	-4.1
수출	-23.9	-36.5	-29.3	-22.7	-4.7	34.5	30.3	21.5
수입	-16.7	-17.4	-18.3	-16.3	-16.0	4.0	14.6	11.9

자료 : 일본 내각부, 2010.9.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10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1]	-1.4	-1.3	-1.1	-1.1	-1.2	-0.9	-0.7	-0.9	-0.9	-0.6	0.2
(근원소비자물가)	-0.7	-1.2	-1.1	-1.1	-1.6	-1.6	-1.5	-1.5	-1.5	-1.5	-0.8
실업률[2]	5.1	4.9	4.9	5.0	5.1	5.2	5.3	5.2	5.1	5.0	5.1
소매판매액[1]	-2.3	2.3	4.2	4.7	4.9	2.9	3.3	3.8	4.3	1.4	-0.2
소비자신뢰지수[3]	35.4	39.0	39.8	40.9	42.0	42.8	43.5	43.3	42.4	41.2	40.9
주택착공호수[4]	788	65	57	65	67	60	69	69	72	72	71
민간기계수주액[8]	-23.7	-3.4	-0.7	2.3	8.4	-16.4	2.6	14.4	32.2	4.4	5.3
수출[1]	-33.1	40.8	45.3	43.5	40.4	32.1	27.7	23.5	15.5	14.3	7.8
수입[1]	-34.9	8.9	29.5	20.6	24.3	33.6	26.2	15.8	17.9	10.0	8.8
광공업생산[5]	-21.0	20.7	31.2	29.9	25.8	20.4	17.3	15.8	13.5	9.7	5.8
- 가동율[6]	74.1	90.1	90.1	90.6	90.6	91.3	89.4	89.1	88.3	87.3	85.3
- 재고/출하율[7]	131.3	108.0	108.3	102.3	103.5	108.5	106.7	108.2	107.4	108.8	107.9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천호,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6) 2005=100, 7) 계절조정, 8)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4)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7개 대내 연구기관과 JP Morgan 등 3개 대외 금융기관의 전망치의 평균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실업자수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실업자와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2.0% 감소, 0.5%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3/4분기 중 5.1%를 기록하였고 10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고용증가의 선행지표인 시간외 작업시간이 3/4분기부터 10월까지 전분기대비 둔화세를 유지하고 고정임금도 둔화됨에 따라 고용여건의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을 시사함.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의 증가로 인해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식료품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반전됨.

○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여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8% 하락을 시현함.

○ 10월에는 무더위로 인한 신선식료품 가격의 17.7% 상승, 담배가격의 38.6% 상승 및 상해보험료의 11.8% 상승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는 1년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주요 연구기관[5]들은 일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소폭 둔화세를 시현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판매 급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소비자신뢰지수의 둔화세도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임.

○ 3/4분기 중 소매판매액은 백화점과 수퍼마켓의 판매액 감소가 축소된 반면 자동차판매의 대폭 둔화로 완만한 둔화세를 보였으나 10월에는 자동차판매 하락세 반전으로 소매판매액도 하락세로 반전됨.

○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중 42.3을 기록하고 10월에는 40.0로 낮아지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는 모습임.

5)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7개 연구기관

■ 민간기계수주액은 증가세가 가속되고 주택착공호수도 증가세가 커지면서 투자부문의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다시 둔화세로 반전됨.

○ 민간기계수주액은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16.2%p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10월에는 5.3% 증가하면서 투자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낮아짐.

○ 주택부문은 3/4분기 중 월평균 7만2천호가 착공되어 전분기대비 7천호가 증가하였으나 10월에는 7만1천호가 착공되면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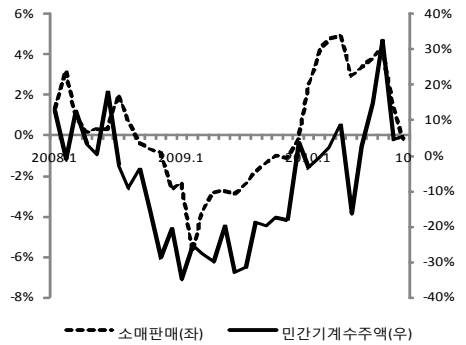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자동차생산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이 저하되면서 2분기 연속 둔화세를 시현하였고 최근에는 둔화세가 가속되는 모습임.

○ 3/4분기 광공업생산은 13.0% 증가함으로써 전분기보다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5.8% 증가함으로써 급격한 둔화세를 보였고 광공업가동률 역시 2/4분기 90.4%에서 3/4분기 88.2%로 빠른 둔화세를 시현함.

○ 이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자동차 생산 저하와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 전반이 둔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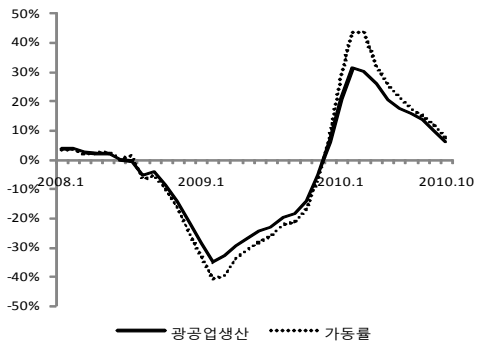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재고/출하율도 2/4분기의 106.2%에서 3/4분기의 108.1%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부문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됨.

〈그림 11〉 소매판매 및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총무성

〈그림 12〉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0년 3/4분기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 소진, 통화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순수출의 증가로 9% 후반대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실질 GDP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정부주도 투자 및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순수출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 농촌지역의 민간소비는 이주소득과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 도시지역의 민간소비는 주택판매 둔화로 인한 부의 감소와 높은 식료품가격으로 인해 빠르게 둔화됨으로써 전체 민간소비는 둔화세를 시현

○ 민간투자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주택투자는 완만한 둔화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경기부양 목적의 정부 주도형 투자가 빠른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부문은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둔화됨.

○ 수입은 투자 및 중공업 생산의 둔화로 둔화세가 커진 반면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4분기의 0.6%에서 3/4분기의 4.9%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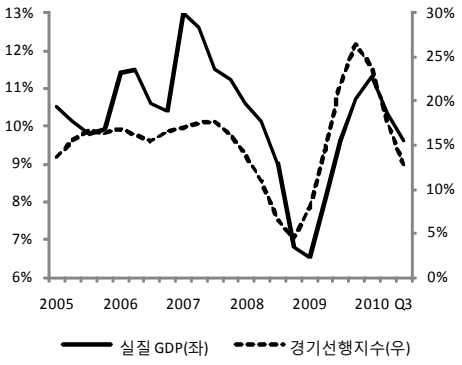
■ World Bank[6]는 세계경기의 둔화와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인해 내수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년에는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소비와 민간투자가 지탱되고 공공투자 역시 재개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세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10년 중국경제는 소비와 고정투자가 각각 7.6%, 8.7% 증가하여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7.8%에 달하며 순수출은 2.2%의 성장기여도를 보여 10.0%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6)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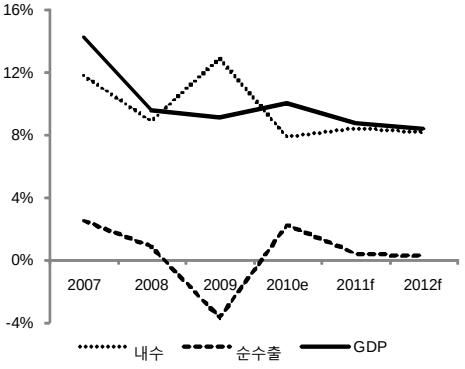
○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2%로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8.4%로 확대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0.4%로 위축되면서 8.7%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실질 GDP와 경기선행지수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OECD

〈그림 14〉 실질 GDP 기여율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표 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 GDP	9.1	6.5	8.1	9.6	10.7	11.3	10.3	9.6	-	-	-
고정자산투자[1)]	30.5	28.6	33.6	33.3	30.5	26.4	25.5	24.5	24.8	24.5	24.4
소매판매	15.5	14.9	15.0	15.4	16.5	18.4	18.5	18.4	18.4	18.8	18.6
수출	-15.9	-19.7	-23.5	-20.5	0.9	28.7	40.8	32.4	34.4	25.1	22.9
수입	-11.3	-30.8	-20.5	-11.8	25.4	64.7	44.0	27.3	35.2	24.1	25.3
산업생산	11.0	5.1	9.0	12.3	17.9	19.6	16.0	13.5	13.9	13.3	13.1
구매자관리지수	53.0	48.9	53.3	53.9	55.7	54.3	53.9	52.2	51.7	53.8	54.7
소비자물가	-0.7	-0.6	-1.5	-1.3	0.7	2.2	2.9	3.5	3.5	3.6	4.4
생산자물가	-5.4	-4.6	-7.2	-7.7	-2.1	5.2	6.8	4.5	4.3	4.3	5.0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필품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생산자물가는 재해 및 물류 여건 악화가 해소되고 원자재가격의 둔화로 안정화되는 모습임.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주거비가 전분기대비 0.3%p 둔화되었으나, 소비자물가 바스켓의 약 2/3를 차지하는 식료품가격이 1.4%p 상승한 3.5%를 기록함.

- 10월에는 식료품비가 10.1% 상승하여 상승세가 가속되고 주거비도 4.9%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는 4.4%로 상승세가 확대됨.

○ 생산자물가는 3/4분기 원자재가격이 전분기대비 5.8%p 하락하고 물류 여건이 해소됨에 따라 4.5% 수준으로 빠르게 둔화됨.

■ World Bank[7]는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공급측면의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내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주택가격 상승은 장기간 억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소비자물가는 목표치인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근원소비자물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제조업 부문의 임금 상승 흡수력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겠으며, 소비자물가도 식료품가격의 안정으로 3%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1년에는 도시화 가속, 소득 성장,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가격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3.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유지되는 모습임.

○ 3/4분기 소매판매는 18.4% 증가함으로써 2/4분기 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10월에는 18.6%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가속됨.

7)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11.

■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의식한 정부의 투자 억제로 정부주도형 투자는 둔화된 반면 민간투자는 견조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3/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는 24.5% 증가함으로써 2/4분기의 25.5%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24.4% 증가함으로써 둔화세가 미세하게 유지됨.

■ 주택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 노력으로 주택거래와 주택가격 수준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둔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택경기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둔화세가 횡보함.

○ 1~3/4분기 중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는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하여 1~2/4분기의 25.4% 증가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주택가격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주택투자는 1~2/4분기의 37.0% 증가에서 1~3/4분기의 34.7% 증가로 둔화됨.

○ 그러나 10월에는 주택거래와 주택가격 수준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투자는 34.6% 증가하는 횡보세를 시현함.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에너지소비 집중 산업에 대한 생산 및 투자 억제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5개년계획을 반영하면서 둔화세가 지속됨.

○ 3/4분기 중 산업생산지수는 13.5% 증가함으로써 전분기대비 2.5%p 둔화되었고 10월에도 13.1% 증가함으로써 둔화세가 유지됨.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8])는 전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유지됨에 따라 생산부문 체감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시현함.

○ PMI는 3/4분기 중 52.2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1.7p가 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 54.7을 시현하면서 소폭 증가함.

○ PMI를 구성하는 생산, 신규주문, 납품업체 배송 등의 지수들이 50 이하 수준을 시현하면서 생산부문에 대한 둔화 조짐을 시현함.

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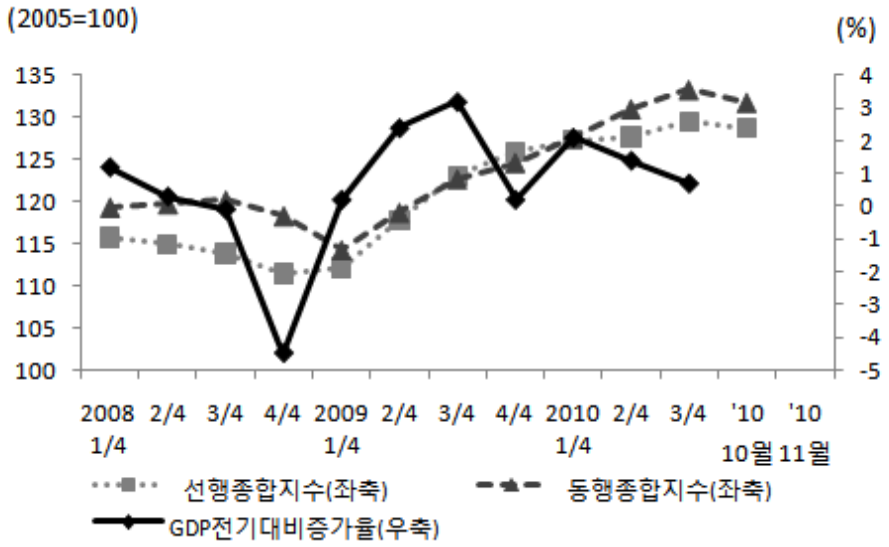
〈성장 및 내수〉

2010년 3/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수출증가율이 다소 하락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 또한 소폭 둔화되었으며,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짐.

■ 2010년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등 내수부문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난 반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4%의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실질GDP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개선에 따른 소득증가로 3.3%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함.

〈그림 1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국민소득」; 통계청,「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의한 대체설비 수요 증가로 25.2% 성장하면서 2010년 1/4분기 이후의 고성장을 이어갔으며, 건설투자는 민간주택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2.3% 감소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1)]

(전년동기대비, %)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4.3 (0.2)	-2.2 (2.4)	1 (3.2)	6 (0.2)	0.2	8.1 (2.1)	7.2 (1.4)	4.4 (0.7)
- 민간소비	-4.4	-0.8	0.8	5.6	0.2	6.3	3.7	3.3
- 설비투자	-23.1	-17.3	-7.0	13.3	-9.1	29.9	30.2	24.3
- 건설투자	2.8	5.1	4.4	5.0	4.4	2.3	-2.9	-2.3
- 재화수출[3)]	-13.5	-3.2	2.3	15.0	0.0	21.6	14.9	11.5
- 재화수입[3)]	-18.5	-13.8	-6.7	8.9	-7.9	21.8	22.1	16.1

주 :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3/4분기 재화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1/4분기 이후 계속해서 둔화되는 양상이며, 수입 또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수출 증가율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10~11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2010년 3/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0월 이후 100%를 하회함.

○ 경기동행지수는 11월말 131.5를 기록하면서 3/4분기 133.3에 비해 1.8%p 하락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말대비 2.0%p 하락한 99.2를 나타내면서 100을 하회함.

○ 11월말 경기선행지수 또한 3/4분기에 비해 0.9%p 하락한 128.6을 나타냈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9월대비 2.3%p 하락한 2.6%를 나타내는 등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2010년 10~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감소하였으나, 컴퓨터, 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의복 등의 준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3/4분기 16.7%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0월과 11월 각각 14.1%, 12.3%로 성장세가 다소 하락함.

- 내구재 판매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서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 판매는 3/4분기 7.2% 성장한 후 10월과 11월 각각 12.6%, 10.2%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차량연료,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의 비내구재는 3/4분기 2.9% 성장에서 10월 4.7% 감소세로 전환된 후 11월 다시 2.7% 증가함.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2/4	3/4	4/4[p]	연간[p]	1/4	2/4	3/4	10월[p]	11월[p]
소매판매	1.5	2.8	10.8	2.6	9.9	4.9	7.3	4.2	6.9
- 내구재	5.7	7.9	33.9	8.1	29.4	5.4	16.7	14.2	12.3
승용차	20.1	24.1	76.9	21.8	48.6	-2.1	12.0	6.1	4.8
- 준내구재	-0.6	-0.7	3.4	0.3	2.7	6.9	7.2	12.6	10.2
- 비내구재	0.5	1.9	4.1	1.2	3.3	3.5	2.9	-4.7	2.7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10~11월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각각 9.7%, 4.5%의 증가율을 나타냄.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3/4분기 36.8% 증가한 후 11월 4.1%로 성장세가 크게 하락하였고 운송장비도 6.4% 증가에 그침에 따라 4/4분기 설비투자는 둔화가 예상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3/4분기 0.7% 감소한 이후 10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데스크탑PC)와 민간부문에서의 석유정제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발주가 증가 증가로 12.1% 증가하였으나 11월에는 공공부문의 공공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14.2% 감소함.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p	11월p
설비투자지수	-12.9	-9.9	10.0	-8.2	25.5	24.5	27.6	9.7	4.5
- 기계류	-18.9	-17.0	8.8	-12.9	29.3	32.2	36.8	13.3	4.1
- 운송장비	11.8	20.0	15.5	12.0	11.9	0.0	-0.8	-2.6	6.4
- 기계수주	-17.7	3.4	20.0	-11.8	10.5	24.2	-0.7	11.4	-14.2
건설투자	5.1	4.4	5.0	4.4	2.3	-2.9	-2.3		
- 건설기성	6.4	-1.2	3.7	3.3	4.9	2.4	2.9	-1.8	-3.0
건축	-4.8	-7.6	-0.5	-4.9	2.8	-2.8	-5.3	-6.5	-7.0
토목	27.6	11.2	9.7	17.6	7.8	9.8	15.8	5.1	2.5
- 국내건설수주	-1.1	7.6	11.6	3.0	-6.9	-6.6	-5.0	-59.6	-48.7
건축	-47.2	5.6	17.0	-16.0	-0.4	60.1	-2.5	-38.9	-48.8
토목	140.9	10.6	3.7	41.9	-14.2	-51.5	-8.7	-80.3	-48.5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0년 10~11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문 토목공사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각각 1.8%, 3.1% 감소하였고,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공사 발주의 큰 폭 감소로 각각 59.6%, 48.7% 감소함.

○ 건설기성은 토목건설이 10월과 11월에 각각 15.1%, 2.5% 증가한 반면 건축건설이 각각 6.5%, 7.0%%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각각 8.1%, 14.9%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각각 7.6%, 11.8%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주택 건축 공사 발주부진과 공공부문 토목공사의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함.

- 2010년 11월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각 41.4%, 61.6% 감소하였으며,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이 각각 48.8%, 48.5% 감소하였고 특히 토목 중 철도·궤도의 경우 기저효과로 78.9% 감소함.

〈대외거래〉

■ 2010년 12월(12.1~12.20) 수출은 23.1% 증가한 4,674억 달러, 수입은 23.3% 증가한 4,2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주력수출품목 중 액정디바이스(-0.9%)를 제외한 대부분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류(47.3%), 자동차(43.3%), 자동차부품(33.4%), 반도체(22.1%), 일반기계(30.4%) 등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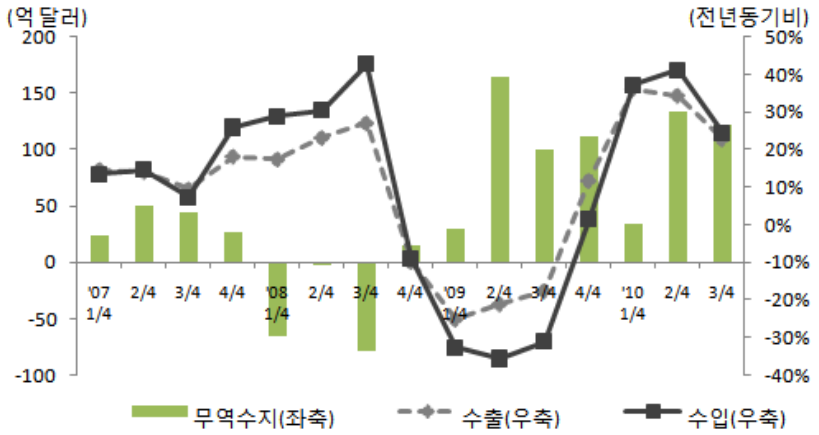
○ 수입은 자본재(30.8%)와 소비재(36.2%)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원자재 또한 21.2%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정밀기계(60.6%), 전자부품(29.1%), 원유(16.2%), 석유제품(0.5%) 등이 증가함.

■ 2010년 12월(12.1~12.20) 지역별 수출은 대양주를 제외한 주요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 또한 유럽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지역별 수출은 미국(34.5%), 일본(32.0%), EU(20.3%), ASEAN(30.0%), 중국(19.3%) 등에서 증가한 반면 대양주(-35.7)는 크게 감소함.

○ 지역별 수입 또한 미국(49.2%), 일본(18.3%), ASEAN(38.2%), 중국(25.8%)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EU(-0.8%)는 소폭 감소함.

〈그림 1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2010년 10월~11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의복 및 모피, 컴퓨터, 기타운송장비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호조로 각각 13.5%, 10.4%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부동산·임대 등에서 부진했으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금융·보험, 운수 등을 중심으로 각각 3.0%, 3.6% 성장함.

○ 2010년 11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는 각각 14.4%, 27.9%, 12.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컴퓨터, 기타운송장비, 나무제품 등은 각각 5.1%, 1.3%, 2.2% 감소함.

○ 2010년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24.1%)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9.7%), 금융·보험(8.9%), 운수(7.8%) 등에서 증가함.

- 도매·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호조로, 운수업은 항공·수상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p	11월p
광공업	-6.1	4.3	16.2	-0.8	25.8	19.5	11.9	13.5	10.4
- 제조업	-6.6	4.4	16.8	-0.9	26.8	20.2	12.2	13.6	10.6
- 자동차	-19.1	15.8	14.7	-6.8	51.0	35.7	16.5	21.8	12.3
- ICT	-0.5	13.2	46.3	7.8	46.0	27.0	19.9	12.5	11.1
서비스업	2.4	1.9	3.7	2.0	5.7	4.0	2.1	3.0	3.6
- 도매 및 소매업	-2.2	0.3	5.4	-0.4	7.4	5.5	4.9	3.5	6.2
- 운수업	-10.0	-4.8	1.4	-6.6	14.0	13.8	9.8	10.8	7.8
- 숙박 및 음식점업	-0.6	-2.5	-0.2	-1.5	1.5	0.9	1.8	4.6	1.6
- 부동산 및 임대업	2.2	6.7	21.3	5.3	10.4	-2.7	-16.2	-23.1	-24.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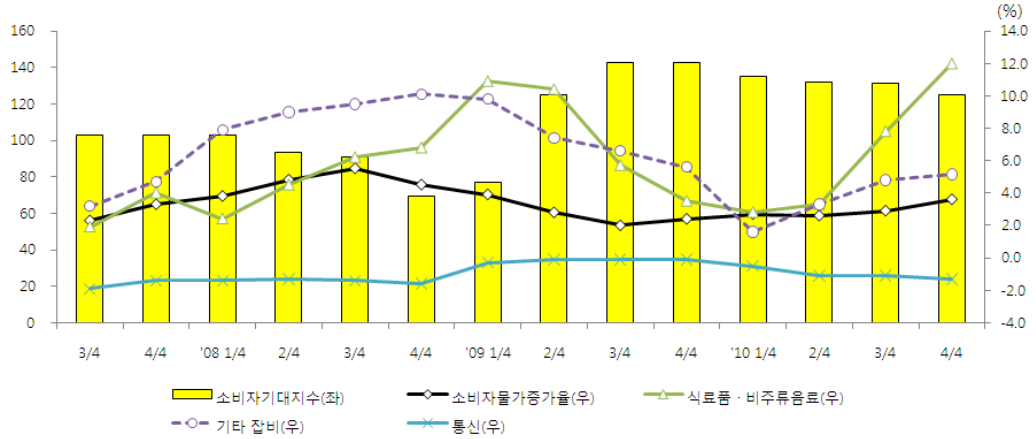
2010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2010년 하반기 고용시장은 계속적인 개선 추세가 이어졌으며, 3/4분기 가계부문은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율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4/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급상승과 더불어 기타잡비도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12.0%, 기타 잡비가 5.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교통(3.4%), 의복 및 신발(1.2%), 주거 및 수도광열(2.5%), 교육(2.2%), 외식 · 숙박(2.2%) 물가도 상승하였고, 통신(-1.3%) 물가는 하락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급상승은 채소 · 해조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8.3% 상승하고 과실 물가도 33.4% 상승한데 기인함.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소비자기대지수[9]는 4/4분기 이후에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증진을 저해하는 불안감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전분기대비 하락함.

○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과 임금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산가격 하락 및 부채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분기보다 다소 낮아진 125.2를 기록함.

■ 2010년 하반기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공행정 부문 이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 추세가 뚜렷해짐.

○ 2010년 3/4분기 총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고, 고용률은 59.3%로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낮아진 3.5%를 나타냄.

○ 10월과 11월에도 총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1.3%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도 각각 59.4%, 59.2%를 나타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11월 실업률이 3.0%까지 낮아짐.

■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부문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광공업 부문은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로 증가세가 나타남.

○ 2010년 3/4분기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10월과 11월에도 3.0%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나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6.1%, 7.2% 증가를 나타냄.

-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6.2%, 7.4% 증가했기 때문임.

○ 2010년 3/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는 도소매음식숙박 관련 취업자수가 1.3% 감소했으나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5.4%, 2.3, 0.9% 증가하여 0.8% 증가함.

---

9)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 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후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 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4%의 증가를 나타냄.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0.6	0.0	0.0	-0.3	0.6	1.8	1.6	1.3	1.3
- 청년취업자	-2.4	-3.0	-1.9	-3.1	-0.3	-1.4	-1.1	-1.1	-1.4
고용률	59.3	59.1	58.7	58.6	57.0	59.6	59.3	59.4	59.2
실업률	3.8	3.6	3.3	3.6	4.7	3.5	3.5	3.3	3.0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3	-1.4	-6.9	-2.2	-11.7	-4.6	-2.5	-3.0	-3.0
광공업	-3.8	-3.6	-1.2	-3.2	1.6	4.4	6.8	6.1	7.2
- 제조업	-3.8	-3.6	-1.2	-3.2	1.6	4.5	6.9	6.2	7.4
SOC 및 기타서비스업	0.2	0.9	0.9	0.5	1.3	1.9	0.8	0.7	0.4
- 건설업	-6.0	-5.7	-5.9	-5.0	-3.6	2.5	5.4	5.6	2.9
- 도소매음식숙박	-2.4	-2.8	-2.6	-2.4	-1.0	-1.3	-1.3	-1.1	-1.3
- 전기,운수,통신,금융	-1.8	-0.9	1.8	-0.9	4.1	2.4	2.3	3.0	1.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5	5.9	4.6	4.6	3.2	3.9	0.9	0.2	0.6

주 :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2010년 3/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흑자액도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수출증가, 내수호조 및 명절효과로 366만 6천원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으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도 3.0% 증가함.

- 항목별로는 경상소득이 6.3%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이 2.4% 감소했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6.6%, 사업소득이 5.9%, 이전소득이 6.8% 증가했으나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 줄어들면서 18.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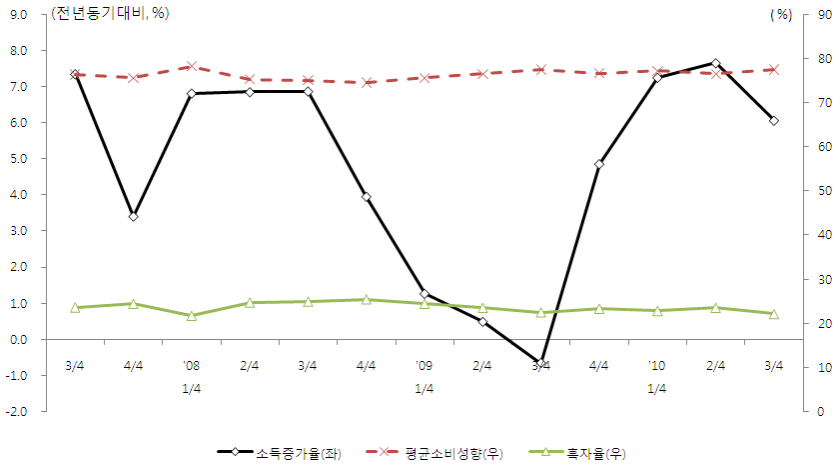
○ 2010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구매력 상승 및 명절효과에 따라 231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고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도 2.8% 증가함.

- 세부항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0.0%, 의류·신발이 1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5.3% 증가함.

○ 2010년 3/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7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경우는 65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7.9%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함.

〈그림 18〉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1-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CD(91일)금리와 국고채(3년)금리는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회사채금리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단기부동자금 유입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냄.

■ 단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금리, 91일물) 금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한 이후 2.80%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냄.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양적완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와 G20 정상회의 이후 환율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1월 17일 4개월 만에 2.25%에서 2.50%로 25bp 추가 인상됨.

- 소비자물가 급등 및 국내경기 개선을 반영해 기대 인플레이션률이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함.
-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관련 정책공조 원칙'에 합의하면서 국가 간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 자본유입 확대 우려가 완화되고,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등 금리인상 부담이 약화된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CD금리는 10월 13일 2.66%에서 2.68%까지 상승한 이후 줄곧 2.66%에 머물렀으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2월 30일 현재 2.80%로 상승함.

■ 국고채(3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및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한 때 3.0%를 하회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및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연말까지 상승세를 나타냄.

○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가능성 등으로 11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G20 정상회의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책 불확실성 완화, 연평도 포격 사건, 국고채 3년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12월 초 기준 사상 최저치인 2.89%까지 하락함.

○ 그러나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내 증시 상승, 물가상승압력 증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위험 가중 등의 영향으로 12월 30일 현재 3.38% 수준으로 상승함.

○ 장단기금리차(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 차이)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2월 30일 현재 78bps를 기록해 연중 최저치를 나타냄.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단기부동자금 유입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냄.

○ AA-등급 회사채금리와 BBB-등급 회사채금리는 하반기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단기부동자금의 지속적인 회사채 시장으로의 유입으로 12월 30일 현재 각각 4.27%, 10.19%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10월 말 613bps를 기록한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에 따른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비우량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12월 30일 현재 602bps 수준으로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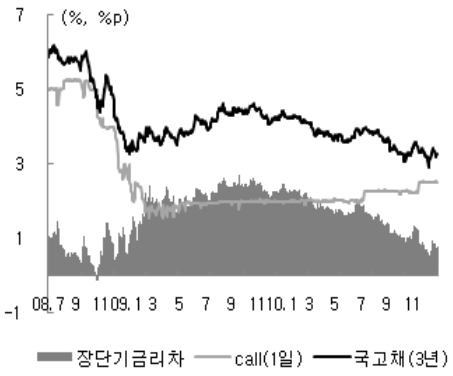
■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대체로 90bps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며 안정세를 유지함.

○ AA-등급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12월 초 한 때 112bps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국내 금융시장 여건 호전으로 90bps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TED 스프레드[10]는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완화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 하향세의 영향으로 12월 30일 현재 19bps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 추세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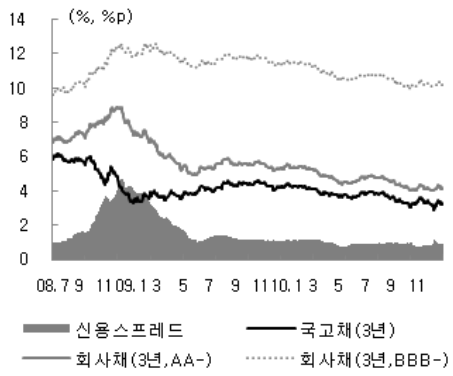
10) TED 스프레드는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 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그림 19〉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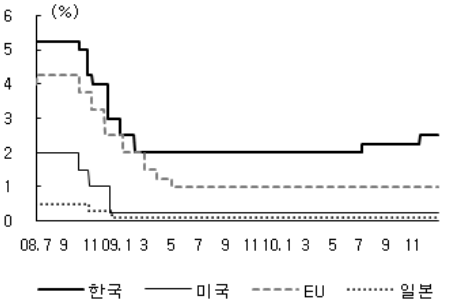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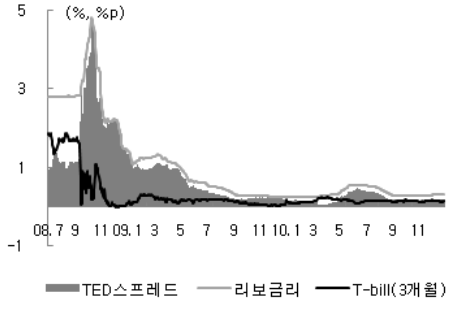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
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의 차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2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2〉 TED 스프레드 추이



주 :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 국채금리(T-bill, 3개월)금리 간의 차이
자료 : Bloomberg

〈환율〉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 및 북한 리스크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던 원/엔 환율 역시 엔화강세로 다시 상승 전환됨.

■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 재정불안과 북한 리스크 고조 등의 영향으로 1,150원 대까지 상승세를 나타냄.

○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규모 확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1월 초 1,106원까지 하락함.

○ 이후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등 유로지역의 재정불안 확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규제 강화 전망, 중국의 긴축정책 가속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12월 30일 현재 1,129원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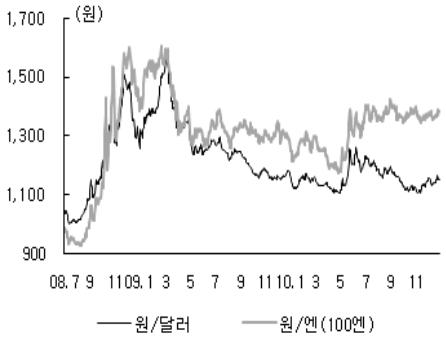
■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엔화강세,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원/엔 환율은 엔화강세 여파로 한 때 100엔당 1,400원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기대감과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었던 환율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엔화강세 추세가 진정국면을 보이면서 11월 중순 1,340원 대까지 하락함.

○ 그러나 3/4분기 일본 GDP 성장률 호조에 따른 엔화강세,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자본시장 규제 우려 등으로 12월 30일 현재 100엔당 1,385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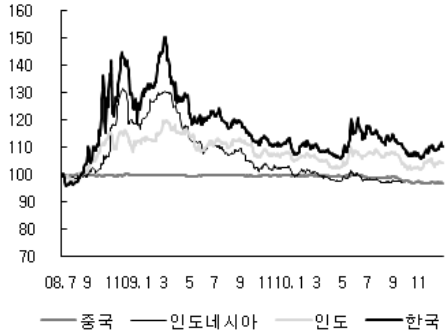
■ 아시아 신흥국 환율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으로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대됨에 따라 대체로 상승 기조를 보임.

〈그림 23〉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4〉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
자료 : Bloomberg

〈주가지수〉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 재정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호조세, 주요국 양적완화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내증시도 대내외 호재로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나타냄.

■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의 재정불안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실적의 호조세, 주요국의 재정확장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함.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한 유로지역 재정불안 등의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세, 추가 양적완화책 시행 가능성과 같은 호재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12월 30일 현재 11,569.71p까지 상승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엔화강세로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던 일본 닛케이지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매입 확대 조치, 외국계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 예상치를 상회하는 3/4분기 GDP성장률에 힘입어 10,000p를 회복하는 등 12월 30일 현재 10,228.92p를 기록함.

○ 상하이종합지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10월 중순 한 때 3,000p를 상회하며 급등세를 보였으나, 경기과열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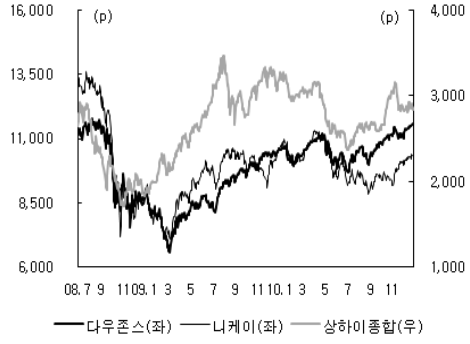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정책 강화 기조가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조치와 맞물리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12월 30일 현재 2,759.57p로 하락함.

■ 국내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KOSPI)가 대북 리스크 완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외국인 매수세 확대 등 수급여건 개선 등의 호재로 연말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으나, 코스닥지수는 수급 및 투자여건 악화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종합주가지수는 유로지역의 재정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촉발된 대북 리스크 확대 등의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 유럽 · 미국과의 FTA체결,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따른 수급여건 호조세, 자문형 랩 상품 활성화에 힘입어 3년 여 만에 2,000p를 상회하는 등 올해를 연중 최고치인 2,051.00p로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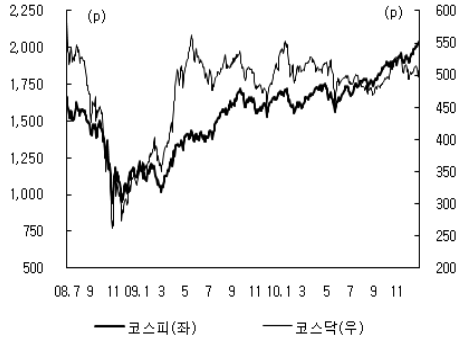
○ 반면, 코스닥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 확대로 인한 수급 악화와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 상장 폐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당기간 500p선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연말을 510.60p로 마감함.

〈그림 25〉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6〉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3/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은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투신권과 종금사가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한 조정 우려로 이탈된 자금이 안전 투자처인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와 CMA 자금으로의 유입으로 증가한 반면, 은행권과 증권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 규모는 생명보험의 순수신 증가세 둔화와 손해보험의 급감으로 전분기대비 6,367억원 축소됨.

○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주력 종목인 사망보험의 성장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843억원 증가에 그침.

○ 반면, 손해보험은 장기성보험(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원수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둔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지급보험금 급증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7,211억원 감소해 최근 3년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임.

■ 투신권 및 종금사를 제외하고 보험권, 은행권, 증권사의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순수신은 CD 순발행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성자금(주식형펀드 환매 및 주택매수대기자금 등) 유입세 감소와 예금금리의 제한적 인상으로 인한 마이너스 실질금리 국면 심화 등으로 저축성예금과 같은 실세총예금이 급감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3조 1,647억원이 감소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조정 가능성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고객예탁금과 RP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전분기대비 2조 3,623억원 감소함.

○ 투신사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환매 규모가 사상 최대(약 9조 355억원)를 기록했으나, 금리정상화 과정 지연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폭 제한 전망에 힘입어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4,956억원 증가함.

○ 종금사의 순수신도 발행어음과 어음매출 자금이 순유출 되었으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에서 약 1조 3,858억원이 순유입된 데 힘입어 전분기대비 8,860억원 증가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22,241	-6,367
- 생 보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13,782	843
- 손 보	-10	-4,588	7,795	234	-779	-2,365	8,459	-7,211
은 행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47,911	-231,647
- 일 반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70,442	-202,455
- 신 탁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22,531	-29,192
증 권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29,207	-23,623
투 신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190,970	4,956
종 금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60,687	8,86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0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한 31조 4,552억원을 시현함.

■ FY2010 2/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손해보험이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견조한 성장을 시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금,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등 개인 저축성보험의 양호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성장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하고 자동차보험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5% 성장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0	-4.2	-0.3	13.8	8.6	4.6	9.8	7.1
손해보험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0.3	11.7	14.9	21.1	19.4	16.9	20.8	16.5
합 계	1,110,568	275,206	284,484	343,721	304,481	1,207,891	313,231	314,552
	1.8	1.0	4.8	16.2	12.4	8.8	13.8	10.6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0 2/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안정적인 수입보험료 유입을 바탕으로 양호한 자산운용성과를 시현하면서 전분기대비 4.2% 증가한 491조원을 나타냄.

■ FY2010 2/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지속적인 수입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분기대비 4%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4.2% 증가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 규모는 매도가능증권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운용자산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 증가세로 전분기대비 4.1% 증가함.

○ 손해보험 부문도 원수보험료 증가로 자금유입이 늘어나고, 유가증권 수익 증가와 기타포괄손익 개선효과가 더해지면서 전분기대비 4.7%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328	339	353	361	373	373	381	397
	7.5	3.2	4.1	2.5	3.1	13.5	2.5	4.1
손해보험	74	77	79	83	86	86	90	94
	12.1	3.5	3.7	4.4	3.8	16.4	4.8	4.7
합 계	402	415	432	444	459	459	471	491
	8.3	3.3	4.0	2.8	3.4	14.2	2.7	4.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19조 2,14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이 30%에 가까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생존, 변액보험 등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성장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큰 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급감하면서 3.1% 감소함.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증가하고, 주식시장 여건 개선으로 특별계정 자산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1% 증가함.

○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으로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FY2010 2/4분기 총자산 규모는 397조 4,845억원으로 FY2010 3/4분기 중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735,614	176,324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0	-4.2	-0.3	13.8	8.6	4.6	9.8	7.1
총 자 산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725,247	3,816,622	3,974,875
	7.5	3.2	4.1	2.5	3.1	13.5	2.5	4.1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0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7.6%의 성장률을 나타냄.

○ 사망보험은 초회보험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1.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 1/4분기 이후 통합형보험, 종신·CI보험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나타내왔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FY2010 2/4분기에는 13.8% 감소함.

○ 생존보험은 세제비적격 일반연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계속보험료의 양호한 유입이 지속되면서 12.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은 타 금융권 대비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FY2010 2/4분기에도 28.7%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최근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은 세제혜택 제도 변경(비과세 혜택 요건이 7년 유지에서 10년 유지로 강화)으로 2003년 급증했던 신규계약의 만기가 2010년에 도래하면서 만기보험금의 재유입으로 인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변액보험은 주가지수 상승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와 맞물려 8.3% 성장함.

-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초회보험료가 각각 112.3%, 16.3%, 35.8% 증가하는 등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 회복세가 이어짐.

■ FY2010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단체보험의 구조적 감소세와 2010년 말 보험료 추가불입이 중지되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급감하면서 3.1% 감소함.

○ 일반단체보험은 지속적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FY2010 2/4분기에는 감소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7.3% 감소하였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68.0%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FY2009 4/4분기 이후 10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증가와 함께 계속보험료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성장률	-0.5	-0.2	4.8	16.2	14.1	8.8	17.2	12.9
	구성비	19.1	19.6	20.6	18.2	21.4	19.9	21.0	21.7
사망	보험료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성장률	-1.1	-3.9	-2.1	-0.7	-0.1	-1.7	-0.2	-1.1
	구성비	40.0	41.0	40.5	32.5	37.8	37.6	37.3	37.4
생사혼합	보험료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성장률	0.5	18.5	22.6	33.9	20.1	23.6	33.6	28.7
	구성비	9.0	10.3	10.8	9.5	12.2	10.7	12.6	12.9
변액보험	보험료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성장률	1.2	-13.7	-8.4	5.1	10.4	-2.3	10.0	8.3
	구성비	23.9	23.3	23.5	19.8	23.3	22.3	23.4	23.7
개인계	보험료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성장률	-0.2	-3.9	-0.1	7.6	7.8	2.8	9.7	7.6
	구성비	92.1	94.3	95.4	80.1	94.6	90.5	94.2	95.8
단체	보험료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성장률	-19.2	-9.5	-5.2	48.0	23.8	25.7	12.6	-3.1
	구성비	7.9	5.7	4.6	19.9	5.4	9.5	5.8	4.2
합계	보험료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성장률	-2.0	-4.2	-0.3	13.8	8.6	4.6	9.8	7.1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참고 변액보험 수요 회복세 지속

■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반등과 함께 변액보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납입방법별로는 정기납을 중심으로, 종목별로는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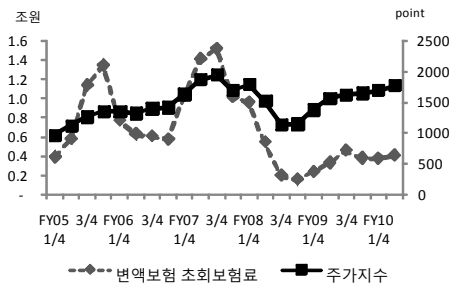
○ 주가지수는 FY2008 3/4분기 평균 1,130p까지 하락한 후 FY2010 2/4분기 1,770p까지 반등하였으며,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또한 FY2008 4/4분기 1,500억원 수준에서 FY2010 2/4분기 4,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함.

○ 그러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27%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시납보다는 정기납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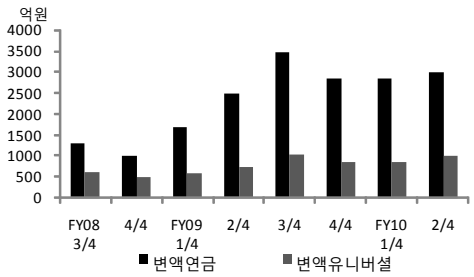
○ 종목별 초회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변액연금 규모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연금보험 수요 증가 때문임.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을 가진 일반 저축보험으로 수요가 대체되고 있음.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종목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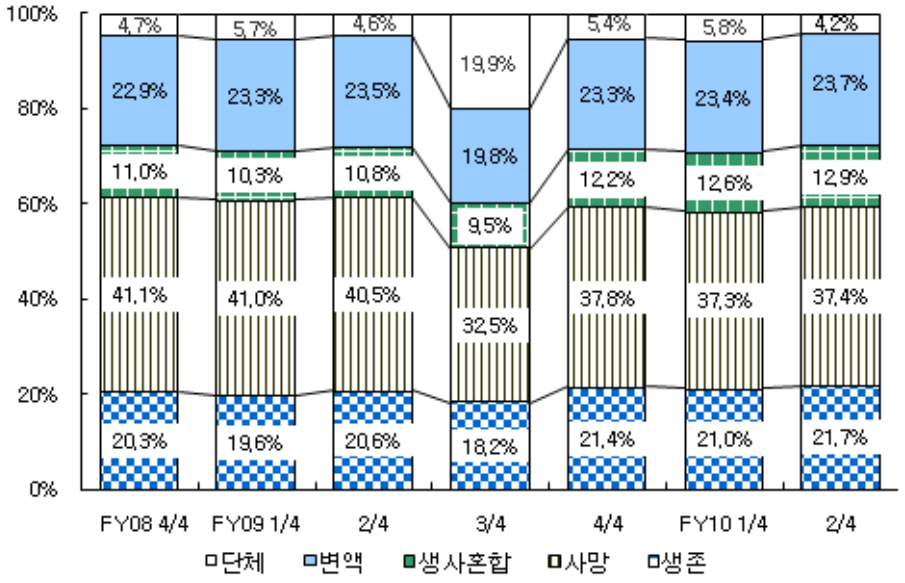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개인보험 중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비중은 감소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1%p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임.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한 21.7%로 나타났고 생사혼합보험은 2.1%p 증가한 12.9%로 전체 종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함.

○ 변액보험 또한 0.4%p 증가한 23.9%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단체보험의 비중은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4.2%를 시현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점유율만 상승하고 상위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26.6%를 나타냄.

○ 상위3사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2%p 축소된 51.7%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도 0.5%p 하락한 21.7%를 기록함.

■ FY2010 2/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3사의 점유율 하락과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5 감소한 0.1165를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54.7(-5.5)	53.6	52.9	57.4	51.8	54.1(3.4)	52.3	51.7
국내중소형사	23.8(12.5)	25.0	24.9	23.4	26.3	24.8(9.1)	26.4	26.6
외 국 사	21.5(-6.8)	21.4	22.2	19.2	21.9	21.1(2.7)	21.3	21.7
허핀달지수	0.1271	0.1217	0.1200	0.1449	0.1172	0.1263	0.1186	0.1165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0년 9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누적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반면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한 2조 1,252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이 일반계정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6.4% 증가하였고, 보험영업비용은 해지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규모 축소로 5.4% 감소하면서 보험영업이익은 81.8% 증가함.

○ 투자영업수익이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이익 감소로 7.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비용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영업이익은 13.5%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이익도 33.3%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34,024	272,467	416,397	562,962	143,720	289,921
	투자영업	48,008	96,349	139,055	185,863	51,080	89,249
	영업외	8,353	16,410	24,289	33,471	12,470	21,301
	소 계	190,386	385,225	579,741	782,296	207,269	400,471
총비용	보험영업	116,177	235,500	359,751	484,636	111,152	222,725
	투자영업	14,511	26,329	34,920	48,228	9,784	9,781
	영업외	1,501	2,796	5,283	5,982	1,594	3,154
	소 계	132,188	264,624	399,954	538,846	122,531	235,660
수지차	보험영업	17,848	36,967	56,645	78,326	32,567	67,196
	투자영업	33,498	70,020	104,135	137,635	41,296	79,467
	영업외	6,852	13,614	19,006	27,489	10,876	18,147
	소 계	58,198	120,601	179,787	243,450	84,739	164,811
책임준비금전입		49,455	100,483	151,863	210,586	68,042	137,060
법 인 세		1,829	4,527	6,542	8,315	3,846	6,498
당기순이익		6,914	15,592	21,381	24,549	12,850	21,252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단체보험 지급률이 증가한 반면 개인보험 지급률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58.3%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5.1%p 감소한 51.3%로 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함께 만기 환급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26.5%p 감소한 50.3%로 나타남.

○ 변액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중심으로 해지 환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12.9%p 증가한 62.9%로 상승하였고, 단체보험 지급률 역시 수입보험료 감소로 16.8%p 증가한 157.1%를 나타냄.

■ 사업비율은 1.0%p 감소한 16.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9%p 감소한 5.6%를 시현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지급률	64.6	58.0	59.9	62.1	65.8	61.6	58.8	58.3
개 인 계	58.8	51.9	56.0	57.1	56.5	55.4	52.1	54.0
- 생 존	85.2	60.6	56.4	52.2	54.0	55.6	51.0	51.3
- 사 망	49.9	51.7	53.8	49.4	51.4	51.6	50.2	51.1
- 생사혼합	107.9	70.7	76.8	108.9	84.5	86.0	49.7	50.3
- 변 액	33.9	36.5	50.0	49.4	52.5	47.3	57.5	62.9
단 체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157.1
사 업 비 율	18.1	17.3	17.7	15.2	16.7	16.6	16.8	16.7
해 지 율	12.4	3.5	6.5	9.0	11.3	11.3	3.0	5.6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0 2/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5.7%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0.1%p 상승한 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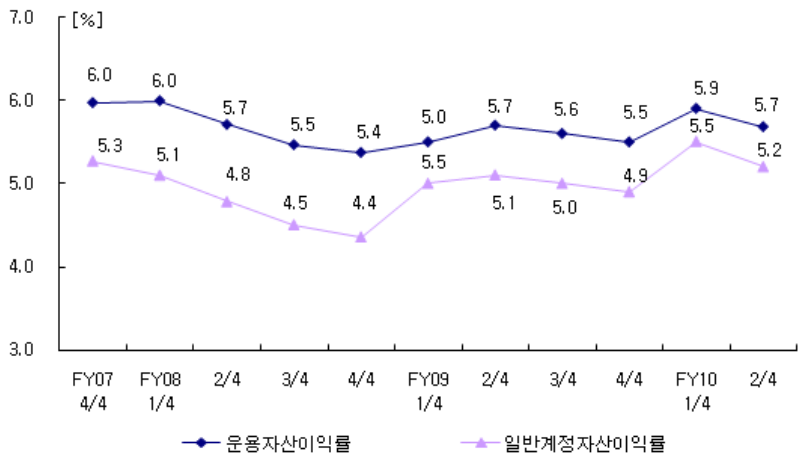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0.1%p 하락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 증권 이익률은 소폭 상승한 4.8%, 5.3%를 나타낸 반면 단기매매증권 이익률은 하락하면서 3.4%로 나타남.

○ 부동산 이익률은 3.0%로 하락하였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1.1%p 증가한 9.1%로 나타남.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4.8%, 대출채권 20.3%, 부동산 3.7%, 현금과 예금 3.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1%p, 3.1%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3	3.0	3.5	2.9	3.2	2.9	3.3	3.2	3.4	3.1
유 가 증 권	61.7	5.0	62.0	5.0	63.1	4.8	64.1	4.7	64.8	4.9
○ 단기매매증권	1.2	6.7	1.1	5.9	1.6	4.1	1.7	2.0	1.3	3.4
- 주 식	0.0	93.3	0.0	70.2	0.0	56.2	0.0	-15.4	0.0	4.6
- 채권 등	0.3	6.3	0.3	6.2	0.3	4.3	0.2	1.7	0.2	5.6
- 수익증권	0.8	4.7	0.8	4.4	1.4	3.4	1.5	2.1	1.1	3.0
○ 매도가능증권	47.2	4.7	47.3	4.7	47.8	4.6	48.4	4.6	49.3	4.8
- 주 식	5.3	1.1	5.0	0.9	4.9	1.7	4.6	0.8	4.6	1.9
- 채권 등	38.3	5.1	38.6	5.1	39.5	5.0	40.2	5.2	41.2	5.1
- 수익증권	3.6	5.6	3.8	4.7	3.5	4.1	3.5	2.6	3.5	4.4
○ 만기보유증권	12.5	4.9	12.7	5.2	12.8	5.3	13.1	5.5	13.3	5.3
- 채권 등	12.5	4.9	12.7	5.2	12.8	5.3	13.1	5.5	13.3	5.3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0.0	0.0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19.0	0.9	16.5	0.9	13.8	0.9	7.3	0.9	6.9
대 출 채 권	22.2	8.0	21.9	8.0	21.5	7.9	20.7	10.6	20.3	9.1
부 동 산	4.0	5.5	3.9	4.5	4.0	4.2	3.9	3.0	3.7	3.0
운 용 자 산 계	91.2	5.7	91.3	5.6	91.7	5.5	92.0	5.9	92.3	5.7
비 운 용 자 산	8.8	-0.6	8.7	-0.6	8.3	-0.3	8.0	0.3	7.7	-0.3
일반계정자산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1.2)	5.1	100.0 (80.8)	5.0	100.0 (80.6)	4.9	100.0 (80.7)	5.5	100.0 (80.4)	5.2
특 별 계 정 자 산	19.1	17.6	19.2	13.7	19.4	11.1	19.3	3.6	19.6	8.5
총 자 산	100.0	7.3	100.0	6.6	100.0	6.1	100.0	5.1	100.0	5.8
총 자 산 규 모	3,527,890		3,614,323		3,725,247		3,816,622		3,974,875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0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와 임직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은 감소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FY2010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4.9%p 확대된 53.1%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에 의해 거수된 초회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부문에서 각각 58.7%, 77.4% 증가함.

○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변액보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사망보험에서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사의 비중은 8.7%p 감소한 27.2%로 나타남.

○ 임직원의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증가로 인해 4.0%p 증가한 11.5%로 나타났으며, 대리점은 0.5%p 감소한 7.7%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17.8	15.4	7.5	46.9	14.2	27.0	14.1	11.5
설 계 사	36.0	36.2	35.9	19.5	28.6	27.1	26.5	27.2
대 리 점	8.8	8.8	8.2	5.6	7.7	7.0	7.2	7.7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7.3	39.5	48.2	27.8	49.1	38.6	51.9	53.1
기 타	0.1	0.1	0.3	0.2	0.3	0.2	0.3	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7,375	12,973	17,200	40,990	25,688	96,851	24,407	25,053

주 :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336명 감소하였고 대부분 대형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수는 전분기에 비해 5,734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속설계사는 918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4,816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는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대부분 대형사에서 감소함.

○ 대리점 수도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20개 감소한 10,659개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대형사와 외국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점간 통폐합, 대형화 등과 관련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8,300	27,421	27,131	26,541	26,693	26,566	26,230
설 계 사	171,347	168,874	165,852	164,175	162,687	159,512	153,778
- 전속	145,834	143,588	140,796	141,067	140,461	137,945	137,027
- 교차	25,513	25,286	25,056	23,108	22,226	21,567	16,751
대 리 점	13,120	13,588	13,739	13,387	13,244	11,679	10,659
- 개인	9,357	9,014	8,940	8,874	8,702	7,548	7,186
- 법인	3,763	4,574	4,799	4,513	4,542	4,131	3,473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의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1]의 호조세와 자동차보험의 성장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12조 2,403억원을 기록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 부문이 5분기 연속 20%가 넘는 성장을 시현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2.9% 급증한 7조 6,673억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차량등록대수증가율 상승과 정비수가 인상,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강화 추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조 581억원을 나타냄.

- 분기실적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상회한 자동차보험은 FY2007 4/4분기 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임.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보증과 특종보험의 고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1조 5,14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FY2010 2/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견조한 성장과 채권 및 외화유가증권 등 유가증권의 수익 증가로 전분기대비 4.7% 늘어난 94조 4,186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 규모는 약 80%를 차지하는 운용자산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7% 증가한 91조 171억원을 나타냈으며, 둔화세를 나타냈던 특별계정자산도 3조

1)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4,015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대비 2.9% 늘어남.

- 운용자산은 매도가능채권이 특수채 및 회사채의 가치 증대와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수익증권의 보유 확대로 전분기대비 2.9% 증가하고 대출채권도 가계대출채권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4.2% 증가함에 따라 5.4% 늘어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0.3	11.7	14.9	21.1	19.4	16.9	20.8	16.5
- 장기성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15.2	18.3	23.9	33.5	28.3	26.4	30.1	22.9
- 자동차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1.2	-0.6	1.4	3.3	6.4	2.6	7.6	8.3
- 일반손해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12.2	12.6	8.7	5.9	8.1	8.7	8.4	4.8
총 자 산	739,895	766,082	794,726	829,558	861,222	861,222	902,218	944,186
	12.1	3.5	3.7	4.4	3.8	16.4	4.8	4.7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0 2/4분기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2.9% 늘어난 7조 6,673억원을 시현함.

○ 장기성보험은 금년 말 제도 종료를 앞둔 퇴직보험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지속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견조한 수요 증가로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유지함.

■ FY2010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신규계약 증가와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6조 9,459억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중심의 신규 판매 증가와 작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계약 해지율 및 유지율 안정이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 FY2010 2/4분기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저금리 및 내수경기 회복 기조와 맞물리면서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한 5,818억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세가 지속됨.

○ 개인연금은 내수경기 회복, 저금리 기조 지속, 세제부여 혜택 등으로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함.

- FY2006 3/4분기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연금은 특히, 최근 5분기 연속으로 30% 성장률을 시현함.

■ FY2010 2/4분기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7.5% 감소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107.4% 급증해 퇴직보험 제도 종료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보험은 금년 말 효력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계약의 급격한 감소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7.5% 감소함.

○ 반면,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관련법 개정 효과와 업계의 퇴직연금 유치 노력에 따른 신규계약 증가로 8개 퇴직연금 판매사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며 107.4%의 성장률을 시현함.

〈표 12〉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장기손해	보험료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성장률	15.5	18.3	23.3	24.5	27.0	23.4	25.5	21.2
	구성비	89.1	91.5	91.8	77.9	89.1	87.1	90.7	90.6
개인연금	보험료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5,818
	성장률	28.6	25.7	30.4	46.5	49.9	38.8	51.3	43.7
	구성비	6.1	6.3	6.5	6.5	7.3	6.7	7.5	7.6
퇴직보험	보험료	6,807	758	521	6,828	573	8,680	960	273
	성장률	-17.6	46.4	27.3	43.1	-48.4	27.5	26.7	-47.5
	구성비	3.2	1.3	0.8	8.9	0.8	3.2	1.3	0.4
퇴직연금	보험료	3,322	534	541	5,049	1,994	8,119	2,385	1,123
	성장률	55.7	-29.4	39.3	307.9	112.4	144.4	346.4	107.4
	구성비	1.6	0.9	0.9	6.6	2.8	3.0	3.2	1.5
합 계	보험료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성장률	15.2	18.3	23.9	33.5	28.3	26.4	30.1	2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 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10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종목별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신규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 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장 관련 보험은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

○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계약 부진에 대비한 업계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과 맞물리면서 전년동기대비 71.6% 급증하며 전체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함.

○ 반면, 상해 · 질병 · 통합형보험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7%, 7.1%, 7.0% 성장했으나,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개정에 따른 실손보장

축소(100→90%)로 관련 상품의 신규계약 감소와 기저효과 영향에 의해 성장 둔화세가 이어짐.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도 각각 12.4%, 15.2% 성장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FY2010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상해 · 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앞세운 저축성보험의 신규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44.6% 증가한 4,730억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시중금리의 저금리 지속으로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업권보다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1.5% 급증하며 성장세가 확대됨.[2)]

○ 재물보험은 실화법 및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한 화보법 개정 효과가 시장 수요로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98.6% 증가함.

○ 반면, 상해 · 질병보험은 작년 2/4분기에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개정으로 인한 신규계약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예년 수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2.0%, 57.5%를 나타냄.

■ FY2010 2/4분기 계속보험료는 해지율 안정화로 저축성보험 등 모든 종목이 성장하며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했으나 상해 · 질병 · 통합형보험의 신규계약 부진으로 성장 폭은 다소 감소함.

○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신규계약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 추세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해 매분기 성장 폭이 확대되며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상해 · 질병 · 통합형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메리트 증가로 낮은 해지율을 유지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19.8%, 11.1%, 9.5% 증가했으나 신규계약 부진으로 성장 둔화세를 나타냄.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저축성보험의 신규계약 호조세 지속' 참조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9,702	15,041	15,650	16,414	16,964	64,069	17,671	18,263
		성장률	25.5	32.8	31.2	30.1	25.1	28.9	17.5	16.7
	운전자	보험료	20,904	5,008	4,994	5,160	5,459	20,621	5,571	5,611
		성장률	-2.1	-6.5	-5.4	-0.7	7.6	-1.4	11.2	12.4
	재 물	보험료	18,113	4,550	4,548	4,701	4,836	18,635	5,002	5,240
		성장률	2.8	0.4	0.4	3.6	6.9	2.9	9.9	15.2
	질 병	보험료	33,755	10,568	12,992	13,000	13,294	49,853	13,525	13,914
		성장률	23.2	40.7	62.2	48.4	35.9	47.7	28.0	7.1
	저축성	보험료	29,639	8,479	9,040	9,924	11,676	39,119	14,020	15,515
		성장률	8.7	16.2	20.7	34.7	56.1	32.0	65.3	71.6
	통합형	보험료	36,403	9,330	9,925	10,129	10,335	39,719	10,595	10,624
		성장률	20.6	5.6	8.1	10.4	12.1	9.1	13.6	7.0
	자산 연계형	보험료	313	111	151	117	594	973	267	292
		성장률	-	-	45.7	10.7	469.3	210.5	140.1	93.2
	소 계	보험료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성장률	15.5	18.3	23.3	24.5	27.0	23.4	25.5	21.2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365	645	793	350	478	2,266	518	460
		성장률	36.9	42.8	61.1	-41.4	-42.1	-4.2	-19.7	-42.0
	운전자	보험료	424	121	119	210	200	650	127	108
		성장률	-25.9	7.9	18.4	103.0	85.0	53.2	4.6	-8.6
	재 물	보험료	622	172	130	200	190	692	223	259
		성장률	-0.2	0.1	-4.2	34.2	15.0	11.2	29.6	98.6
	질 병	보험료	1,762	513	753	283	247	1,796	239	320
		성장률	129.8	131.3	130.9	-42.8	-65.7	1.9	-53.3	-57.5
	저축성	보험료	2,405	1,091	1,153	1,095	1,716	5,056	2,971	3,477
		성장률	-5.8	69.7	77.9	137.2	163.4	110.3	172.3	201.5
	통합형	보험료	851	181	322	110	137	750	104	106
		성장률	-23.1	-31.5	48.4	-27.5	-37.3	-11.9	-42.4	-67.1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30	332	362	-7	-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8,429	2,724	3,270	2,278	3,300	11,572	4,176	4,730
		성장률	14.7	46.0	70.4	16.4	22.8	37.3	53.3	44.6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7,068	14,396	14,857	16,065	16,487	61,803	17,153	17,804
		성장률	24.2	32.4	29.9	33.0	29.4	31.3	19.2	19.8
	운전자	보험료	20,480	4,887	4,875	4,949	5,259	19,971	5,444	5,503
		성장률	-1.4	-6.8	-5.8	-2.8	5.9	-2.5	11.4	12.9
	재 물	보험료	17,491	4,378	4,418	4,502	4,646	17,943	4,779	4,981
		성장률	2.9	0.4	0.8	2.6	6.6	2.6	9.2	12.8
	질 병	보험료	32,262	10,055	12,239	12,716	13,047	48,057	13,286	13,594
		성장률	20.1	37.9	60.4	55.0	43.9	49.0	32.1	11.1
	저축성	보험료	27,234	7,388	7,887	8,829	9,960	34,063	11,049	12,038
		성장률	10.2	11.0	15.3	27.8	45.9	25.1	49.6	52.6
	통합형	보험료	35,552	9,149	9,603	10,019	10,198	38,969	10,491	10,518
		성장률	22.3	6.7	7.1	11.0	13.3	9.6	14.7	9.5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87	262	348	274	292
		성장률	-	-	-	-	-	-	146.0	93.4
	소 계	보험료	180,400	50,364	54,028	57,167	59,858	221,416	62,475	64,729
		성장률	15.6	17.1	21.3	24.8	27.2	22.7	24.0	19.8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참고 저축성보험의 신규계약 호조세 지속

■ 최근 장기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부진 속에 저축성보험의 신규계약 호조세가 두드러짐.

■ FY2009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대형보험회사들의 신규판매 증가로 전년대비 2배가 늘어났으며, FY2010에도 중소형회사들까지 저축성보험 판매에 가세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시현하며 전체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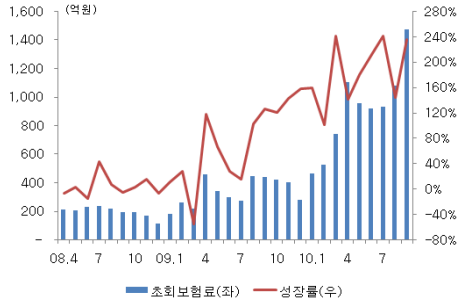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은 FY2008에는 월평균 약 200억원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FY2009에는 대형 4사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약 2배가 늘어난 421억원을 기록함.

○ FY2010에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집중하던 중·소형사들도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를 늘리면서 월 900~1,000억원대의 원수보험료 실적을 시현하고, 최근 2010년 9월에는 사상 최대인 1,468억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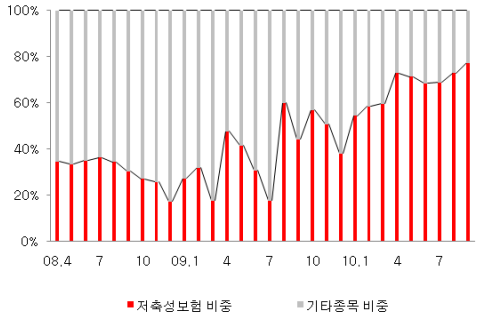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저축성보험 비중은 최근 2년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체 장기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2008년 9월: 30.4%→ 2010년 9월: 77.4%]

〈그림〉 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규모·성장률 및 비중 추이

〈초회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 FY2010 2/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감소한 7.1%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하향 안정세가 더욱 확대됨.

〈표 14〉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 해	17.2	6.0	10.9	14.1	16.9	16.9	3.8	6.8
운전자	17.6	5.5	10.4	12.7	15.3	15.3	4.1	7.1
재 물	15.1	4.9	7.7	10.7	13.5	13.5	5.0	8.6
질 병	14.8	4.6	9.3	12.6	16.0	16.0	3.8	6.7
저축성	19.7	5.9	9.6	13.4	17.0	17.0	4.6	8.4
통합형	10.1	4.6	8.3	10.9	13.2	13.2	3.0	5.3
계	16.9	5.4	9.7	12.8	15.8	15.8	4.0	7.1

주 :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손해보험의 전체 누적 해지율은 신계약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손의료보험 개정 효과에 따른 보유계약 급증, 기존 계약에 대한 선호도 증대로 효력상실액 및 해약액이 감소하며 개선세가 확대됨.

○ 종목별로는 재물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누적 해지율이 감소한 가운데, 상해 · 질병 · 통합형보험의 해지율 개선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자동차보험

■ FY2010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본격적인 실물경기 호전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조 581억원을 기록해 성장 폭이 확대됨.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주요 변수인 차량등록대수증가율은 본격적인 실물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이 차량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3% 후반 수준까지 상승함.

○ 또한 자동차업계의 잇따른 신차 출시, 보험료가 고가인 신차 · 수입차 · 대형차량의 판매 호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 주요 담보 가입금액 고액화 경향 강화에 힘입어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FY2007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담보별 원수보험료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반면, 종합보험은 물적 · 인적담보 경향 강화 추세가 반영되어 13.4% 증가함.

○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원수보험료는 대인배상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8,730억에 그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Ⅰ		35,923	8,424	8,908	8,632	8,245	34,210	8,539	8,730
종합보험	대인Ⅱ	12,215	3,053	3,117	3,151	3,093	12,414	3,197	3,263
	대물	26,710	6,996	7,339	7,328	7,455	29,118	7,751	8,102
	자차	25,836	6,530	6,651	7,088	7,245	27,514	7,493	8,095
	자손	3,804	961	960	998	999	3,919	1,038	1,065
	무보험	1,098	272	282	284	276	1,114	281	290
	소 계	69,664	17,812	18,350	18,849	19,067	74,079	19,760	20,814
외화표시		127	33	21	35	21	108	27	20
이륜자동차		460	145	140	121	112	518	158	147
기 타		3,198	827	830	846	808	3,310	822	869
합 계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1.2	-0.6	1.4	3.3	6.4	2.6	7.6	8.3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합보험은 5개 담보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가운데, 종합보험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차량의 고급화·대형화 경향으로 물적보상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각각 10.4%, 21.7% 늘어나 전체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을 주도함.

- 또한 인적 담보인 대인배상 Ⅱ(대인 Ⅱ)와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10.9% 증가해 고액사고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 FY2010 2/4분기 담보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대인배상 I 을 포함한 대부분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8.4%p 급증한 82.5%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요율인하 영향으로 인한 경과보험료 정체와 개인용 차량의 발생손해액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75.1%를 나타냄.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I		66.6	68.1	71.8	75.7	69.0	71.1	71.4	75.1
종합보험	대인 Ⅱ	73.5	69.0	62.1	68.7	68.0	66.9	70.5	74.1
	대물	75.4	76.9	78.5	86.7	83.2	81.3	83.1	87.2
	자차	68.9	72.6	79.1	81.8	92.3	81.6	78.3	92.1
	자손	60.6	66.0	64.9	74.1	78.4	70.9	74.8	75.4
	무보험	35.8	21.1	63.0	47.3	30.1	40.5	17.3	46.3
	소 계	71.1	72.5	75.0	80.5	83.0	77.8	77.8	85.7
외화표시		62.3	63.4	48.2	52.9	52.2	54.4	64.7	81.9
이륜자동차		94.6	93.9	94.2	85.7	68.6	85.5	97.3	72.3
기 타		68.6	66.0	76.0	79.4	81.1	75.7	67.1	86.0
합 계		69.7	71.0	74.1	79.0	78.6	75.7	75.7	82.5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합보험 전체 손해율은 무보험차량을 제외한 모든 담보가 전년동기대비 악화된 가운데, 특히 종합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 상승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10.7%p 악화된 85.7%를 기록함.

- 실물경제 회복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이 차량운행량 증가로 이어지고, 곤파스와 같은 8~9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계절요인으로 인한 사고 증가, 대물사고 할증기준금액 상향 제도 시행으로 물적담보인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급증이 종합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3) 일반손해보험

■ FY2010 2/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던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8% 성장한 1조 5,149억원에 그침.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2,835	654	632	798	679	2,763	622	602
	성장률	-7.8	-6.6	-0.1	0.7	-4.3	-2.5	-5.0	-4.7
	구성비	5.3	4.4	4.4	5.2	4.9	4.7	3.9	4.0
해 상	보험료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1,970
	성장률	30.5	2.2	5.1	-27.5	5.5	-5.4	-5.9	-2.0
	구성비	15.8	15.0	13.9	12.1	14.1	13.8	13.0	13.0
보 증	보험료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2,978
	성장률	16.0	12.5	-1.3	10.1	5.4	6.6	0.9	3.1
	구성비	21.4	21.4	20.0	20.2	22.5	21.0	20.0	19.7
특 종	보험료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9,030
	성장률	6.9	15.8	12.5	16.3	12.6	14.3	15.8	7.2
	구성비	54.2	56.5	58.3	58.1	54.7	56.9	60.4	59.6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781	383	500	661	534	2,078	433	568
	성장률	58.1	71.1	46.6	3.8	-7.9	16.7	13.1	13.6
	구성비	3.3	2.6	3.5	4.3	3.8	3.6	2.7	3.7
합 계	보험료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성장률	12.2	12.6	8.7	5.9	8.1	8.7	8.4	4.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7% 줄어들면서 계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해상보험은 해양종합 · 책임, 항공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함.

○ 보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했으나 전년 동기간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2% 성장률을 나타내어 6분기 동안 이어져 온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를 마감함.

■ FY2010 2/4분기 화재보험은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60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확대로 주택물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의 경우 물건이탈이 계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7.2% 감소하여 전체 4.7% 감소함.

■ FY2010 2/4분기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의 부진과 해양종합 · 책임, 항공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0% 줄어든 1,970억원에 그침.

○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로 인하여 적하보험은 15.9% 증가한 710억원을 시현하였으나 선박보험은 0.1% 감소하여 904억원에 머무름.

○ 해양종합, 해양책임, 항공보험은 기저효과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5%, 85.3%, 23.8% 감소함.

■ FY2010 2/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간의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한 2,978억원을 나타냈으나 FY2008부터 이어져 온 보증보험의 고성장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보증보험은 신용보증이 통신 관련 부문의 실적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이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둔화되면서 소폭 성장에 머무름.

■ FY2010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종합, 상해, 책임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9,030억원에 그침.

○ 종합보험은 기업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하고 가계성 물건도 꾸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3,360억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 상해보험은 여행보험이 계절적 요인 및 기저효과로 2.4% 성장에 그쳤으나 단체상해와 일반상해보험이 의료비 상승 및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추세로 각각 22.1%, 22.7%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한 2,80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 관련 배상책임보험이 8.6% 성장하고,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각각 2.2%, 0.9%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946억원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됨.

○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투자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전년동기의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관련 보험이 29.6% 감소하 면서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한 890억원에 머무름.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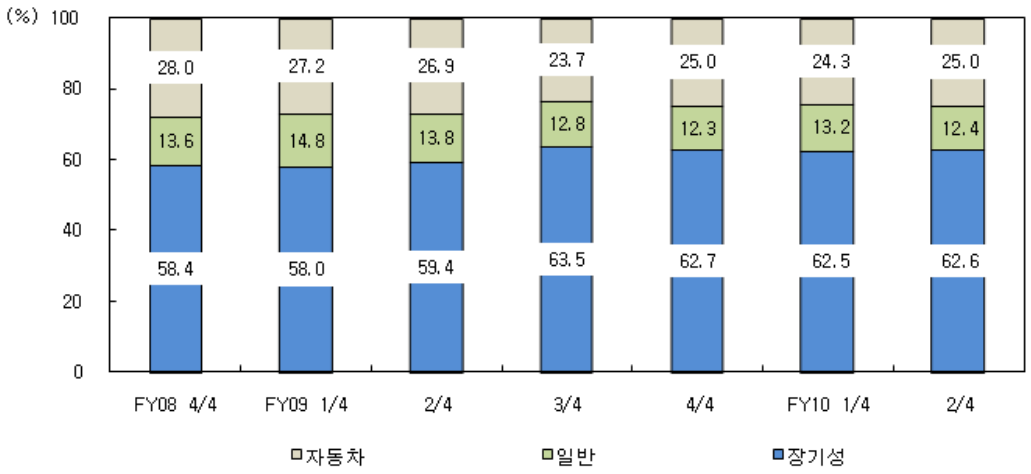
■ FY2010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한 장기성보험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함.

○ 장기성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과 연금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p 늘어난 62.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장기성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한 25.0%를 기록했으나, 자동차보험 성장률이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0.7%p 확대됨.

○ 한편, FY2007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시현한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장기성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견조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4%p,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12.4%를 나타냄.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장기성손해보험이 주력인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국내 기타사, 전업사, 외국사 및 온라인사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개인연금및 퇴직연금)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69.3%를 기록한 반면, 기타사는 0.3%p 감소한 25.1%를 나타냄.

○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0.2%p 줄어든 3.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사도 대형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격화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3.2%를 기록해 FY2008 1/4분기 이후 3%대에서 정체됨.

■ FY2010 2/4분기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53p 증가한 0.1462를 나타냄.

○ 허핀달지수는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대형보험사 중심의 시장 집중도 심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6분기 연속 상승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사	68.9(11.7)	68.1	68.5	69.3	69.0	68.8(16.7)	69.1	69.3
국내 기타사	24.5(21.4)	25.4	25.4	25.2	25.0	25.2(20.5)	25.2	25.1
전업사	3.1(16.0)	3.2	2.8	2.6	2.8	2.8(6.6)	2.7	2.4
외국사	3.6(31.3)	3.3	3.4	2.9	3.2	3.2(4.4)	3.0	3.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5(7.1)	3.3	3.4	3.0	3.3	3.2(7.2)	3.0	3.2
허핀달지수	0.1440	0.1402	0.1409	0.1440	0.1437	0.1436	0.1459	0.1462

주 :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Ⅰ, Ⅱ를 모두 포함함.

4) ( )는 연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적자를 나타낸 반면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1.4% 고성장한 1조 2,805억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매출 호조로 인한 장기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했으나 보험영업비용이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2,052억원의 적자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외화환산손실이 줄어들면서 투자영업비용이 30.1% 감소하여 1조 8,189억원의 흑자를 나타냄.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356,806	95,170	195,656	299,884	408,165	111,904	229,228
	투자영업	41,704	11,829	22,448	32,202	42,559	11,239	22,450
	기 타	14,693	2,339	4,671	17,296	21,181	4,901	7,784
	소 계	413,204	109,338	222,776	349,382	471,905	128,044	259,462
총비용	보험영업	365,299	96,455	199,392	305,177	417,530	109,492	231,280
	투자영업	15,398	3,043	6,093	8,457	11,146	2,247	4,260
	기 타	14,740	2,806	5,357	18,420	22,515	4,719	7,084
	소 계	395,436	102,304	210,842	332,055	451,192	116,458	242,625
수지차	보험영업	-8,492	-1,284	-3,736	-5,293	-9,365	2,412	-2,052
	투자영업	26,307	8,786	16,355	23,745	31,413	8,992	18,189
	기 타	-46	-467	-686	-1,124	-1,335	182	700
	소 계	17,768	7,035	11,934	17,327	20,713	11,586	16,837
법 인 세		4,661	1,645	2,877	4,294	5,299	2,717	4,032
당기순이익		13,107	5,390	9,056	13,033	15,414	8,870	12,805

주 :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4%p 상승한 79.3%를 나타냄.

○ 전분기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 비중 확대에 따른 발생손해액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증가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 9월 손해율이 90.3%를 상회하며 적정 손해율인 70%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전업사의 손해율은 4분기 연속 80%를 상회하는 등 사상 최악 수준임[3].

■ FY2010 2/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진 22.3%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저축성보험 성장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로 사업비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보험료가 큰 폭의 증가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1%p 하락한 17.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순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31.1%를 나타냈고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특종보험은 하락했으나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25.7%를 나타냄.

■ FY2010 2/4분기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상승하여 합산비율이 101.6%로 높게 나타남.

○ 사업비율이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손해율이 4.4%p 높아져 합산비율도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함.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율	장기손보*	79.4	78.9	78.5	80.1	81.5	79.8	81.3	81.3
	자동차보험	69.7	71.0	74.1	79.0	78.6	75.7	75.7	82.5
	화재보험	39.7	32.4	37.1	54.3	39.9	32.0	21.2	50.1
	해상보험	127.1	82.4	89.0	85.4	81.9	77.4	36.1	55.2
	보증보험	48.9	66.1	47.9	31.5	88.0	58.0	-98.2	70.9
	특종보험	64.7	61.4	67.2	63.0	57.4	62.4	52.8	66.4
	해외원보험	45.8	39.2	29.0	29.0	35.2	32.7	42.6	36.1
	해외수재보험	91.0	57.9	60.0	60.2	59.3	59.3	71.8	51.1
	전 체	74.8	74.2	74.9	76.7	78.2	76.0	72.8	79.3
사업비율		25.4	24.8	25.2	22.5	22.8	23.8	21.9	22.3
합산비율		100.3	98.9	100.1	99.1	100.9	99.8	94.6	101.6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세 사상 최악 수준' 참조

참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세 사상 최악 수준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기상악화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태풍 곤파스,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 추석 연휴로 인한 사고피해 급증으로 보험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7,706억 원 지급되며 90.3%를 기록함.

○ 이는 대폭설로 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던 2005년 12월 92.3%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2010년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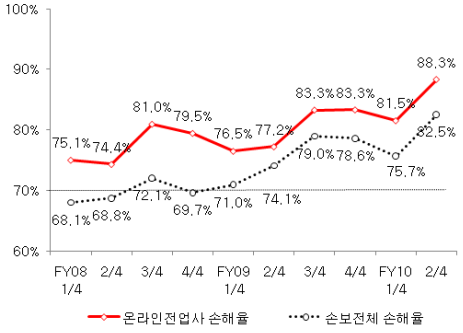
○ 특히, 온라인 전업사의 손해율은 FY2009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80%를 넘으며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평균 4~5% 상회하는 등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온라인 전업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주 : 온라인 전업사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손보 등임.

라. 자산운용

■ FY2010 2/4분기 자산운용 구성비는 유가증권 53.8%, 대출채권 18.0%, 부동산 5.9%, 현금과예금 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5.0	1.5	5.5	1.4	5.1	1.6	5.3	5.0	5.4	3.4
유 가 증 권	52.3	6.2	52.1	5.7	52.9	5.6	53.3	5.4	53.8	5.4
• 단기매매증권	2.2	9.4	2.3	7.9	3.0	6.5	3.1	2.9	4.6	5.0
- 주 식	0.2	87.5	0.2	54.2	0.2	38.5	0.3	2.0	0.3	10.0
- 채 권 등	1.0	7.6	0.3	9.3	0.4	7.0	0.4	7.7	0.6	9.9
- 수익증권	1.0	6.2	1.8	5.1	2.4	4.9	2.4	2.1	3.6	3.7
• 매도가능증권	45.1	6.0	44.5	5.6	44.6	5.4	44.8	5.4	44.0	5.5
- 주 식	5.2	14.2	4.9	11.0	4.9	9.7	4.3	6.5	4.3	6.6
- 채 권 등	35.7	5.6	28.8	5.5	28.5	5.6	29.0	5.2	28.3	5.4
- 수익증권	4.2	3.0	10.9	3.2	11.2	3.1	11.5	5.5	11.4	5.2
• 만기보유증권	3.8	6.0	3.9	5.1	4.0	6.1	4.2	5.7	4.0	5.5
- 채 권 등	3.8	6.3	3.7	5.3	3.8	6.4	3.9	5.6	3.7	5.7
- 수익증권	0.0	2.8	0.2	1.6	0.2	2.6	0.3	7.3	0.3	2.5
• 투자주식	1.3	9.3	1.4	7.5	1.3	5.5	1.3	7.1	1.3	6.0
대 출 채 권	18.3	6.4	18.6	6.3	18.5	6.4	18.0	6.2	18.0	6.1
부 동 산	6.5	0.7	6.3	0.8	6.2	0.9	6.0	1.3	5.9	1.1
운 용 자 산 계	82.1	5.5	82.6	5.1	82.7	5.1	82.6	5.2	83.1	5.1
비 운 용 자 산	17.9	0.0	17.4	0.0	17.3	0.0	17.4	0.0	16.9	0.2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5	100.0	4.2	100.0	4.2	100.0	4.3	100.0	4.2
일 반 계 정 자 산	96.6	4.5	96.4	4.2	96.2	4.2	96.3	4.3	96.4	4.2
특 별 계 정 자 산	3.4	-	3.6	-	3.8	-	3.7	-	3.6	-
총 자 산	100.0	4.3	100.0	4.0	100.0	4.0	100.0	4.1	100.0	4.1
총 자 산 규 모	794,726		829,558		861,222		902,218		944,186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은 논의에서 제외함.

○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44.0%, 만기보유증권은 4.0%, 단기매매증권은 4.6%, 투자주식은 1.3%의 순으로 나타남.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의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5.4%를 나타냄.

○ 유가증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5.5%를 나타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투자이익률도 전년동기대비 4.4%p 감소한 5.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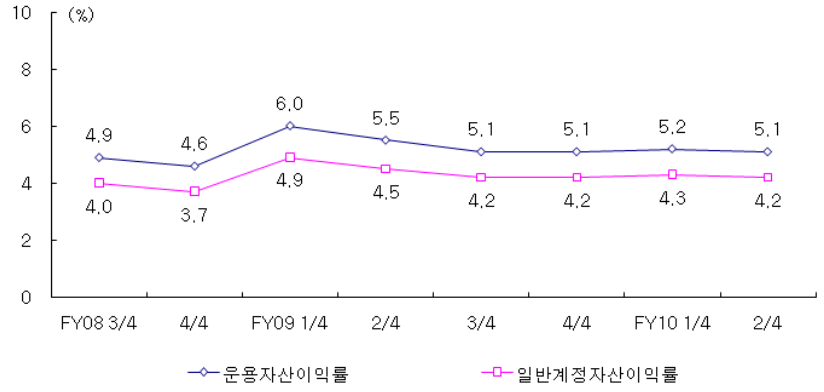
○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6.1%를 나타냈고 부동산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높아진 1.1%을 시현함.

○ 현금과예금의 이익률은 전분기에 이어 재보험회사들이 보유한 외화정기예금이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3.4%를 나타냄.

■ FY2010 2/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4.2%로 나타남.

○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함에 따라 일반계정자산 투자이익률도 감소함.

〈그림 4〉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0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임직원 및 방카슈랑스 채널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대리점, 설계사를 비롯한 기타 채널 비중은 감소세를 보임.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장기성손해보험 상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한데 힘입어 1.0%p 증가한 12.5%를 기록함.

○ 반면, 가장 큰 판매 채널인 대리점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임직원 채널의 비중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0.9%p 감소한 45.7%, 33.7%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채널도 저축형보험, 개인연금 등 주요 상품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1.3%p 증가한 7.2%를 기록하는 등 FY2009 4/4분기 이후 비중 확대 추세가 지속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52,380	15,043	12,057	21,568	16,057	64,725	16,892	15,250
	14.0	15.0	11.5	18.0	14.2	14.8	14.0	12.5
설계사	124,660	32,752	36,416	37,202	39,523	145,894	40,166	41,265
	33.2	32.7	34.6	31.0	35.0	33.3	33.2	33.7
대 리 점	173,521	45,403	49,505	53,814	48,862	197,584	54,290	55,964
	46.3	45.4	47.1	44.8	43.2	45.1	44.9	45.7
중개사	3,098	829	909	978	656	3,372	905	971
	0.8	0.8	0.9	0.8	0.6	0.8	0.7	0.8
방카슈랑스	19,993	5,721	5,997	5,974	7,280	24,971	8,404	8,754
	5.3	5.7	5.7	5.0	6.4	5.7	7.0	7.2
공동인수	1,301	290	228	580	680	1,777	172	200
	0.3	0.3	0.2	0.5	0.6	0.4	0.1	0.2
전 체	374,954	100,038	105,111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0 2/4분기 말 손해보험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및 설계사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냄.

○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 인원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289명 늘어난 2만 9,206명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 모집인으로 등록된 전체 설계사 수는 전속 및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292명 늘어난 16만 2,985명을 기록함.

-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영업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면조직 확충을 위해 공격적인 리쿠르팅을 전개한 데 힘입어 전속 및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203명, 89명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 및 법인대리점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796개 줄어든 4만 3,343개로 집계됨.

- 전체 대리점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대리점은 전분기대비 620개 감소해 FY2009 1/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법인대리점도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는 등 독립법인대리점(GA)의 활성화와 대리점 대형화 추세가 반영됨.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8,250	28,271	28,317	28,563	28,796	28,917	29,206
설계사	155,809	161,615	164,383	167,539	164,203	162,693	162,985
- 전속	82,201*	87,963	84,487	86,856	83,020	83,562	83,765
- 교차	73,608*	73,652	79,896	80,683	81,183	79,131	79,220
대리점	45,998	46,607	46,238	46,070	45,049	44,139	43,343
- 개인	35,675	35,513	34,674	34,359	32,976	32,270	31,650
- 법인	10,323	11,094	11,564	11,711	12,073	11,869	11,693

주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1)]

가. 생명보험

■ 2010년 3/4분기(7~9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2)]는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부진으로 지난 1/4분기와 2/4분기의 성장세를 마감하고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냄.

○ 3/4분기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큰 보험료 감소폭을 보인 정기보험은 보험료 인상과 신상품 출시 감소 등으로 16%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보험 계약 건수도 16% 감소함.

○ 2010년 1/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6% 감소됨.

- 변액유니버셜보험 누적 점유율은 6%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99년에 가장 높은 31%의 비중을 기록한 바 있음.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요가 회복되려면 장기간의 경기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유니버셜보험 연납화 보험료는 8% 성장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누적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의 42%에 비해 불과 1%p 낮은 41%로 나타남.

○ 지난 분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종신보험은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3/4분기 6% 성장함.

○ 신규보험료 기준 종목별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10%+정기납보험료

니버셜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비중은 감소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유니버셜	-33	-27	-14	-3	-20	41	17	11	8
기타변액	-62	-79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61	-49	-52	-36	-49	9	10	2	-6
정기	-4	-3	0	1	-1	26	-4	-11	-16
종신	-5	-3	12	12	4	24	15	23	6
계	-26	-20	-11	-5	-16	100	10	7	0
연납화 보험료	2,011	2,256	2,311	2,662		9,240	2,216	2,408	2,306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2010.12.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건)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유니버셜	-7	8	5	15	5	15	21	22	23
기타변액	-23	-99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51	-50	-49	-42	-48	2	-15	-7	-14
정기	-5	-4	-1	-1	-3	46	-5	-11	-16
종신	-5	-4	7	6	0	37	1	8	-7
계	-8	-4	1	3	-2	100	0	1	-7
전체 건수	1,559	1,543	1,571	1,572		6,247	1,565	1,553	1,454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2010.12.

나. 연금보험

■ 2010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1.1% 증가한 561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1/4분기 이후 6분기만의 첫 플러스 성장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면서 규모 기준으로 2008년 3/4분기 이후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함.

○ 정액연금은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규모면에서 2007년 말 수준으로 감소함.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1	32.1	31.9	33	128	32.4	35.5	34.9
	성장률	-26.4	-23.9	-15.6	-2.4	-17.9	4.5	10.6	9.4
	비 중	45.8	52.4	57.5	61.0	53.6	63.0	62.3	62.2
정액연금	보험료	36.7	29.2	23.6	21.1	110.6	19.0	21.5	21.2
	성장률	72.3	13.2	-16.3	-39.4	0.5	-48.2	-26.4	-10.2
	비 중	54.2	47.6	42.5	39.0	46.4	37.0	37.7	37.8
합 계	보험료	67.7	61.3	55.5	54.1	238.6	51.4	57.0	56.1
	성장률	6.8	-9.9	-15.9	-21.1	-10.3	-24.1	-7.0	1.1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2010. 12.

■ 개인연금 판매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설계사가 21%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독립중개인과 독립설계사가 각각 20%,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5%, 13%, 7%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는 독립중개인의 비중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에서는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5%로 가장 높게 나나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1/4	2/4	3/4
은 행	20	19	19	15	16	15
전속설계사	21	20	21	20	21	21
직접판매	8	8	8	9	8	7
독립중개인	19	19	19	20	21	20
독립설계사	17	17	17	19	18	20
증권중개인	12	13	13	12	12	13
기 타	3	4	4	4	4	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2010. 12.

다. 소득보상보험

■ 2010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3]을 중심으로 0.2% 증가하였으면서 2008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Non-cancellable[4]은 6.5% 감소하면서 신규보험료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나, Guaranteed Renewable은 지난 분기에 이어 12.1% 성장함.

○ 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Guaranteed Renewable상품이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소형사들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5〉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105,053	72,326	57,920	80,328	315,627	105,731	74,268	83,742
		성장률	-4.1	5.1	-25.0	0.6	-5.9	0.6	2.7	44.6
		구성비	75.8	66.6	58.5	66.7	67.6	77.5	69.2	69.0
	Non-cancellable	건 수	33,452	36,295	41,160	40,073	150,980	30,775	33,110	37,552
		성장률	-19.9	-16.5	-10.6	-6.5	-13.3	-8.0	-8.8	-8.8
		구성비	24.2	33.4	41.5	33.3	32.4	22.5	30.8	31.0
	전 체	건 수	138,505	108,621	99,080	120,401	466,607	136,506	107,378	121,294
		성장률	-8.5	-3.3	-19.6	-1.9	-8.4	-1.4	-1.1	2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1,198	42,849	45,356	49,365	198,768	60,396	48,896	50,856
		성장률	2.5	-13.7	-8.4	-5.7	-5.9	-1.3	14.1	12.1
		구성비	47.6	36.8	36.1	38.0	39.7	49.2	42.2	40.4
	Non-cancellable	보험료	67,345	73,739	80,199	80,584	301,867	62,468	66,959	74,967
		성장률	-13.0	-13.7	-6.0	-6.6	-9.7	-7.2	-9.2	-6.5
		구성비	52.4	63.2	63.9	62.0	60.3	50.8	57.8	59.6
	전 체	보험료	128,544	116,588	125,555	129,949	500,635	122,864	115,855	125,824
		성장률	-6.3	-13.7	-6.9	-6.2	-8.2	-4.4	-0.6	0.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2010. 12.

라. 손해보험

■ 2010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등 기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

〈표 Ⅳ-6〉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 액	106,335	108,366	97,783	418,867	105,053	107,571	110,683
	성장률	-4.8	-5.0	-0.9	-3.7	-1.3	1.3	2.1
지급보험금	금 액	75,277	77,653	74,959	306,611	74,532	77,385	77,600
	성장률	-10.6	-19.4	-6.8	-9.6	-5.3	2.9	-0.1
보험영업수익	금 액	726	-763	1,170	-1,083	-1,294	-3,027	-846
	성장률	-115.4	-94.5	-403.9	-94.4	-41.6	-503.1	10.9
계약자 배당금	금 액	344	302	1,012	1,987	512	256	340
	성장률	0.9	7.1	6.8	1.6	55.6	-25.4	12.6
보험영업수지	금 액	382	-1,065	158	-3,070	-1,806	-3,283	-1,186
	성장률	-107.6	-92.5	-111.9	-85.5	-29.0	-904.7	11.4
세전 영업이익	금 액	11,854	13,812	10,968	44,711	10,197	8,915	10,001
	성장률	-9.2	286.7	-0.7	50.1	6.9	-30.5	-12.8
투자영업이익	금 액	12,730	11,472	11,125	46,990	11,591	11,985	11,442
	성장률	59.5	-831.6	-15.3	-8.0	-1.2	0.9	-6.8
실현자본이익	금 액	-3,185	12,280	1,664	-7,975	981	1248	2,201
	성장률	386.3	0.5	-116.5	-59.8	-112.3	-139.4	43.6
투자영업수지	금 액	8,670	1,533	12,789	39,015	12,573	13,233	13,643
	성장률	-30.1	-117.7	319.0	25.0	235.8	52.0	-1.2
세후손익	금 액	7,089	10,407	12,147	28,334	8,856	7,638	10,147
	성장률	28.1	-205.5	-820.0	1179.2	-776.5	6.3	-2.5
자기자본 (surplus)	금 액	462,995	490,800	511,464	1,902,356	540,700	530,529	544,848
	성장률	-8.8	2.6	12.3	-2.8	23.7	14.6	11.0
지급준비금	금 액	553,396	552,414	552,908	2,213,131	552,863	556,068	556,808
	성장률	1.2	-2.0	-0.5	0.4	-0.3	0.7	0.8
합산비율		99.5	100.5	101.9	101.0	101.1	102.3	100.2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 III, *2010-First Nine Months Results*, 2010. 9.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10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회사를 제외한 원수보험료 또한 2.3% 성장함.

- 원수보험료가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은 12분기 만에 처음이며 향후 경지회복세가 유지될지 여부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업보험시장이 개선될지의 여부가 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수준인 77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손해사정비용은 제외한 직접비용 중 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8억 달러 감소한 19억 달러로 집계됨.

○ 원수보험료가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등 기타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손실은 10.9% 증가한 84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수보험료의 0.8%에 해당함.

○ 합산비율은 0.3%p 감소한 100.2%로 나타났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회사를 제외한 손해율은 0.1%p 감소한 98.9%을 시현함.

■ 투자영업이익은 6.8% 감소한 114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억 달러 감소한 3억 달러 손실을 기록함.

○ 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3/4분기 12억 달러 흑자에서 10억 달러 증가한 2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실현자본이익을 포함한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36억 달러로 나타남.

○ 미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2/4분기 158억 달러 흑자에서 60억 달러 감소한 9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실현자본이익과 미실현자본이익을 합산한 총 자본이익은 12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3.2% 감소한 101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이익률은 1.3%p 하락한 7.5%를 시현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9년 3/4분기 -1%에서 2010년 3/4분기 -16.8%로 하락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 1.5% 증가에도 불구하고 0.9%p 하락한 8.1%로 나타남.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1)]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0 2/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험의 성장 둔화와 개인연금보험 및 단체보험의 실적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9조 3,679억엔에 그침.

○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생사혼합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 종목인 사망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5.7% 증가한 16조 9,250억엔을 기록하였으나 전분기에 이어 성장 둔화세가 이어짐.

- 사망보험은 주요 상품인 종신보험이 전년동기대비 34.3% 급증해 증가세를 지속하고, 정기보험과 정기부종신보험[2)]도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각각 5.3%, 6.2%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향의 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의 실적 부진으로 0.8% 감소하며 성장 정체가 지속됨.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정액연금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보험의 판매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한 1조 9,708억엔을 기록함.

- 이는 올해 초까지 비용 증가와 수익률 저조 등의 이유로 변액연금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회사와 은행들(방카슈랑스)이 여전히 판매에 소극적인 반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층의 정액연금상품의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 단체보험은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로 기업들의 신규 단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49.1% 감소함.

---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정기부종신보험(定期附終身保險)은 피보험자의 일생동안 보장이 계속되는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일정기간(20년 또는 60세 등) 추가해 그 기간 내의 사망보장을 강화한 혼합형 보험으로 유족보장을 주목적으로 함.

- 주력 상품인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의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단체정기보험과 단체신용보험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83.1%, 57.4% 급감함.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개인성	개 인	금 액	160,092	162,902	161,293	629,077	156,984	169,250
		성장률	7.2	11.9	19.4	11.0	8.4	5.7
		구성비	84.0	87.3	84.6	84.8	84.8	87.4
	- 사 망	금 액	128,317	131,594	129,484	504,301	126,766	137,729
		성장률	4.6	8.3	15.6	7.5	10.3	7.3
		구성비	67.3	70.5	67.9	68.0	68.5	71.1
	- 생사혼합	금 액	30,530	29,924	30,545	119,634	28,920	30,278
		성장률	20.8	32.1	42.6	31.0	1.0	-0.8
		구성비	16.0	16.0	16.0	16.1	15.6	15.6
	- 생 존	금 액	1,245	1,384	1,264	5,142	1,298	1,243
		성장률	-12.1	-5.3	-28.1	-15.3	3.9	-0.1
		구성비	0.7	0.7	0.7	0.7	0.7	0.6
	개인연금	금 액	21,377	19,642	21,916	83,265	17,627	19,708
		성장률	-5.6	31.6	29.7	12.3	-13.3	-7.8
		구성비	11.2	10.5	11.5	11.2	9.5	10.2
단체성	단 체	금 액	9,218	3,964	7,322	29,269	10,422	4,689
		성장률	37.3	-50.0	-28.3	-34.5	18.9	-49.1
		구성비	4.8	2.1	3.8	3.9	5.6	2.4
	단체연금	금 액	6	21	11	79	18	17
		성장률	98.2	140.9	-34.3	104.0	-56.9	155.7
		구성비	-	-	-	-	-	-
	기 타*	금 액	6	20	35	67	22	14
		성장률	45.1	647.4	987.3	379.3	227.9	160.4
		구성비	-	-	-	-	-	-
합 계		금 액	190,699	186,549	190,578	741,757	185,073	193,679
		성장률	6.7	10.7	17.4	8.2	6.4	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0 2/4분기 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국채·외화증권 등 유가증권의 가치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1% 증가한 318조 4,274억엔을 시현함.

○ 전분기 감소세를 보인 운용자산 규모는 유가증권의 보유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1.4% 늘어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7,499	24.2	38,597	-18.7	49,951	29.4	33,073	-33.8	42,241	27.7
단기자금	25,502	-7.6	25,211	-1.1	21,393	-15.1	20,428	-4.5	21,264	4.1
매입금전채권	32,035	-1.2	31,726	-1.0	31,970	0.8	32,972	3.1	32,778	-0.6
금전신탁	27,164	0.3	24,131	-11.2	22,051	-8.6	22,462	1.9	20,428	-9.1
유가증권	2,383,830	1.1	2,406,334	0.9	2,441,501	1.5	2,423,965	-0.7	2,465,755	1.7
- 국 채	1,238,690	0.4	1,250,472	1.0	1,279,888	2.4	1,290,118	0.8	1,311,052	1.6
- 지방채	103,181	1.8	106,731	3.4	109,679	2.8	111,249	1.4	114,033	2.5
- 사 채	273,613	-0.2	271,512	-0.8	264,538	-2.6	265,474	0.4	265,240	-0.1
- 주 식	184,445	1.3	180,283	-2.3	186,618	3.5	170,497	-8.6	163,027	-4.4
- 외화증권	423,646	2.3	431,720	1.9	429,571	-0.5	425,960	-0.8	447,978	5.2
대출금	491,933	-2.7	486,072	-1.2	468,953	-3.5	462,290	-1.4	452,978	-2.0
유형 고정자산	67,392	0.9	66,510	-1.3	67,205	1.0	66,301	-1.3	67,590	1.9
운용자산	3,084,342	0.6	3,085,527	0.0	3,113,410	0.9	3,071,987	-1.3	3,114,095	1.4
총자산	3,156,769	0.3	3,155,902	0.0	3,183,802	0.9	3,150,994	-1.0	3,184,274	1.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 유가증권 규모는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업계의 국채매입이 증가하고, 작년 말 이후 부진했던 외화증권 가치도 증대되면서 전분기대비 1.7% 늘어남.

- 주식 보유액의 경우, 상반기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 침체로 전분기대비 4.4% 축소되어 감소세를 이어감.

○ 대출금 규모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대출의 보유액이 하락하는 등 FY2008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주요 종목인 자동차 관련 보험 및 특종보험의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조 9,048억엔에 머무름.

○ 화재 및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9%, 3.36% 감소한 반면, 상해보험과 적하보험이 호조를 보인 해상보험은 각각 3.4%, 8.1% 증가함.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54.5%(자동차보험 44.0%, 자동차배상책임보험 10.5%)를 점유하는 자동차보험 부문의 성장둔화가 지속됨.

- 종합보험 성격을 갖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와 자동차보험시장 포화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 등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도 1.8% 증가에 그침.

○ 특종보험은 개호비용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과 동산보험 등 주력상품의 실적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머무르며 FY2009 4/4분기 이후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3,292	3,895	2,540	13,982	3,316	3,163
	성장률	-1.8	4.1	-3.4	-0.3	-2.4	-3.9
	구성비	17.4	19.7	17.9	18.0	16.2	16.6
해 상	보험료	447	448	484	1,858	514	483
	성장률	-29.9	-19.4	5.8	-19.0	7.1	8.1
	구성비	2.4	2.3	2.6	2.4	2.5	2.5
운 송	보험료	149	156	150	626	166	144
	성장률	-10.3	-10.5	-6.4	-9.5	-2.6	-3.3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314	8,615	8,434	34,135	8,805	8,376
	성장률	-1.1	-0.8	-0.1	-1.0	0.4	0.8
	구성비	43.9	43.6	44.5	43.9	43.1	44.0
상 해	보험료	2,597	2,577	2,349	10,256	2,943	2,686
	성장률	-18.6	-1.2	1.6	-7.6	7.7	3.4
	구성비	13.7	13.0	12.4	13.2	14.4	14.1
특 종	보험료	2,180	2,075	2,156	8,922	2,529	2,189
	성장률	2.0	4.7	4.8	4.5	0.7	0.4
	구성비	11.5	10.5	11.4	11.5	12.4	11.5
자배책	보험료	1,971	2,006	1,974	8,058	2,164	2,189
	성장률	0.5	3.7	4.4	-7.2	2.7	1.8
	구성비	10.4	10.1	10.4	10.4	10.6	10.5
합 계	보험료	18,950	19,771	18,943	77,837	20,437	19,048
	성장률	-4.6	0.5	0.6	-2.5	1.3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보험금 현황〉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특종 및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1% 줄어든 1조 527억엔을 나타냄.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금	863	1,073	988	3,746	915	771
	증가율	-10.4	-0.4	-7.6	-5.9	11.2	-10.6
	구성비	7.9	9.7	8.9	8.6	8.6	7.3
해 상	보험금	279	332	258	1,112	274	260
	증가율	4.1	6.2	-20.4	-2.9	12.6	-6.8
	구성비	2.6	3.0	2.3	2.6	2.6	2.5
운 송	보험금	64	62	64	254	63	66
	증가율	-22.3	-16.8	-5.8	-12.7	-2.1	3.3
	구성비	0.6	0.6	0.6	0.6	0.6	0.6
자동차	보험금	5,263	5,614	5,688	21,761	5,372	5,494
	증가율	0.0	0.7	3.1	0.9	3.4	4.4
	구성비	48.5	50.7	51.1	50.0	50.7	52.2
상 해	보험금	861	902	884	3,508	869	886
	증가율	0.6	-0.6	6.4	2.3	0.9	3.0
	구성비	7.9	8.2	7.9	8.1	8.2	8.4
특 종	보험금	1,571	1,126	1,182	5,199	1,126	1,076
	증가율	20.1	-6.2	-29.6	-2.0	-14.7	-31.5
	구성비	14.5	10.2	10.6	11.9	10.6	10.2
자배책	보험금	1,962	1,955	2,062	7,955	1,971	1,974
	증가율	-2.8	-2.5	2.6	-1.5	-0.2	0.6
	구성비	18.1	17.7	18.5	18.3	18.6	18.8
합 계	보험금	10,862	11,064	11,126	49,536	10,590	10,527
	증가율	1.0	-0.8	-3.2	-0.6	1.0	-3.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운송 및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3, 3.0% 증가했으나, 화재 및 해상보험은 각각 10.6, 6.8%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

○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0.6% 증가에 그침.

○ 특종보험은 주요 종목인 배상책임보험이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고 노동자재해보험과 보증보험도 각각 15.2%, 95.2%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31.5% 급감함.

〈자산 현황〉

■ FY2010 2/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대출금 규모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1.0% 줄어든 30조 1,018억엔을 나타냄.

○ 유가증권 보유액은 채권이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으나, 가장 비중이 큰 주식비중과 외화증권이 금융시장 침체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2% 감소하고 회사채 역시 3.7% 감소하면서 전체 규모도 0.9% 축소됨.

○ 대출금 규모는 일반 및 약관대출 보유액 모두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함.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8,297	12.7	7,324	-11.7	9,335	27.5	7,563	-19.0	9,007	19.1
단기자금		3,847	17.2	3,632	-5.6	3,343	-7.9	3,677	10.0	4,040	9.9
현선거래자금		2,569	-41.0	2,810	9.4	2,285	-18.7	1,820	-20.4	3,149	73.1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	-	500	-	-	-	10	-	-	-
매입금전채권		9,163	3.4	12,133	32.4	12,952	6.8	14,511	12.0	11,362	21.7
금전신탁		1,110	5.4	1,137	2.4	1,130	-0.6	1,085	-4.1	1,093	0.8
유가증권	국 채	49,307	4.1	48,392	-1.9	49,560	2.4	50,150	1.2	51,191	2.1
	지방채	6,293	-0.2	6,286	-0.1	6,104	-2.9	5,740	-6.0	5,350	-6.8
	회사채	39,109	0.3	38,660	-1.1	38,093	-1.5	37,242	-2.2	35,875	-3.7
	주 식	70,886	-2.0	71,539	0.9	74,527	4.2	63,857	-14.3	63,302	-0.9
	외화증권	50,143	-0.1	50,795	1.3	49,639	-2.3	48,508	-2.3	47,919	-1.2
	기타증권	4,510	-7.2	4,516	0.1	4,398	-2.6	4,141	-5.8	4,047	-2.3
	소 계	220,248	0.1	220,188	0.0	222,321	1.0	209,637	-5.7	207,683	-0.9
대출금	약관대출	678	-0.9	662	-2.4	650	-1.7	642	-1.2	631	-1.8
	일반대출	24,028	-1.9	23,819	-0.9	23,088	-3.1	22,809	-1.2	22,467	-1.5
	소 계	24,707	-1.9	24,481	-0.9	23,738	-3.0	23,452	-1.2	23,098	-1.5
부동산		11,212	0.8	11,042	-1.5	10,984	-0.5	10,965	-0.2	10,877	-0.8
운용자산		281,154	-0.1	283,246	0.7	286,090	1.0	272,720	-4.7	270,310	-0.9
기타자산		28,427	-2.9	28,466	0.1	28,865	1.4	31,207	8.1	30,717	-1.6
총자산		309,582	-0.3	311,713	0.7	314,956	1.0	303,928	-3.5	301,028	-1.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 중국 동향[1)]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10년 3/4분기(7~9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전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년동기대비 28.2% 급증한 3,326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실적 호조와 일반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한 937억 위안을 시현함.

- 성장률로는 2009년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20%를 상회함.
- 작년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정책 시행으로 차량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상 및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의 실적도 글로벌경기 회복으로 호조세를 나타낸 데 기인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함.

- 생명보험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만능형(유니버셜)·배당형보험 등의 투자형 상품의 실적 증가와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 활성화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됨.
- 반면,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내수경기 회복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7%, 10.9% 성장에 그치며 성장 폭이 다소 둔화됨.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793	722	642	2,876	995	1,023	937
	성장률	20.6	33.4	29.3	23.1	38.4	29.0	29.8
인보험	보험료	1,916	1,872	1,915	8,261	3,547	2,434	2,389
	성장률	-3.3	5.1	42.1	10.9	38.7	27.0	27.6
- 생명보험	보험료	1,701	1,663	1,734	7,457	3,292	2,179	2,154
	성장률	-1.6	4.2	44.2	12.0	39.5	28.1	29.5
- 건강보험	보험료	154	143	136	574	185	180	161
	성장률	-22.6	8.4	32.2	-2.0	31.5	16.6	12.7
- 상해보험	보험료	61	66	45	230	70	75	73
	성장률	15.0	25.6	4.8	13.0	20.0	23.7	10.9
합 계	보험료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3,326
	성장률	2.7	11.7	38.6	13.8	38.6	27.6	28.2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0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손해보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나타냈던 인보험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789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차량증가 및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발생 증가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441억 위안을 기록해 증가 폭이 확대됨.

○ 인보험은 생명보험 등 전 종목에서 지급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9% 늘어난 263억 위안을 나타냄.

- 올해 초 감소세를 나타냈던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강 및 상해보험도 각각 17.1%, 8.0% 증가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남.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363	402	459	1,576	364	395	441
	증가율	7.7	13.1	5.1	11.1	3.5	8.9	9.6
인보험	보험금	421	332	324	1,550	368	346	348
	증가율	16.2	1.3	5.5	-0.2	-22.0	-18.0	4.9
- 생명보험	보험금	355	258	253	1,269	290	269	263
	증가율	16.4	-3.1	5.5	-3.5	-28.1	-24.1	2.0
- 건강보험	보험금	52	56	55	217	62	60	66
	증가율	12.8	26.0	9.2	23.8	13.8	16.8	17.1
- 상해보험	보험금	15	17	16	64	17	16	19
	증가율	24.3	4.6	-4.9	2.2	11.7	5.5	8.0
합 계	보험금	784	734	783	3,125	732	741	789
	증가율	12.1	7.5	5.3	5.2	-11.1	-5.6	7.5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10년 3/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 규모는 각각 3,326억 위안, 369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8.2%, 20.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보험산업의 고성장으로 수입보험료 유입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초부터 2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10년 3/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투자여건 개선으로 인한 투자금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6.1% 증가한 4조 7,995억 위안을 시현함.

○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투자금 규모는 자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과 재정확장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반면, 대기자금 성격의 은행 예치금 규모는 4분기 만에 가장 낮은 2.9% 증가에 그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3,326
	증가율	2.7	11.7	38.6	13.8	38.6	27.6	28.2
사업비	금 액	281	305	386	1,234	320	357	369
	증가율	9.2	17.4	18.0	14.3	22.1	27.0	20.9
예치금	금 액	10,445	10,058	10,520	10,520	11,595	12,700	13,070
	증가율	4.4	-3.7	4.6	30.1	10.2	9.5	2.9
투자금	금 액	23,280	24,232	26,897	26,897	27,943	28,954	31,253
	증가율	5.0	4.1	11.0	19.7	3.9	3.6	7.9
총자산	금 액	37,072	37,880	40,635	40,635	42,929	45,235	47,995
	증가율	4.6	2.2	7.3	21.6	5.6	5.4	6.1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10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광동성이 288억으로 전분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북경시와 상해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며 점유율이 확대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 경	173	6.4	169	6.5	186	7.8	698	6.5	284	6.2	227	6.6	223	6.7
천 진	38	1.4	35	1.4	36	1.4	151	1.3	63	1.4	51	1.5	49	1.5
하 북	160	5.9	135	5.2	129	5.5	601	5.7	231	5.1	191	5.5	165	5.0
요 녕	86	3.2	85	3.3	79	3.4	345	3.1	135	3.0	114	3.3	106	3.2
대 련	28	1.0	26	1.0	29	1.2	116	1.0	44	1.0	35	1.0	35	1.1
상 해	150	5.5	149	5.7	165	6.6	665	6.2	272	6.0	205	5.9	202	6.1
강 소	199	7.3	202	7.8	192	7.1	908	8.2	414	9.1	249	7.2	258	7.8
절 강	136	5.0	128	4.9	121	3.8	538	4.1	229	5.0	160	4.6	150	4.5
영 파	27	1.0	27	1.0	26	0.7	107	0.7	41	0.9	34	1.0	34	1.0
복 건	68	2.5	62	2.4	55	2.1	272	2.4	109	2.4	83	2.4	78	2.4
하 문	14	0.5	14	0.5	13	0.4	58	0.5	23	0.5	19	0.5	19	0.6
산 동	177	6.5	168	6.5	154	6.1	678	6.1	245	5.4	221	6.4	208	6.3
청 도	30	1.1	27	1.0	28	1.0	115	1.0	43	0.9	39	1.1	37	1.1
광 동	220	8.1	234	9.0	222	8.5	960	8.7	391	8.6	282	8.2	288	8.7
심 천	67	2.5	61	2.4	70	2.4	272	2.1	93	2.1	89	2.6	86	2.6
해 남	9	0.3	7	0.3	8	0.3	33	0.3	13	0.3	13	0.4	11	0.3
산 서	73	2.7	69	2.7	60	2.4	289	2.7	114	2.5	88	2.5	87	2.6
길 림	52	1.9	44	1.7	38	1.7	185	1.7	68	1.5	65	1.9	55	1.7
흑룡강	78	2.9	59	2.3	53	2.3	278	2.7	92	2.0	88	2.5	91	2.7
안 휘	76	2.8	76	2.9	79	3.1	357	3.3	168	3.7	92	2.6	93	2.8
강 서	43	1.6	41	1.6	39	1.6	187	1.7	91	2.0	58	1.7	54	1.6
하 남	137	5.1	137	5.3	137	6.1	565	5.7	258	5.7	187	5.4	173	5.2
호 북	90	3.3	86	3.3	86	3.8	372	3.7	167	3.7	114	3.3	110	3.3
호 남	87	3.2	81	3.1	76	3.2	348	3.3	136	3.0	105	3.0	103	3.1
중 경	56	2.1	56	2.1	53	2.2	245	2.4	111	2.4	75	2.2	73	2.2
사 천	123	4.5	137	5.3	144	5.4	579	5.2	260	5.7	176	5.1	166	5.0
귀 주	24	0.9	24	0.9	22	0.8	95	0.7	36	0.8	32	0.9	29	0.9
운 남	44	1.6	41	1.6	39	1.2	180	1.4	67	1.5	59	1.7	58	1.7
티 벳	1	0.0	1	0.0	1	0.0	4	0.0	1	0.0	1	0.0	1	0.0
섬 서	66	2.4	59	2.3	62	2.6	260	2.4	97	2.1	80	2.3	77	2.3
감 숙	29	1.1	25	1.0	26	1.1	114	1.1	45	1.0	37	1.1	31	0.9
청 해	5	0.2	4	0.2	4	0.1	18	0.1	7	0.1	7	0.2	6	0.2
영 하	11	0.4	9	0.4	9	0.3	39	0.3	15	0.3	13	0.4	12	0.4
신 강	50	1.8	32	1.2	34	1.4	157	1.3	57	1.3	54	1.6	40	1.2
내몽고	45	1.7	48	1.9	35	1.3	171	1.3	56	1.2	58	1.7	57	1.7
광 서	36	1.3	34	1.3	31	1.1	149	1.2	58	1.3	46	1.3	45	1.4
그룹본사	3	0.1	2	0.1	17	0.0	25	0.0	7	0.1	10	0.3	13	0.4
합 계	2,709	100.0	2,594	100.0	2,557	100.0	11,137	100.0	4,541	100.0	3,457	100.0	3,326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광동성은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해 강소성을 제치고 2분기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 광동성과 강소성의 손해보험시장은 각각 75~76억 위안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나, 인보험시장에서 광동성이 강소성에 비해 16.8%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인 북경시와 상해시도 32.0%, 3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6%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0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인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비해,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증가세를 나타내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생명과 핑안생명의 성장둔화로 전년동기대비 4.5%p 하락한 71.7%를 나타냄.

- 업계 1~2위사인 중국생명과 핑안생명은 업계 평균보다 크게 낮은 16.6%, 11.9% 성장해 시장점유율이 3.1%, 2.0% 하락한 반면, 3~5위사인 타이핑양생명, 타이캉생명, 신화생명 등은 주요 판매망인 방카슈랑스 채널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점유율 상승을 보임.

○ 반면, 중소형사와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22.6%, 5.7%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p, 0.4%p 증가함.

- 중소형사 중 가장 큰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전년동기대비 51.0% 급성장하며 사상 최대인 7.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외자계 1위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A(友邦保险)는 전년동기대비 2.9% 성장에 그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 등 최근 들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신성생명과 신화생명은 크게 약진함.

■ 2010년 3/4분기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중소형사 및 외자계회사들은 감소세가 이어져 대형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심화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핑안재산보험과 타이핑양재산보험의 급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4%p 증가한 62.8%를 기록함.

-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으나, 2~3위사인 핑안재산보험과 타이핑양재산보험이 각각 52.2%, 44.6% 큰 폭으로 성장하며 4.1%p, 1.0%p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보임.

○ 이에 비해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5%p, 0.1%p 감소함.

- 외자계 1위사인 차티스(美亚财产, AIG에서 개명)가 전년동기대비 28.2% 성장하며 0.1%p의 점유율 상승을 보인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1억 위안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화재가 도쿄해상을 제치고 2위사로 올라섬.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7.2	76.2	74.2	77.2	75.6	73.5	71.7
		중소형사	17.8	18.6	19.5	17.6	19.5	21.0	22.6
		소 계	95.0	94.7	93.7	94.8	95.1	94.6	94.3
	외자계		5.0	5.3	6.3	5.2	4.9	5.4	5.7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4.8	62.8	61.5	64.2	67.6	65.0	66.2
		중소형사	34.2	36.2	37.3	34.7	31.4	33.9	32.7
		소 계	99.0	99.0	98.8	98.9	99.0	99.0	98.9
	외자계		1.0	1.0	1.2	1.1	1.0	1.0	1.1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생명, 핑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캉생명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险)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财产保险)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险业经营情况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国各地区保费收入情况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险公司保费收入情况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财产保险公司保费收入情况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财产保险)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险)	인보험
인수보험(人寿保险)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伤害保险)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동향[1)]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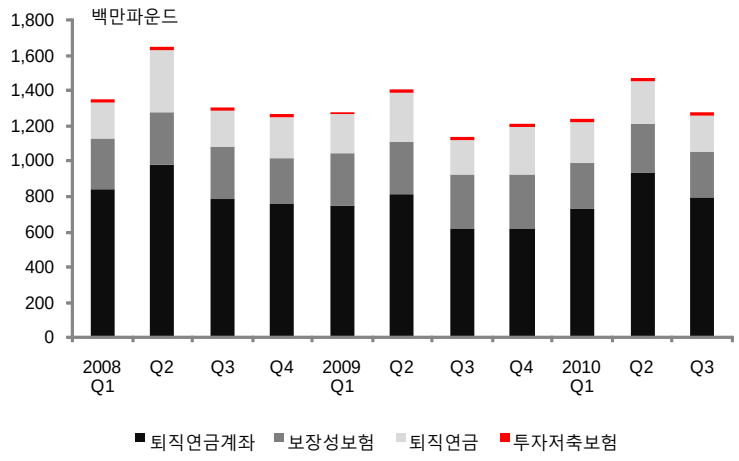
〈생명보험 신규보험료[2)] 추이〉

■ 2010년 3/4분기 중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가파른 둔화세로 인해 1.4% 증가하는데 그침.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12억 8천만 파운드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이 크게 둔화되고 투자·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98억 1천만 파운드에 그침.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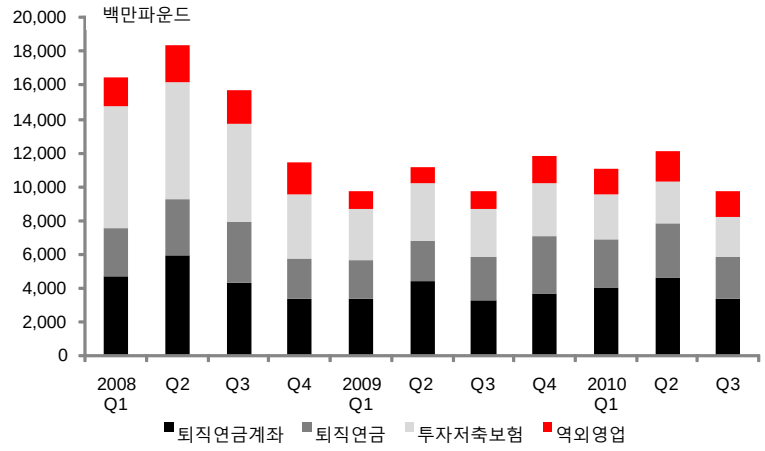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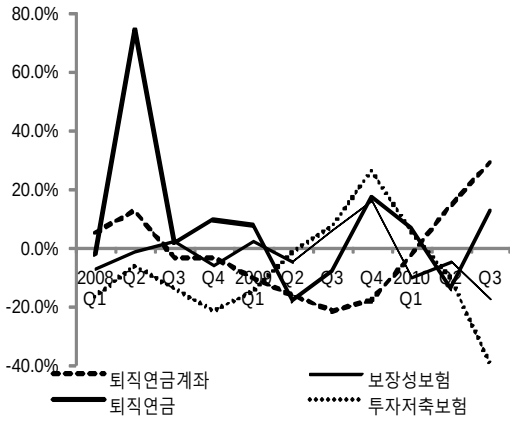
2) 영국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2009년 실질가격으로 조정됨.

〈그림 2〉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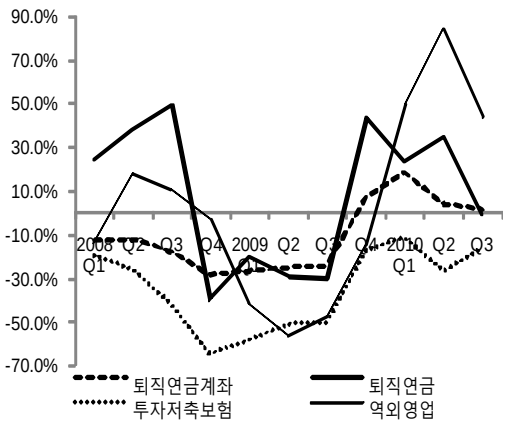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3〉 분할납 신규보험료 성장률



〈그림 4〉 일시납 신규보험료 성장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투자·저축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든 세부종목에서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9.9%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인 1천 3백만 파운드를 나타냄.

○ 어린이신탁을 비롯한 모기지 생사혼합, 생사혼합 등 모든 세부종목의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저축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비중도 1.0%로 하락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 역시 대다수 상품의 판매 저조로 전년동기대비 16.4% 하락한 24억 파운드로 나타남.

○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10% 하락하여 12억 파운드를 거수하였고, Distribution Bonds와 확정형채권(Guaranteed Bonds)은 각각 40%, 91% 하락하여 1억7천만 파운드와 2천 7백만 파운드를 거수하는 가운데, 유배당채권(With-Profit Bonds)은 15% 증가하여 6억 7천만 파운드를 거수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3/4분기 중 퇴직연금계좌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됨.

○ 단체개인연금계좌는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여 퇴직연금계좌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를 견인한 반면,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와 개인관리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은 각각 28%, 21% 감소함.

○ 이러한 퇴직연금계좌의 판매호조로 인해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에 이어 60%를 상회함.

■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세부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는 둔화세를 보임.

○ 단체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self-invested personal pension)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4%, 5% 증가한 반면, 개인관리연금은 40% 감소함.

○ 그러나 계약이전 신규보험료와 DWP 리베이트[3]를 제외한 실질적인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12억 파운드에 달함으로써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임.

○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보험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3.6%p 감소한 34.4%를 시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유입된 신규보험료의 비중은 12.2%로 축소됨.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서 지급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3/4분기 중 퇴직연금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DC형 퇴직연금과 신탁투자 퇴직연금(TIPs: Trustee Investment Plans)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면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함.

○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DC형 퇴직연금과 신탁투자 퇴직연금은 각각 4%, 52%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임.

○ 그러나 3/4분기 중 퇴직연금의 분할납 신규보험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16.4%를 시현함.

■ 퇴직연금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세부종목간의 혼조세로 3/4분기에 0.8% 하락하면서 감소세로 반전됨.

○ 신탁투자퇴직연금(TIPs)은 64% 증가한데 비해 Bulk Buyouts[4]은 68% 감소했으며 DC형 퇴직연금은 증가한데 비해 DB형은 감소함.

○ 따라서 3/4분기 중 퇴직연금이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25.0%를 기록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3/4분기 중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개인 및 단체 보장성보험 모두 하락세로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함.

○ 개인보장성 보험은 3/4분기 전년동기대비 11% 하락하였는데 종신보험과 CI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시현함.

- 신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77% 감소하였으며 모기지 관련 사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고 모기지를 제외한 사망보험도 10% 감소함.

○ 단체보장성 보험은 3/4분기 전년동기대비 34% 하락하였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 구입

- 단체소득보장 보험(group income protection)은 39% 하락하였고 단체생명보험(group life)은 30% 감소함.

○ 3/4분기 중 보장성보험 대부분의 감소세로 인해 분할납 신규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7.3%p 감소한 19.9%를 차지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3/4분기 중 역외영업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대부분 종목들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함으로써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3/4분기 중 personal bonds-pooled는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여 역외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로 높아졌으며, 투자채권(investment bonds)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고 personal bonds-personalized도 19% 증가함.

○ 역외영업이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7%p 증가한 15.5%를 차지함.

○ 한편, 전체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역외영업의 비중은 연금, 종신보험, 저축상품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6.2% 증가함.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10년 3/4분기 중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5]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전속설계사 비중은 축소세가 가속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76.7%를 차지하여 전분기대비 1.7%p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종목은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 개인보장성보험임.

○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2.0%p 감소한 16.4%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연금계좌와 개인보장성보험 모두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직접판매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소폭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0.5%p 증가하면서 비중도 5.6%로 확대됨.

5)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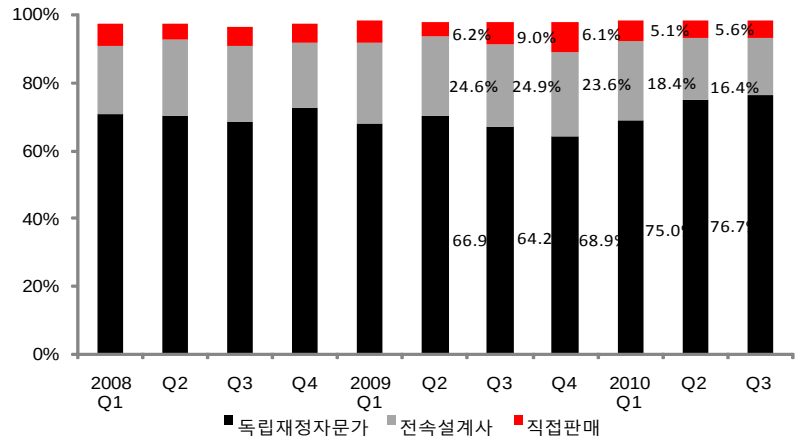
〈표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 백만 파운드)

분할납 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9	21	20	77	18	17	13
	성장률	-2.0	7.3	25.8	2.7	5.1	-10.6	-39.9
	구성비	1.3	1.9	1.6	1.5	1.4	1.1	1.0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818	618	621	2,808	729	936	795
	성장률	-16.2	-21.7	-18.0	-16.5	-3.0	14.4	28.7
	구성비	57.7	54.1	50.9	55.4	58.2	63.1	62.0
퇴직연금	보험료	286	187	273	964	232	246	210
	성장률	-18.0	-8.3	17.3	-2.5	6.7	-14.0	12.3
	구성비	20.2	16.4	22.3	19.0	18.5	16.6	16.4
역외영업	보험료	5	5	6	21	8	9	9
	성장률	23.9	25.8	-0.9	8.5	70.1	73.1	76.2
	구성비	0.4	0.5	0.5	0.4	0.6	0.6	0.7
보장성보험	보험료	289	311	302	1,196	265	275	256
	성장률	-5.0	5.6	15.8	4.2	-10.1	-4.7	-17.7
	구성비	20.4	27.2	24.7	23.6	21.2	18.5	19.9
합계	보험료	1,417	1,142	1,222	5,066	1,252	1,483	1,283
	성장률	-14.3	-12.9	-4.0	-9.4	-2.6	4.7	1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3,406	2,877	3,130	12,445	2,692	2,500	2,405
	성장률	-50.9	-50.4	-17.0	-47.6	-11.2	-26.6	-16.4
	구성비	30.4	29.4	26.4	29.2	24.2	20.6	24.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4,416	3,337	3,654	14,840	4,065	4,603	3,377
	성장률	-25.4	-23.9	7.2	-19.3	18.4	4.2	1.2
	구성비	39.4	34.0	30.8	34.8	36.6	38.0	34.4
퇴직연금	보험료	2,379	2,477	3,409	10,529	2,797	3,209	2,456
	성장률	-28.8	-30.1	43.7	-13.0	23.5	34.9	-0.8
	구성비	21.2	25.3	28.7	24.7	25.2	26.5	25.0
역외영업	보험료	956	1,057	1,610	4,627	1,503	1,758	1,520
	성장률	-55.9	-47.0	-15.1	-40.5	49.6	84.0	43.9
	구성비	8.5	10.8	13.6	10.8	13.5	14.5	15.5
보장성보험	보험료	65	55	66	237	62	54	56
	성장률	-76.9	-77.8	-68.8	-76.7	22.1	-17.4	1.4
	구성비	0.6	0.6	0.6	0.6	0.6	0.4	0.6
합계	보험료	11,221	9,803	11,869	42,678	11,119	12,124	9,814
	성장률	-39.8	-38.6	1.8	-32.3	13.6	8.0	0.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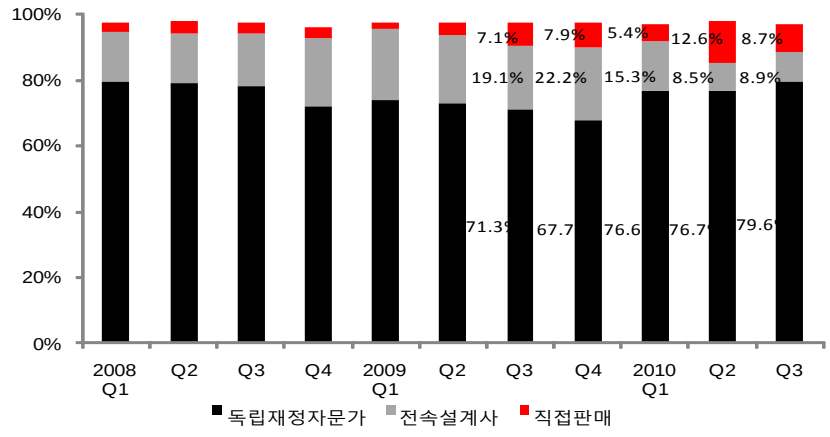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5〉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6)]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6〉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 3/4분기 중 판매채널별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 비중 확대 추이는 지속되었으나, 직접판매의 비중은 축소세로 반전되고 전속설계사 비중은 소폭 확대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는 투자 및 저축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확대되어 전분기대비 2.9%p 증가한 79.6%를 차지함.

6)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2/4분기 중 크게 확대된 직접판매는 3/4분기에 들어와서는 전 종목에서 축소됨으로써 전분기 3.9%p 감소하였고 비중도 8.7%로 위축됨.

○ 한편, 급속한 축소세를 보여 온 전속설계사 판매는 3/4분기 중 투자 및 저축보험과 퇴직연금계좌의 판매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4%p 증가한 8.9%를 차지함.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10년 3/4분기 이탈리아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는 일시납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3.9% 줄어든 130억 유로를 나타내어 감소세로 전환됨.

○ 2010년 3/4분기 비중이 큰 일시납 보험료가 전년동기의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24억 유로를 나타냄.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납 (Annui)	보험료	165	184	124	178	651	166	172	140
	성장률	0.8	15.1	-3.3	-3.3	2.5	0.6	-6.5	12.9
	구성비	1.3	1.1	0.8	0.9	1.0	0.8	0.9	1.1
일시납 (Unici)	보험료	12,080	15,682	14,564	18,196	60,522	20,972	19,195	12,428
	성장률	10.9	39.3	97.4	106.9	57.9	73.6	22.4	-14.7
	구성비	94.6	95.7	96.7	95.0	95.5	95.1	96.0	95.9
분할납 (RSP)	보험료	526	518	369	779	2,192	917	629	398
	성장률	-26.9	-27.6	-4.0	-8.5	-17.9	74.3	21.4	7.9
	구성비	4.1	3.2	2.5	4.1	3.5	4.2	3.1	3.1
전 체	보험료	12,770	16,384	15,057	19,154	63,365	22,056	19,996	12,966
	성장률	8.5	35.1	90.8	94.8	52.2	72.7	22.0	-13.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 실적이며, 연납(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한편, 연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1억 4,000만 유로,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3억 9,800만 유로를 시현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Ⅰ)	보험료	13,747	12,211	15,038	51,028	15,838	13,533	9,672
	성장률	184.4	304.0	108.4	163.7	57.9	-1.6	-20.8
	구성비	83.9	81.1	78.5	80.5	71.8	70.1	70.8
전통형 및 투자형 (Ramo Ⅲ)	보험료	2,102	2,404	3,345	9,950	5,170	5,112	3,367
	성장률	-70.2	-47.4	134.9	-52.8	146.3	143.2	40.0
	구성비	12.8	16.0	17.5	15.7	14.8	26.5	24.6
- 전통형	보험료	1,191	1,109	2,273	5,901	3,255	3,715	2,408
	성장률	-71.2	-28.4	190.8	-46.0	145.1	211.9	117.1
	구성비	7.3	7.4	11.9	9.3	14.8	19.3	17.6
- 보장성	보험료	27	23	40	104	29	22	68
	성장률	-35.8	-68.2	423.3	-26.8	107.1	-19.1	197.5
	구성비	0.2	0.2	0.2	0.2	0.1	0.1	0.5
- 보 증	보험료	81	78	120	300	145	129	190
	성장률	-75.5	16.5	280.4	-61.5	590.5	58.9	143.7
	구성비	0.5	0.5	0.6	0.5	0.7	0.7	1.4
- 변 액	보험료	800	1,192	912	3,638	1,740	1,247	701
	성장률	-68.5	-58.6	41.3	-60.6	137.1	55.8	-41.2
	구성비	4.9	7.9	4.8	5.7	7.9	6.5	5.1
기타 (Ramo Ⅳ)	보험료	0.3	0.3	0.4	1.2	0.2	0.2	0
	성장률	157.1	44.2	3.4	-40.0	0.0	-21.0	-16.6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시옹 (Ramo Ⅴ)	보험료	527	432	752	2,344	1,032	639	612
	성장률	131.6	48.8	98.5	106.3	63.0	21.3	41.8
	구성비	3.2	2.9	3.9	3.7	4.7	3.3	4.5
기타 (Ramo Ⅵ)	보험료	5.6	8.6	18.2	38.0	16	11	13
	성장률	-27.6	16.0	4.7	-34.6	185.7	101.8	55.0
	구성비	0.0	0.1	0.1	0.1	0.1	0.1	0.1
합 계	보험료	16,383	15,057	19,154	63,365	22,056	19,296	13,665
	성장률	35.1	90.8	110.3	52.2	72.7	17.8	-9.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Ⅰ-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Ⅲ-펀드,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Ⅴ-카필탈리자시옹(순수투자형 상품), Ramo Ⅵ&Ⅵ-기타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를 종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Ⅰ)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통형 및 투자형 상품(RamoⅢ)과 카피탈리자시옹(RamoⅤ)은 증가함.

○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Ⅰ)은 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한 135억 유로를 시현하면서 큰 감소세를 나타냄.

○ 전통형 및 투자형(RamoⅢ)의 보험료는 전년동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0.0%의 성장한 34억 유로를 시현함.

○ 카피탈리자시옹(RamoⅤ)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1.8% 성장한 6억 유로를 시현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감.

■ 2010년 10월 생명보험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 약 279만건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누적 신계약 건수 증감률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증감률
	계약 건수	비 중	계약 건수	비 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Ⅰ)	2,194,981	85.8	2,193,961	78.8	0.0
전통형 및 투자형(RamoⅢ)	316,458	12.4	536,146	19.2	69.4
- 전통형	142,842	5.6	206,094	7.4	44.3
- 보장성	5,766	0.2	12,212	0.4	111.8
- 보 증	26,514	1.0	59,335	2.1	123.8
- 변 액	141,336	5.5	258,505	9.3	82.9
기타(RamoⅣ)	711	0.0	1,280	0.0	80.0
카피탈리자시옹(RamoⅤ)	37,519	1.5	36,968	1.3	-1.5
기타(RamoⅥ)	8,040	0.3	17,624	0.6	119.2
합 계	2,557,709	100.0	2,785,979	100.0	8.9
- 연금(개인)	144,755	5.7	218,580	7.8	51.0
- 순수보장성	493,011	19.3	526,679	18.9	6.8
- 기 타	1,919,941	75.1	2,040,721	73.2	6.3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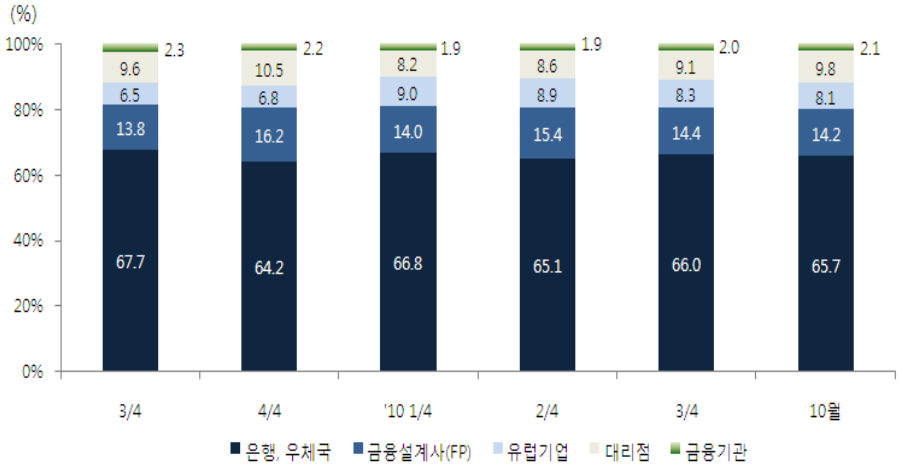
○ 이는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Ⅰ)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형 및 투자형(Ramo Ⅲ)이 전년동기대비 69.4%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0년 3/4분기 생명보험 누적 신규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은행 및 우체국이 66.0%, 금융설계사(FP)는 12.2%, 대리점 9.1%, 유럽기업 8.9%의 비중을 나타냄.

○ 대리점, 금융기관, 은행 및 우체국 비중이 각각 전분기대비 0.5%p, 0.1%p, 0.9%p 증가한 반면 금융설계사와 유럽기업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대비 1.0%p, 0.6%p 감소함.

○ 10월에는 은행 및 우체국의 비중이 65.7%, 금융설계사 14.2%, 대리점 9.8%, 유럽기업 8.1%의 구성비를 각각 기록함.

〈그림 5〉 이탈리아 생명보험 판매채널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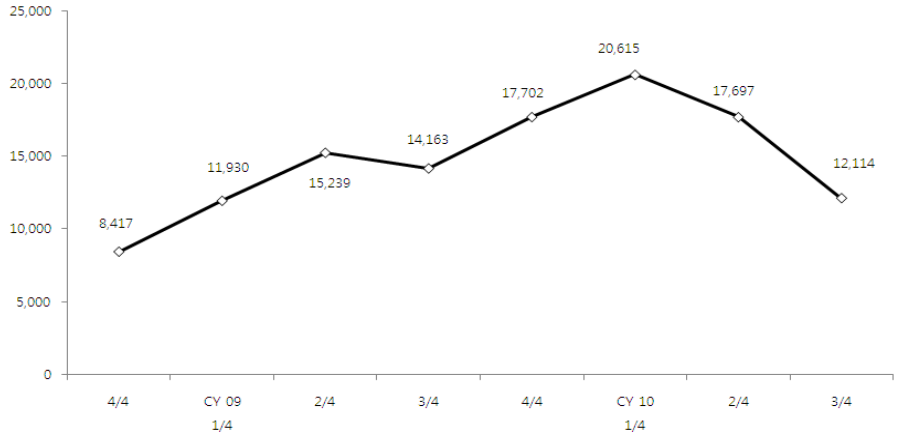
■ 2010년 3/4분기 회사그룹별 실적은 생명보험 시장의 고성장세가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사와 외국사 모두 감소세를 나타냄.

○ 국내사는 3/4분기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한 121억 유로를 나타내면서 감소세로 돌아섬.

○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85억 유로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전분기의 높은 성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그림 6〉 이탈리아 국내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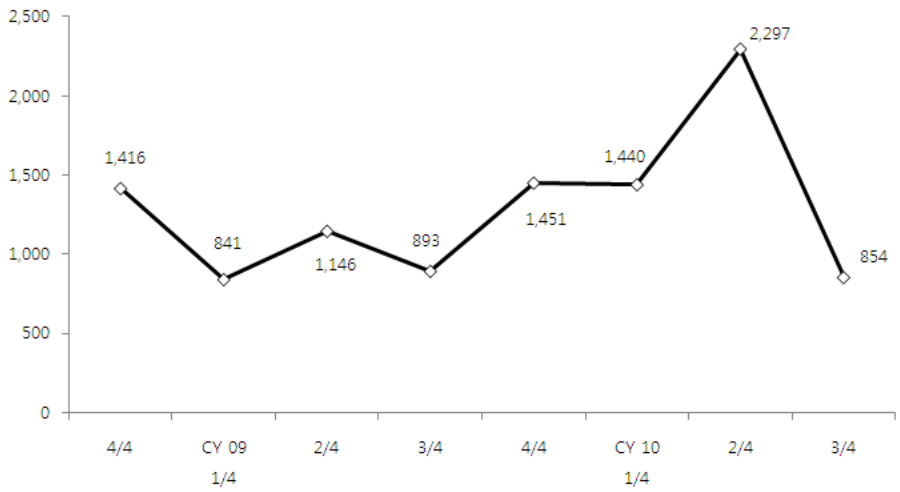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그림 7〉 이탈리아 외국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의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Ⅰ;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Ⅲ;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Ⅳ&Ramo Ⅵ;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Ⅴ;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Ⅴ.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0호 (10. 4)	**8월 경상수지, 196억달러 흑자 기록** ·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 중 경상수지는 19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흑자규모는 전월의 58.2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8월중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9/29)
제100호 (10. 4)	**금감원, 교통사고 위장환자에 대한 점검 실시** ·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위장환자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올해 10월부터 민 · 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 · 관 합동 점검 실시, 금감원, 9/27)
제101호 (10. 11)	**정부, 공동검사로 환율방어 움직임**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회적인 환율 방어의 움직임을 나타냄. (한은 · 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한국은행, 10/5)
제101호 (10. 1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금융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함.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위, 10/6)
제102호 (10. 18)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실시** · 금융감독원은 대출 이용자들이 모든 저축은행 105개의 대출금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서비스 실시, 금감원, 10/8)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2호 (10. 18)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 급증** · 높은 판매 수수료를 따라서 보험회사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보험설계사'들이 지난해에만 1만 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보험사들, 철새 설계사 급증에 골머리, 보험일보, 10/14)
제103호 (10. 25)	**통계청, 고용 완만한 회복세 유지** ·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7월 47만 3천명, 8월 38만 6천명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2010년 9월 고용동향, 통계청, 10/20)
제103호 (10. 25)	**보험회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천차만별** ·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보험회사별로 통일된 기준없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제멋대로', 한겨레 경제, 10/20)
제104호 (11. 1)	**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 증가** · 9월중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 10/27)
제104호 (11. 1)	**금감원, 퇴직연금 업무 일부 불합리한 행태 발견**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행태가 발견됨. (퇴직연금제도 안정화를 위한 업무실태점검 결과, 금감원, 10/27)
제105호 (11. 8)	**외국인, 주식 · 채권투자 매수세 확대** ·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 및 채권 관련 투자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감원, 11/3)
제105호 (11. 8)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힘. (저출산 · 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10/26)
제106호 (11. 15)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 급감** · 금융감독원의 2010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실적조사에 따르면, 발행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금감원, 11/11)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6호 (11. 15)	**금감원,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중 · 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금감원, 11/5)
제107호 (11. 22)	**한은, 기준금리 4개월 만에 인상** · 한국은행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함.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11/16)
제107호 (11. 2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 ·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 연합뉴스, 11/18)
제108호 (11. 29)	**북한 포사격 경제적 영향 제한적** · 북한 연평도 포사격과 관련하여 열린 점검회의 결과, 향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과거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북한 포사격 관련 상황점검회의 결과, 기재부, 11/24)
제108호 (11. 29)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 11/23)
제109호 (12. 6)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 작년 1분기 이후 최저** · 한국은행의 3/4분기 국민계정 발표 결과, 실질국민총소득(GNI) 전기대비 증가율이 작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은, 12/2)
제109호 (12. 6)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효율성 개선** · 금융감독원이 FY2010 상반기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을 분석한 결과, 모집조직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축소됨. (상반기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금감원, 11/29)
제110호 (12. 13)	**한은, 주택담보대출 급증** ·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은, 12/8)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0호 (12. 13)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에는 중고차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 보험료율 체계 개선, 사업비 초과 문제 해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의 내용이 포함됨.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 연합뉴스, 12/8)
제111호 (12. 20)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추후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청년 인턴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힘.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연합뉴스, 12/16)
제111호 (12. 20)	**표준보험료 산출대상 20개로 확대** · 금융위원회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 확대를 위해 표준순보험료 산출 대상을 기존의 13개에서 2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12/14)
제112호 (12. 27)	**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규모 100조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내년도 위탁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약 26조원 늘어난 1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국민연금 내년 100조원 위탁운용, 연합뉴스, 12/23)
제112호 (12. 27)	**금감원,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 ·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일롱환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후 부재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힘. (민 · 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결과, 금감원, 12/22)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0호 (10. 4)	**중국 환율제재 법안, 미 하원 통과** · 위안화 환율 절상을 억제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미 하원을 통과함. (LA Times, 9/30)
제101호 (10. 11)	**생명보험상품 세제혜택, 실효성 논란** ·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상품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고소득자의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10/3)
제102호 (10. 18)	**미 연준, 추가 경기부양책 공감대 형성** ·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회의록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10/12)
제103호 (10. 25)	**시카고 연준 총재, 고인플레이션 유도 정책 제안** · 찰스 에반스(Charls Evans)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힘. (Wall Street Journal, 10/17)
제104호 (11. 1)	**미 연준, 추가 국채매입계획 발표 임박** · 미 연준은 조만간 국채매입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매입규모는 금융위기 당시의 2조 달러에 비해 소규모인 수천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Wall Street Journal, 10/27)
제105호 (11. 8)	**미 연준, 6천 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향후 8개월간 매달 750억 달러 규모로 총 6,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New York Times, 11/4)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6호 (11. 15)	**국제조율 불구, 신흥국 핫머니 유입 차단조치 증가** · 환율과 무역정책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의 외국자본유입 차단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Wall Street Journal, 11/10)
제107호 (11. 22)	**미 의회 정책기구,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압박 요구** · 미 의회 정책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환율,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함. (Reuters, 11/17)
제108호 (11. 29)	**미 연준, 2011년 성장률 하향 조정**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도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Washington post, 11/23)
제109호 (12. 6)	**미 예보(FDIC) 의장, 연방정부 부채위기 가능성 지적** ·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미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 7년간 두 배나 증가하는 등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Washington post, 11/26)
제110호 (12. 13)	**오바마 행정부, 감세 연장안 합의** ·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이번 안이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의회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Wall Street Journal, 12/8)
제111호 (12. 20)	**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개혁법 첫 위헌 판결** ·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 (Wall Street journal, 12/13)
제112호 (12. 27)	**미 재무부, 중국 환율정책에 우려 표명** ·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부 장관은 환율정책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위안화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AFP 등, 9/1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0호 (10. 4)	**아일랜드, Anglo Irish Bank 파산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 · Anglo Irish Bank의 파산위기에 따라 9월 말 현재 아일랜드의 국가 자금 조달 비용은 그리스가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1개월 전 수준까지 상승함. (Financial Times, 9/28, 9/30)
제101호 (10. 11)	**영국, FSA 개편으로 범유럽금융감독에 대한 영향력 축소 우려** · 영국금융감독청(FSA)의 분리가 범유럽금융감독체제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럽금융감독에 대한 영국의 실질적인 협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FSA, 6/16, Financial Times, 9/24, 10/5)
제102호 (10. 18)	**유로지역, 기준금리 동결 및 양적 금융완화정책 억제 시사** · 미국과 일본은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유로지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오히려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억제하겠다고 밝힘. (ECB, 10/7, WSJ, 10/8)
제103호 (10. 25)	**EU, 헤지펀드 규제 합의** · 유로지역의 역내외 헤지펀드는 10월 20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 합의에 따라 향후 각국의 금융당국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감독을 받게 됨. (Wall Street Journal, 10/20)
제104호 (11. 1)	**영국 3/4분기 GDP, 예상 밖의 성장세 시현** · 영국의 3/4분기 실질 GDP가 예상보다 높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됨과 동시에 재정적자 축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New York Times 10/29, WSJ, 10/30)
제105호 (11. 8)	**EU, 상설 구제금융기금 설립 합의** · EU는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금을 상설화하기로 결정했으나, 기금 조달 방법, 민간투자자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영국통계청, 10/26, Financial Times, 10/26)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6호 (11. 15)	**아일랜드 부실 부동산대출 위기, 유럽으로 확산 조짐** ·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주택 모기지 대출의 부실로 재점화되고 있는 아일랜드 위기는 과다채무국들의 국채수익률을 큰 폭으로 상승시킴. (Financial Times, 11/11, Wall Street Journal, 11/9)
제107호 (11. 22)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 임박** · 아일랜드 은행권 부실로 크게 불안정 해진 유럽의 금융시장은 아일랜드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정을 암묵적인 아일랜드 구제금융지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정화되고 있음. (Financial Times 11/17, Wall Street Journal, 11/17)
제108호 (11. 29)	**아일랜드 위기 불안감 여전** · 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이 임박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의 금융시장은 구제금융이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커짐. (Financial Times 11/24, Wall Street Journal, 11/23)
제109호 (12. 6)	**유럽, 다각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시도** ·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을 고려함. (Financial Times, 12/1)
제110호 (12. 13)	**유럽금융시장, 내년 1월 위기설** · 유럽의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부실국채 매입과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2차실시 발표 등으로 인해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나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내년 1월 중에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Financial Times 12/7, 12/8)
제111호 (12. 20)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 벨기에에 이어 스페인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됨. (Financial Times 12/15, WSJ, 12/15)
제112호 (12. 27)	**프랑스 금융시장 불안 조짐**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재 강등을 시사한 가운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유럽의 재정 · 금융 위기가 프랑스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Financial Times 12/21, Bloomberg 12/21, WSJ, 12/22)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0호 (10. 4)	**AIG, 일본 생보사업 완전 철수 전망** · AIG는 일본 생명보험 자회사인 아리코재팬을 매각한데 이어,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고 푸르덴셜에 매각하기로 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알려짐. (일본경제신문, 9/27)
제101호 (10. 11)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양적완화조치 발표** · 일본은행은 7월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0~0.1%로 인하하는 한편, 자산매입 기금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함. (아사히신문, 10/5)
제102호 (10. 18)	**금융청, 보험업계 해외진출 관리감독 강화** ·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금융청은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부문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임. (블룸버그뉴스, 10/11)
제103호 (10. 25)	**일본은행, 내년도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전망** · 일본은행은 발표 예정인 2011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10/20)
제104호 (11. 1)	**생보업계, 하반기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 전망** ·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개한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채권 매입을 늘리는 등 안정적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로이터, 10/26)
제105호 (11. 8)	**재무성, 법인세 감세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발표** · 일본 재무성과 세제위원회는 세재개정으로 내년 법인세율이 5%로 인하됨에 따라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별조치 폐지와 과세기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함. (FujiSankei Business I, 11/3)
제106호 (11. 15)	**국가부채, 909조엔으로 사상 최고치** · 재무성은 9월 말 현재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약 2배 수준인 909조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발표함. (로이터, 11/11)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7호 (11. 22)	**도쿄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세** ·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매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은 9~11월간 큰 폭으로 순매수하며 최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ujiSankei Business I, 11/18)
제108호 (11. 29)	**북한발 리스크, 일본금융시장 제한적 영향 전망**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일본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FujiSankei Business I, 11/25)
제109호 (12. 6)	**장기금리 상승세로 경기회복에 먹구름** · 일본의 장기금리(10년물 국채 수익률)가 일본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11/30)
제110호 (12. 13)	**금융청,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 발표** · 일본금융청은 최근 일본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담은 '금융발전전략 실행계획'(이하 발전전략)을 발표함. (아사히신문, 12/7)
제111호 (12. 20)	**증권세제 우대책, 2012년까지 연장 확정** · 일본정부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양도이익 세율을 10%로 인하하는 세제 우대책의 시행 기한을 논란 끝에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FujiSankei Business I, 12/15)
제112호 (12. 27)	**일본은행, 추가금융완화 조치 보류** · 일본은행은 현행 제로금리정책을 지속하고 추가금융완화조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는 등 현재의 통화정책을 현상 유지하기로 결정함. (아사히신문, 12/21)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0호 (10. 4)	**위안화 문제,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상정 불투명** · 미국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함. (로이터, 9/27)
제101호 (10. 11)	**중국, 한국국채 매입 확대 경계론 비판** · 중국 언론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한국국채 매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한국 내에서 중국이 악의적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등 중국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 (환구시보, 10/4)
제102호 (10. 18)	**AIA생명, 홍콩 증시상장 임박** · AIA생명은 푸르덴셜그룹과의 중국 자회사 매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정대로 10월 29일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함. (중국경영보, 10/12)
제103호 (10. 25)	**인민은행, 3년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 중국인민은행은 2년 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함. (인민일보, 로이터, 10/20)
제104호 (11. 1)	**보험업계, 금리인상으로 투자수익 개선 기대** ·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보장성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임. (21세기경제보도, 10/25)
제105호 (11. 8)	**세계은행, 2010 ·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국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2010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당초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 (신화사, 11/3)
제106호 (11. 15)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전격 인상** ·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내 자금유입 증가와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로이터, 11/11)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07호 (11. 22)	**중국정부,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 예정** · 중국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식품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통제 및 투기단속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로이터, 11/16)
제108호 (11. 29)	**내년도 정부 물가상승률 목표치 4% 상향 전망** · 중국 일간지 제일재경일보는 올해 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2011년 거시경제정책 기본 방침'에 내년도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3%에서 4%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함. (로이터, 제일재경일보, 11/23)
제109호 (12. 6)	**중국 외국환평형기금 최고치 경신** ·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월 외국환평형기금이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증권보, 11/29)
제110호 (12. 13)	**중국,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 ·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및 자산거품 우려가 확산되자 2년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정책에서 경미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함. (중국증권보, Record China 12/7)
제111호 (12. 20)	**중국정부, 2011년 경제성장률 목표 8% 설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각각 8%, 4%가 될 것으로 전망함. (신화사, 중국 CCTV, 12/15)
제112호 (12. 27)	**올해 중국 무역규모, 사상 최고치 전망** · 중국 상부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 무역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2조 9천억 달러를 달성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증권보, 중국상무부 홈페이지, 12/22)

Ⅵ.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3.3	-4.3	-2.2	1.0	6.0	8.1	7.2	4.4
경상수지		6,496.6	4,543.3	11,557.4	8,613.2	8,076.6	263.3	8,568.0	9,411.2
수 출		93,071	74,421	90,360	94,781	103,971	100,283	113,677	114,364
수 입		91,528	71,418	73,970	84,845	92,852	84,440	92,518	93,605
실업률		4.68	3.64	3.89	4.30	4.34	4.14	3.50	3.50
금리	국고채(3년)	4.68	3.64	3.89	4.30	4.34	4.14	3.74	3.70
	회사채(3년)	8.29	6.85	5.35	5.59	5.46	5.25	4.61	4.63
소비자물가지수		110.8	111.6	112.7	113.3	113.5	114.6	115.6	116.6
환율	원/달러	1,257.5	1,377.1	1,284.7	1,188.7	1,167.6	1,130.8	1,210.3	1,142.0
	원/엔화	1,393.9	1,414.8	1,336.3	1,318.8	1,262.8	1,217.7	1,364.6	1,363.3
KOSPI		1,124.5	1,206.3	1,390.1	1,673.1	1,682.8	1,692.9	1,698.3	1,872.8
외환보유고		201,223	206,340	231,735	254,247	269,995	272,331	274,218	289,775

주 :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22,241	-6,367
- 생 보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13,782	843
- 손 보	-10	-4,588	7,795	234	-779	-2,365	8,459	-7,211
은 행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47,911	-231,647
- 일 반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70,442	-202,455
- 신 탁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22,531	-29,192
증 권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29,207	-23,623
투 신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190,970	4,956
종 금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60,687	8,86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 존	보험료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성장률	-0.5	-0.2	4.8	16.2	14.1	8.8	17.2	12.9
	구성비	19.1	19.6	20.6	18.2	21.4	19.9	21.0	21.7
사 망	보험료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성장률	-1.1	-3.9	-2.1	-0.7	-0.1	-1.7	-0.2	-1.1
	구성비	40.0	41.0	40.5	32.5	37.8	37.6	37.3	37.4
생 사 혼 합	보험료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성장률	0.5	18.5	22.6	33.9	20.1	23.6	33.6	28.7
	구성비	9.0	10.3	10.8	9.5	12.2	10.7	12.6	12.9
변 액 보 험	보험료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성장률	1.2	-13.7	-8.4	5.1	10.4	-2.3	10.0	8.3
	구성비	23.9	23.3	23.5	19.8	23.3	22.3	23.4	23.7
개인계	보험료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성장률	-0.2	-3.9	-0.1	7.6	7.8	2.8	9.7	7.6
	구성비	92.1	94.3	95.4	80.1	94.6	90.5	94.2	95.8
단체	보험료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성장률	-19.2	-9.5	-5.2	48.0	23.8	25.7	12.6	-3.1
	구성비	7.9	5.7	4.6	19.9	5.4	9.5	5.8	4.2
합계	보험료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성장률	-2.0	-4.2	-0.3	13.8	8.6	4.6	9.8	7.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 존 보 험	지급보험금	9,899	20,832	20,875	21,283	22,101	85,090	20,570	21,441
	증가율	14.9	-8.8	-33.2	-43.3	-21.8	-29.0	-1.3	2.7
	지급률	85.2	60.6	56.4	52.2	54.0	55.6	51.0	51.3
사 망 보 험	지급보험금	146,996	37,161	39,103	35,853	37,182	149,298	36,009	36,698
	증가율	18.8	18.5	10.7	-8.1	-10.0	1.6	-3.1	-6.1
	지급률	49.9	51.7	53.8	49.4	51.4	51.6	50.2	51.1
생 사 혼 합 보 험	지급보험금	71,622	12,802	14,843	23,144	19,768	70,557	12,028	12,509
	증가율	-30.4	-31.7	-18.6	19.9	28.8	-1.5	-6.0	-15.7
	지급률	107.9	70.7	76.8	108.9	84.5	86.0	49.7	50.3
변 액 보 험	지급보험금	59,597	14,922	21,046	21,928	23,385	81,281	25,859	28,701
	증가율	1.0	0.3	51.2	30.8	66.6	36.4	73.3	36.4
	지급률	33.9	36.5	50.0	49.4	52.5	47.3	57.5	62.9
개 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398,114	85,717	95,867	102,208	102,435	386,227	94,466	99,349
	증가율	2.1	-2.4	-2.9	-9.2	3.5	-3.0	10.2	3.6
	지급률	58.8	51.9	56.0	57.1	56.5	55.4	52.1	54.0
단 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77,324	15,917	11,625	36,589	23,430	87,562	18,597	12,617
	증가율	31.8	-0.3	-20.2	70.3	-7.5	13.2	16.8	8.5
	지급률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157.1
전 체	지급보험금	475,438	101,634	107,492	138,797	125,865	473,789	113,063	111,966
	증가율	5.9	-2.1	-5.1	3.5	1.3	-0.3	11.2	4.2
	지급률	64.6	58.0	59.9	62.1	65.8	61.6	58.8	58.3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 존 보 험	사업비	32,602	6,878	7,674	8,288	7,620	30,460	7,837	7,797
	증가율	3.9	-18.4	-18.3	-4.9	25.8	-6.6	13.9	1.6
	사업비율	23.2	20.0	20.7	20.3	18.6	19.9	19.4	18.7
사 망 보 험	사업비	70,989	17,664	18,311	19,533	18,283	73,791	18,672	18,329
	증가율	-8.0	-3.9	-0.7	9.9	11.6	3.9	5.7	0.1
	사업비율	24.1	24.6	25.2	26.9	25.3	25.5	26.0	25.5
생 사 혼 합 보 험	사업비	25,954	4,874	4,869	5,237	5,025	20,005	4,779	5,089
	증가율	-3.0	-34.6	-34.1	-18.0	6.5	-22.9	-1.9	4.5
	사업비율	39.1	26.9	25.2	24.6	21.5	24.4	19.8	20.5
개 인 보험계	사업비	129,544	29,417	30,853	33,058	30,929	124,256	31,288	31,215
	증가율	-4.3	-14.2	-12.4	0.6	13.9	-4.1	6.4	1.2
	사업비율	19.1	17.8	18.0	18.5	17.1	17.8	17.3	17.0
단 체 보험계	사업비	3,519	874	862	1,008	985	3,729	1,097	955
	증가율	0.3	2.2	-9.9	9.0	25.9	6.0	25.5	10.8
	사업비율	6.1	8.8	10.4	2.3	9.6	5.1	9.8	11.9
전 체	사업비	133,063	30,290	31,715	34,066	31,914	127,985	32,385	32,170
	증가율	-4.1	-13.8	-12.4	0.8	14.2	-3.8	6.9	1.4
	사업비율	18.1	17.3	17.7	15.2	`16.7	16.6	16.8	16.7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2,835	654	632	798	679	2,763	622	602
	성장률	-7.8	-6.6	-0.1	0.7	4.3	-2.5	-5.0	-4.7
	구성비	0.8	0.7	0.6	0.7	0.6	0.6	0.5	0.5
해 상	보험료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1,970
	성장률	20.9	2.2	5.1	-27.5	5.5	-5.4	-5.9	-2.0
	구성비	2.3	2.2	1.9	1.5	1.7	1.8	1.7	1.6
자동차	보험료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성장률	1.2	-0.6	1.4	3.3	6.4	2.6	7.6	8.3
	구성비	29.2	27.2	26.9	23.7	25.0	25.6	24.3	25.0
보 증	보험료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2,978
	성장률	16.0	12.5	-1.3	10.1	5.4	6.6	0.9	3.1
	구성비	3.1	3.2	2.7	2.6	2.8	2.8	2.6	2.4
특 종	보험료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9,030
	성장률	6.9	15.8	12.5	16.3	12.6	14.3	15.8	7.2
	구성비	7.8	8.3	8.0	7.4	6.7	7.6	8.0	7.4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781	383	500	661	534	2,078	433	568
	성장률	58.4	71.1	46.6	3.8	-7.9	16.7	13.1	13.6
	구성비	0.5	0.4	0.5	0.6	0.5	0.5	0.4	0.5
장 기 손 해	보험료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성장률	15.5	18.3	23.3	24.5	27.0	23.4	25.5	21.2
	구성비	50.4	53.1	54.5	49.5	55.9	53.2	51.3	56.7
개 인 연 금	보험료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5,818
	성장률	28.6	25.7	30.4	46.5	49.9	38.8	51.3	43.7
	구성비	3.4	3.7	3.9	4.1	4.6	4.1	4.6	4.8
퇴 직 보 험	보험료	6,807	758	521	6,828	573	8,680	960	273
	성장률	-17.6	46.4	27.3	43.1	-48.4	27.5	26.7	-47.5
	구성비	1.8	0.8	0.5	5.7	0.5	2.0	0.8	0.2
퇴 직 연 금	보험료	3,322	534	541	5,049	1,994	8,119	2,385	1,123
	성장률	55.7	-29.4	39.3	307.9	112.4	144.4	346.4	107.4
	구성비	0.9	0.5	0.5	4.2	1.8	1.9	2.0	0.9
계	보험료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성장률	10.3	11.7	14.9	21.1	19.4	16.9	20.8	16.5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2.4	37.1	54.3	39.9	21.2	50.1
	사업비율	49.1	16.6	43.5	36.3	60.0	51.3
	합산비율	81.5	83.8	97.7	76.3	81.2	101.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2.4	89.0	85.4	81.9	36.1	55.2
	사업비율	24.1	26.3	44.2	36.2	28.7	31.5
	합산비율	106.5	115.4	129.6	118.1	64.8	101.4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66.1	47.9	31.5	88.0	-98.2	70.9
	사업비율	15.6	23.7	21.6	15.5	17.7	20.8
	합산비율	81.8	71.6	53.0	103.4	-80.6	91.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1.4	67.2	63.0	57.4	52.8	66.4
	사업비율	26.0	18.6	24.4	32.6	24.9	23.1
	합산비율	87.4	85.8	87.4	90.0	77.8	89.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9.2	29.0	29.0	35.2	42.6	36.1
	사업비율	61.9	56.5	60.0	77.3	59.3	56.9
	합산비율	101.1	85.5	89.0	112.6	102.0	93.0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7.9	60.0	60.2	59.3	71.8	51.1
	사업비율	28.7	27.5	30.1	26.8	25.2	26.5
	합산비율	86.6	87.5	90.3	86.1	97.0	77.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1.0	74.1	79.0	78.6	75.7	82.5
	사업비율	30.3	29.9	31.7	31.7	30.3	31.1
	합산비율	101.3	104.0	110.7	110.3	106.0	113.6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8.9	78.5	80.1	81.5	81.3	81.3
	사업비율	21.8	22.9	17.0	17.5	17.6	17.8
	합산비율	100.7	101.5	97.1	99.0	99.0	99.2
전 체	경과손해율	74.2	74.9	76.7	78.2	72.8	79.3
	사업비율	24.8	25.2	22.5	22.8	21.9	22.3
	합산비율	98.9	100.1	99.1	100.9	94.6	101.6

주 :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1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조사보고서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정책보고서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이봉주 2007.3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6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Insurance Business Report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년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보험통계월보 (월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보험통계월보 - 손해보험통계연보	- 보험통계월보 -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통권 56호)

발행일 2011년 1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